

삼척학 정립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 및
분야별 과제발굴 연구**

2020.12

삼척시의회

**삼척학 정립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 및 분야별 과제발굴 연구**

2020. 12.

삼척시의회

제 출 문

삼척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삼척학 정립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 및 분야별 과제
발굴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 호 식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① 연구의 배경	3
②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① 연구의 범위	5
② 연구의 방법	5

제2장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 및 정당성

제1절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	9
① 지역의 인구위기	9
② 도시쇠퇴의 위기	11
③ 지역소멸의 위기	15
제2절 왜 지역학 연구를 해야 하는가?	16
① 위기를 기회로 : 지역학 연구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강화	16
② 지역학으로서 삼척학의 연구방향	21

제3장 지역학 연구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제1절 지역학 연구 관련 정책 동향	27
① 문화 관련 정책 및 계획	27
② 교육 관련 정책 및 계획	30
제2절 지역학 연구 관련 법제 동향 - 법률	31

① 문화 관련 법률	32
② 교육 관련 법률	40

제3절 지역학 연구 관련 법제 동향 - 지방자치 관련 법률 및 조례 43

① 지방자치 관련 법률	43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	46

제4장 지역학 연구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해외 사례 51

① 개요	51
② 서구국가	51
③ 아시아국가	55

제2절 국내 사례 65

① 제주학연구센터	68
② 충북학연구센터	72
③ 전주문화재단	76

제3절 시사점 78

① SWOT 분석	78
② 시사점	79

제5장 지역학 연구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

제1절 삼척학연구센터의 기본구상 및 비전체계 83

① 지역학으로서 삼척학의 개념 및 성격	83
② 삼척학연구센터의 중장기 비전체계	83

제2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 및 사업대상 85

①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	85
②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대상	87

제3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 및 종합검토	89
① 직접운영방식 : 문화공보실 삼척학연구팀	89
② 별도 법인설립 운영방식 : 재단법인 삼척학연구센터	89
③ 기존법인 통합 운영방식 :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91
④ 전문기관 위탁 운영방식(1) : 삼척문화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92
⑤ 전문기관 위탁 운영방식(2) :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94
⑥ 대안별 비교검토 및 평가의견	96

제6장 현대사적 관점에서의 삼척학 인물연구

제1절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연구 동향 및 과제	101
① 지역출신 인물연구의 동향 : 특징 및 한계	101
② 지역출신 근현대 인물연구의 방향 및 과제	101
제2절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 및 조사현황	104
①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의 기본전제	104
②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 및 조사현황	105

제7장 지역학 연구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방안

제1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방향	141
① 기본 운영방향	141
② 세부 운영방향	142
제2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체계	144
① (1안)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144
② (2안)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146
제3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전략	149
① 단계별 운영전략	149
② 재원의 확보전략	150

제4절 삼척학연구센터의 분야별 연구과제	152
① 분야별 사업목표	152
② 단계별 연구과제	155

제8장 종합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종합결론	161
제2절 정책건의	163

표 목 차

<표 2-1> 강원도 주요 도시 장래 인구추계	10
<표 2-2> 도시쇠퇴 현황자료	12
<표 2-3> 지역학의 주제별 구성요소	18
<표 2-4> 지역개발의 변천과정	20
<표 2-5> 지역학을 구성하는 학문적 속성	22
<표 3-1>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의제	29
<표 3-2> 지역학 연구 관련 법률 현황	31
<표 3-3> 지역학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47
<표 4-1> 일본 하기시의 동네박물관 조성 및 운영 과정	58
<표 4-2> 타이완의 지역학 추진현황	62
<표 4-3> 시도별 지역학 연구기관 설치 현황	66
<표 4-4> 제주학연구센터의 발전단계	69
<표 4-5> 제주학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	70
<표 4-6> 충북학연구소의 주요 사업방향 및 내용	72
<표 5-1>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의 성격 및 연구영역	85
<표 5-2>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의 성격 및 연구영역	86
<표 5-3>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대상	88
<표 5-4>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에 대한 종합검토(안)	97
<표 6-1>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 선양사업 대상자 선정시 배제기준	103
<표 6-2>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 및 조사현황	105
<표 6-3>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106
<표 6-4>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107
<표 6-5> 삼척을 빛낸 독립유공자의 훈장 및 포장 수여자 현황	107
<표 6-6> 삼척을 빛낸 정치인 및 공무원 현황	114
<표 6-7> 삼척을 빛낸 경제인 현황	119
<표 6-8> 삼척을 빛낸 문화예술인 현황	125
<표 6-9> 삼척을 빛낸 체육인 현황	136
<표 7-1> 삼척학연구센터의 세부 운영방향	143
<표 7-2> 전국 주요도시의 지역학 교양강좌 운영현황	15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6
[그림 2-1] 강원도 주요 도시 장래 인구추계	10
[그림 2-2] 삼척시 인구현황	10
[그림 2-3] 삼척시 연령대별 인구비율	10
[그림 2-4] 강원도 도시쇠퇴 군집 유형	14
[그림 2-5] 지역정체성과 지역이미지의 상관관계	19
[그림 2-6] 지역학 연구의 의미성	21
[그림 2-7] 삼척 지역학의 방향	24
[그림 4-1] 일본 지역학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	56
[그림 4-2] 일본 하기시 동네박물관의 주요사업	59
[그림 4-3] 일본 쓰시마시 지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사업 3단계	60
[그림 4-4] 일본 쓰시마시 지역학 연계의 전체 사업구상도	61
[그림 4-5] 지역학 연구기관의 설립추이도	66
[그림 4-6] 달래강 123 인문예술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 및 과제	76
[그림 4-7] 마을조사 사업 및 마을구술사 사업의 주요 성과 및 과제	77
[그림 5-1] 삼척학연구센터의 중장기 비전체계	84
[그림 5-2]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연구영역) 및 기대효과	87
[그림 5-3]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의 조직도(전후비교)	92
[그림 7-1] 삼척학연구센터의 기본 운영방향	142
[그림 7-2] 삼척문화재단의 조직도	145
[그림 7-3]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조직도	146
[그림 7-4]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조직도	147
[그림 7-5]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추진절차	148
[그림 7-6] 삼척학연구센터의 단계별 운영전략	149
[그림 7-7] 삼척학연구센터의 자원확보 전략	151
[그림 7-8] 삼척학연구센터의 분야별 사업목표 및 핵심과제	153
[그림 7-9]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및 구조	153
[그림 7-10] 삼척학연구센터의 단계별 연구과제	157

제1장

연구개요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① 연구의 배경

- 21세기 지역도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적 변화의 가속화,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산업의 쇠퇴, 그리고 산업화 이후 지역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공간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전국 대부분의 지역도시는 도시쇠퇴(Urban Decline), 도시축소(Urban Shrinkage), 나아가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 및 고용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지역도시의 소멸위기라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음
- 최근 통계청(2019.06.27)이 발표한 '2017~204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전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명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2천562만명으로 31.8%(1천195만명)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2018)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40% 가량은 65세 이상 인구수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을 의미하는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 뒤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역도시의 위기는 지역공동체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지역도시의 재생과 회복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지역도시의 쇠퇴-축소-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지역도시의 쇠퇴, 축소 또는 소멸의 위기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다행히도 21세기 들어 국제사회는 글로벌리즘(Globalism)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가 활발히 소통하는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1995년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글로컬리즘(Glocalism)이 부상하고 있음
- 20세기 말부터 진행된 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진정한 세계화는 지역으로부터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의 경쟁력은 지역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확장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연

구 내지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음

- 즉 국내에서 지역연구 내지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을 스스로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지역도시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생 또는 재생하려는 자구적 노력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국내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산업, 자연과 환경 등이 망라된 자료들을 수집·발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을 통하여 지역문제의 미래지향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임
- 강원영동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삼척시의 경우, 1989년 중앙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인구감소의 가속화와 지역경제의 피폐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30년 후에는 소멸위험도시로 전락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와 산업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도시의 쇠퇴, 축소 그리고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 지역도시의 지역학 연구동향, 중앙정부의 정책 및 법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삼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 즉 지역학으로서 삼척학의 정립을 위한 기본토대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본 연구는 삼척학 연구의 제도적 산실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분야별 연구과제의 발굴을 통하여 지역정체성의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도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1차 범위 : 삼척시 전역
(단, 1980년대 태백시와 동해시 등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기 전의 삼척군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함)
 - 2차 범위 : 국내 도시 및 해외 도시
- 내용적 범위
 -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 및 정당성
 - 지역학 연구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 지역학 연구 관련 국내외 지역도시의 사례분석
 - 지역학 연구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
 - 현대사적 관점에서의 삼척학 인물연구
 - 지역학 연구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방안
 -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지역학 관련 연구자료 및 연구동향, 지역학 관련 현황자료, 지역학 관련 정책 및 법령(조례 포함) 자료의 분석
- 사례연구
 - 지역학 연구 관련 해외도시의 사례분석, 지역학 연구 관련 국내도시의 사례분석

○ 자문연구

- 근현대 이후의 삼척의 인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약간 명의 지역연구 전문가의 자문

[그림 1-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제2장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 및 정당성

제1절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

제2절 왜 지역학 연구를 해야 하는가?

제1절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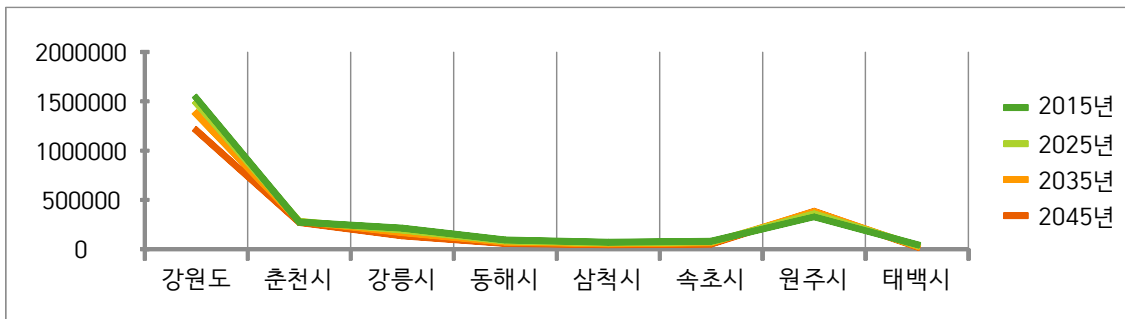
1 지역의 인구위기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2023년 5,68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하락할 전망이다 2022년 0%를 기록한 후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1.04%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함. 2029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한국 인구의 19%에 해당하고 한반도 면적의 47.5 %를 차지하는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저출산·고령화·생산인구 유출·저성장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으로 지역이 축소·소멸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들어섬
 - 강원도 고령화 인구 비율은 2010년 14.8%, 2012년 15.7%, 2016년 17.2%, 2019년 19.6, 2020년 20.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령인구 비율(15.8%)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특히 도내 18개 시·군 중 태백·삼척·홍천·평창·고성·정선·영월·횡성·양양 등 9개 시·군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
 - 강원도의 0~14세 인구비율은 11.9%(18만4천405명)로 전국 평균(13.1%)보다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됨(출처: 이뉴스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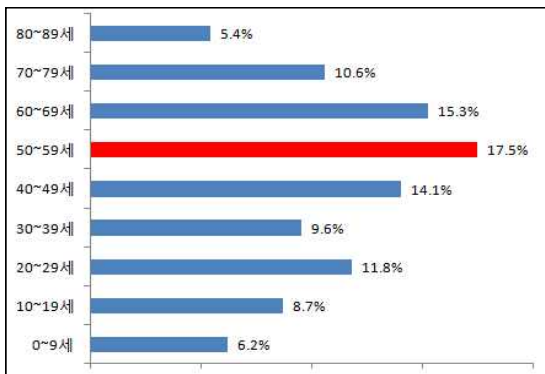
<표 2-1> 강원도 주요 도시 장래인구추계(정성호·홍창수, 2018)

구 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강원도	1,533,360	1,479,293	1,373,440	1,204,266
춘천시	274,619	283,790	284,107	270,110
강릉시	213,453	192,221	166,895	136,234
동해시	93,480	82,932	70,537	56,676
삼척시	70,846	63,499	55,105	45,508
속초시	81,529	72,969	63,203	51,132
원주시	327,756	358,947	382,162	385,105
태백시	46,836	38,977	30,621	22,667

[그림 2-1] 강원도 주요 도시 장래 인구추계



[그림 2-2] 삼척시 인구현황



[그림 2-3] 삼척시 연령대별 인구비율



- 강원도의 인구규모는 201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2015년 인구의 93.5%인 143만 명, 2045년에는 2015년의 78.5%인 12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7개 시 중 춘천시와 원주시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춘천시는 2030년 이후 약간 감소할 것이며 원주시는 204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예정임
 - 강릉시의 경우 2045년이 되면 2015년 인구의 63.8%인 13만6천 여 명으로 감소될 것이고, 동해, 속초, 삼척 등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할 예정임.
 - 이미 인구 5만 수준이 무너진 태백시는 2035년에 3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정성호·홍창수, 2018)
- 강원도 도시들이 시간이 갈수록 인구소멸의 위험단계로 치닫고 있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출산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 여성들을 포함하여 청년층, 중년층들의 생활환경조건이 열악한 결과임
 - 일자리나 교육환경, 복지·의료·문화시설 등 생활환경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결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유출과 지속적인 출생률 저하,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 짐

2 도시쇠퇴의 위기

- 연구자들마다 도시 쇠퇴의 원인과 유형을 다르게 분석하고 있음
 - 조진희 외(2010)는 도시쇠퇴 원인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인구구조의 노령화, 열악한 도시산업구조, 경제활동인구 감소, 도시재정 악화, 정주환경 악화 등을 들고 있음
 - 이인희(2008)는 도시쇠퇴의 유형으로 OECD(1998)에서 발표한 도심쇠퇴, 주변부쇠퇴, 도심·주변부 혼합쇠퇴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음. 도시쇠퇴의 원인을 경제적 원인, 사회적 측면, 공공 정책적 측면 등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경제적 원인으로는 장기적 실업문제, 임금·소득에서의 불평등문제,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계급 공동체 해체, 가족의 해체, 사회적 취약그룹의 특정지역 집중을, 그리고 공공 정책적 측면에서는 국가에 의한 복지체계의 변화, 주택정책, 교통 및 기타 인프라 정책을 들고 있음
 - 이를 종합해 보면 지역쇠퇴의 원인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정책·제

도적 요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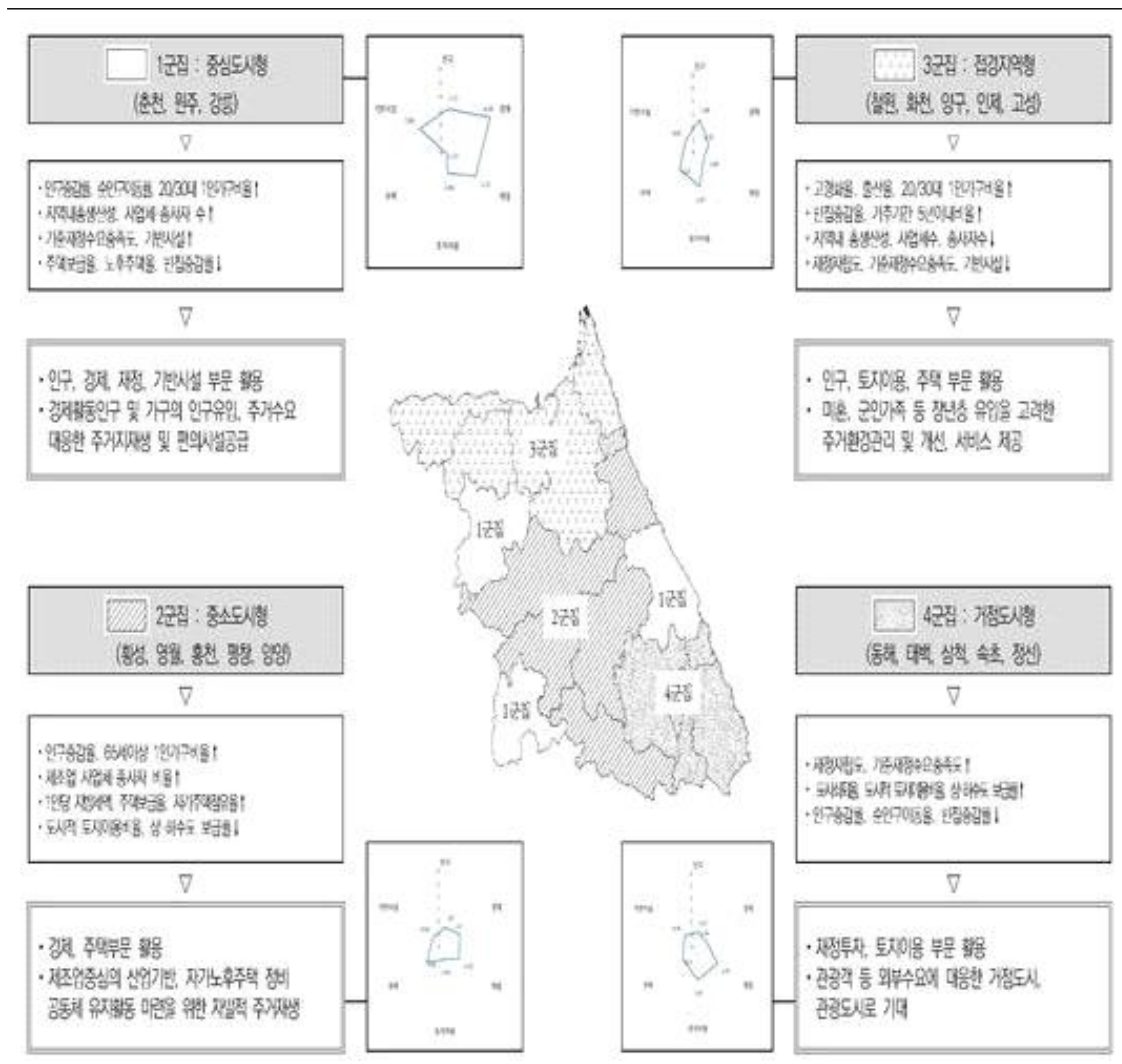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지방 중소도시 노후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4%로, 전국 평균 13.9%를 상회하는 수준임
 - 특히 노후 건축물 중 주거용 비율이 52.3%로 전국 평균 4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도시 규모별로 세분해 살펴보면 인구 5만 이상 15만 미만의 소도시에서 노후 건축물 비중은 18.3%로 가장 높으며 노후 건축물 중 주거용 비율 역시 56.9%로 가장 높음
 - 지방 중소도시는 갈수록 노후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젊은 인력은 계속해서 지방 중소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음(박정은, 2019)

<표 2-2> 도시쇠퇴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2018년 12월 기준)

시도명	기준부합지역	기준미부합지역	총합계	비율
서울특별시	344	80	424	81.1%
부산광역시	175	31	206	85.0%
대구광역시	108	31	139	77.7%
인천광역시	103	48	151	68.2%
광주광역시	66	29	95	69.5%
대전광역시	61	18	79	77.2%
울산광역시	32	24	56	57.1%
세종특별자치시	4	13	17	23.5%
경기도	237	326	563	42.1%
강원도	105	88	193	54.4%
충청북도	103	50	153	67.3%
충청남도	119	88	207	57.5%
전라북도	182	59	241	75.5%
전라남도	252	45	297	84.8%
경상북도	259	73	332	78.0%
경상남도	217	91	308	70.5%
제주특별자치도	22	21	43	51.2%

- 김승희 · 이한나 · 이선향(2020) 등은 강원도 18개 시·군의 도시쇠퇴 군집유형을 5개 군집으로 구분함
 - 1군집(춘천, 원주, 강릉)은 중심도시형으로 주택을 제외한 인구, 경제, 재정, 토지이용, 기반시설 부문에서 양호함
 - 2군집(횡성, 영월, 홍천, 평창, 정선, 양양)은 중소도시형으로 제조업중심의 소규모 지방도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임
 - 3군집(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접경지역형으로 토지이용부문이 높고 경제, 재정, 주택 부문이 취약한 지역임
 - 4군집(동해, 태백, 삼척, 속초, 정선)은 거점도시형으로 지역 내 인구감소, 경제 기반 매우 열악하나, 3차 서비스 산업위주의 경제구조로 관광객의 유입이 많고, 재정부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임

〈그림 2-4〉 강원도 도시쇠퇴 군집 유형(김승희 · 이한나 · 이선향, 2020)



○ 강원도 18개 시군의 쇠퇴 정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단계임. 지역 쇠퇴 순위 상위 4개 지역은 고성군, 태백시, 철원군, 평창군 등임. 지표별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지역쇠퇴 지표가 0.5 이하 지역, 축소도시가 필요한 지역과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지역쇠퇴지표가 0.5 이하인 지역은 속초시, 동해시,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평창군, 강릉시 등임
- 축소도시가 필요한 지역은 정선군, 태백시, 고성군, 영월군, 삼척시, 철원군, 동해시, 평창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홍천군, 인제군 등임
-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은 양양군, 영월군, 횡성군, 고성군, 영월군, 평

창군, 정선군, 홍천군, 태백시, **삼척시**, 철원군, 화천군 등임

- 3대 중심도시와 다른 지역 간의 도시 쇠퇴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전반적으로 쇠퇴도가 높음. 비슷한 지역 여건이라도 정책이나 지역 자원 활용 정도에 따라 쇠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의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 쇠퇴를 가속화 시키고 있음
 - 강원도 지역은 인구 감소와 유출 그리고 노령인구 증가 및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도시 쇠퇴 원인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세분화해 보면 ①일자리 부족 ② 열악한 교육환경 ③의료·복지·주거·문화 등 열악한 생활환경 ④각종 규제(중첩(군사, 상수원, 산림 등) ⑤관광·어업·광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김명선·이제연, 2019)

3 지역소멸의 위기

- 지역 소멸과 마을 소멸의 개념은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1990년대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분석하면서 제기하기 시작함. 최근 한국 지역사회에서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간해 이상호(2018)는 2018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을 89개(39.0%)로 산정했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의 비중이 70.1%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인구부문과 소득·재정부문에 초점을 맞춘 인구규모의 변화, 고령화율, 생산 가능인구 비율, 젊은 여성 비율, 주민세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로 소멸위험도를 측정하였음
 - 이 기준을 적용하여 강원도 18개 시군의 소멸위험도를 검토한 결과 지역소멸 우려지역으로는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태백시, 정선군, 철원군 등 5개 지역으로 나타남
 - 강릉시는 인구감소율 5.44%로 5% 이상이며, 고령화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은 소멸 우려지역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
-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는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 등 5개 지역
 - 삼척시는 인구감소율 -11.4%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으며, 고령화율, 생산 가능인구 비율, 젊은 여성인구 비율, 주민세, 재정자립도 등 도시소멸 위험도의 모든 지표를 충족시키고 있음(정성호, 2019)

제2절 왜 지역학 연구를 해야 하는가?

① 위기를 기회로 : 지역학 연구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강화

- 지역의 위기와 소멸 위험도의 증가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방안을 찾아야 함
 - 과거와 같이 국가 중심의 인위적인 기능 재편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능 쇠퇴, 산업 재구조화 등의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지역의 총체적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
 - 21세기 탈중심의 다극화 시대에는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개체성이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와 주민 그리고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의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찾아야 함
- 지역의 장소 상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장소 창출을 통한 장소성의 복원을 시도할 수 있는 지역학 연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지역학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새로운 지역 문화 자본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문화가 곧 경쟁력인 21세기 사회에서 지역학 연구는 지역의 가치 재발견과 재지역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가. 지역학의 개념

- 지역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융합 학문으로, ‘지역의 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지리·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며, 인간 중심의 가치들을 찾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실천 학문(고석규, 1994)

- 특정 지역의 형성 과정을 시·공간의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그 기반 위에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공유함(김대래, 2001)
- 역사, 지리, 문화, 도시, 건축, 경제, 자연환경, 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서울의 생성, 성장 발달 및 변천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하나의 새로운 독자학문(안두순, 1994)
- 지역에서 이루어진 삶의 총체성이라는 문제를 인식한 지역학은 어느 특정 분야에 속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학문적 관점에서 하나의 대상 지역을 놓고 연구하여 얻은 성과들을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역학은 지역의 뿌리를 찾고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진면목을 살리기 위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함(김석준, 2000)
 - 지역학은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연구하고, 생활문화를 연구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현재의 삶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이상적인 삶의 모습까지도 연구 범위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정정숙, 2014)

나. 지역 이미지 강화와 지역문화다움

- 지역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도시 브랜드는 그 도시가 표방하는 가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핵심적이고 차별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라 할 수 있음. 도시에 대한 인지도와 호의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여 사람과 비즈니스의 유입을 촉발하고 관련 집단과 친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브랜드 요소임
 -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서울의 친근함을 표현한 서울시가 2002년에 발표한 ‘Hi-Seoul’ 이 성공한 이후 크고 작은 도시들이 슬로건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브랜드는 특정 도시의 핵심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몇몇의 사례를 제외하고 각각의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우후죽순으로 내세운 도시 브랜드의 대부분이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음
- 도시 브랜드화의 결과 창출된 지역축제를 예로 들면 전국적으로 한 해 1,000건이 넘는 정도 지역축제가 난립하고 있음. 지역의 고유 자원을 이용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들이 앞 다투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천편일률적인 수준미달의 지역축제는 지자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비슷비슷한 지역축제가 난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에 대한 탐색에는 소홀한 채 특정 집단의 이해에만 편중하기 때문임

○ ‘지역문화다움’ 이라 할 수 있는 지역정체성(local identity)에 대한 연구가 결여된 채 타 지역의 도시전략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반복적으로 도입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화된 전략이 결여되어 실패한 측면이 많음

- 도시 브랜드는 실질적인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징, 자연환경, 지역민의 소통을 반영하는데 실패하였음
- 지역학의 우선적인 관건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에 대한 정교한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우선적인 관건은 필요한 정보(역사, 인물, 문화 등)를 충분히 축적하고 이를 시일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 인문학의 내적 축적이 부족하게 되면 주관적인 해석에 치우쳐 객관화를 상실하게 되거나 지역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됨
- 이러한 객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주관적인 만족을 지속시키는 한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지역문화다움’ 을 창출할 수 있음

<표 2-3> 지역학의 주제별 구성요소

영역	요소
지역문화	주민, 문화, 종교, 공동체, 내부인식
지역역사	역사적 발전, 지역보도
지역사회	경제, 생산, 행정, 정치, 교육
지역공간	지리, 풍경, 자연환경,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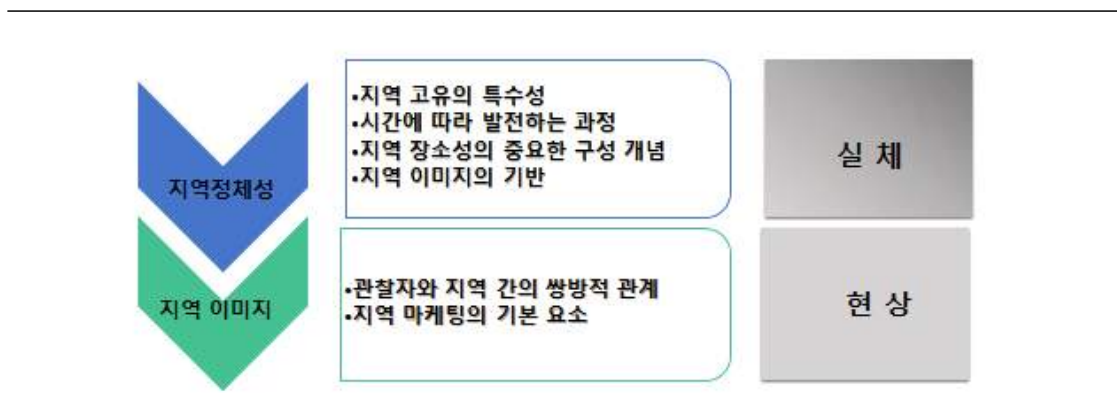
○ ‘지역문화다움’ 이라는 지역정체성 찾기는 지역학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정체성이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특성 즉, 지역 공동체가

공유한 정신문화를 형상화한 것임

- 형상화 과정에는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됨. 유형적 요소는 역사적 장소, 자연환경 및 경관, 특수한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고, 무형적 요소는 역사, 지역주민의 특성 등을 반영함
 - 유무형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문화, 지리 공간 등도 상호작용을 하는데, 특히 역사 문화는 현재의 위상을 알려주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이 됨. 넓은 의미에서 지역정체성은 역사적인 사건의 결과이며 지역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음
- 정체성 담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정체성은 일정 공간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한 문화적 행위와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해당 지역의 정신문화적 근원인 문화예술, 사상과 윤리, 학술과 학문, 인물과 사건, 유적 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모색되기도 함
- 지역정체성을 정립하는 작업은 지역 주민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떠한 정신을 공유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다르며 향후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줌
 - 이러한 정체성 정립은 지역의 정신 문화사를 되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정신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고 브랜드 강화를 통해 공동체의 신뢰 형성, 개인의 자존감과 지역 자긍심 제고, 매력 창조에 근원이 될 수 있음(이재필, 2016)

<그림 2-5> 지역정체성과 지역이미지의 상관관계



- 지역 경쟁력이란 포괄적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총체적 역량으로, 다른 지역에서 따라할 수 없

는 그 지역만이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의미함

- 이전처럼 개발중심의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춰 기능적인 공간을 지향하는 하드 파워적인 지역개발은 더 이상 지역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도래하였음
- 21세기는 문화를 코드로 공간발전을 모색하는 소프트파워 관점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 소프트파워는 제반가치나 문화, 정책, 제도 등 간접적이지만 광범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임. 소프트파워는 물질, 행동, 정신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문화적 파워로서의 소프트파워는 이들 영역에 따라 발현됨
- 소프트파워의 본질인 문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임. 지역 브랜드란 내부의 콘텐츠가 기호화된 상태를 말하는데, 삼척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음
-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계획자 역할을 했다면, 21세기는 지역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하는 사명이 지방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2-4> 지역개발의 변천과정(라도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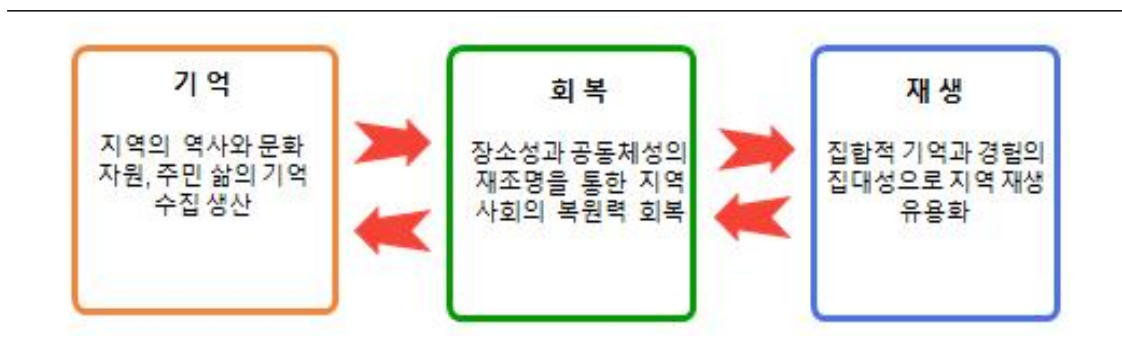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핵심전략	공장의 활성화	지역의 활력창출	지역 재생
핵심사업	국가주도의 문화산업단지	유흥시설 리모델링	지역의 재발견과 가치부여
	도시외곽:공단	도시내부	도심지

다. 지역학 연구의 의미

- 지역학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①기억 ②회복 ③재생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기억은 지역쇠퇴 혹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역사, 사람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발굴·계승하고 미래로 전승함을 의미함. 삶의 방식과 문화는 사람의 기억과 체화된 행동에서 전승되므로 사망과 이주에 의해 사람이 지역 현장에서 사라질 경우 복원하기 어려움
 - 지역학은 ‘지역을 토대로 둔 행위주체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과 장소의 변화,

- 행위주체들의 장소경험, 이를 둘러싼 맥락에 관한 기록을 수집·생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에 능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음
- 회복은 ‘개인과 공동체 혹은 그들을 둘러싼 장소의 소실과 결핍, 표준화(획일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조건으로 회복’ 됨을 의미함. 지역학은 지역의 장소성과 공동체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축소되고 교란된 지역사회의 ‘복원력’ 을 되찾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지역재생’ 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인 행위를 함께 실행하는 과정이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조건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과정” 이라 할 수 있음(장원봉, 2015)
 - 지역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 기억과 경험을 집대성함으로써 지역재생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노영순·이상열, 2018)

[그림 2-6] 지역학 연구의 의미성



2 지역학으로서 삼척학의 연구방향

- 삼척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9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문적 접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삼척지역에 대한 연구와 자료의 축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연구자의 기호와 관심에 따라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강함
 - 이 때문에 축적된 연구 성과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거나 분야별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있음(윤은숙, 2019)

- 삼척 지역학 연구의 분야별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학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지역학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역학의 속성은 ①장소성 ②특수성 ③관계성 ④정체성 ⑤다양성 등으로, 이러한 속성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학이 발달하게 됨(정정숙, 2014)

<표 2-5> 지역학을 구성하는 학문적 속성

속성	내용
장소성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함
특수성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 일상적 삶의 과거 현재적 의미를 해석하고 미래의 방향 도출
관계성	특성에 근간하여 지역 주민 간 혹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
정체성	지역 주민이 연구 결과를 고유한 지역정체성으로 인식, 강화함
다양성	지역과 국가·지구촌의 문화 다양성을 함유



- 삼척학 연구의 방향은 크게 가)미래지향적 지역학 나)참여형 지역학 다)실천적 지역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가. 미래지향적 지역학

- 도시 재개발, 도시쇠퇴와 축소로 파괴되고 소실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을 재조명하고 미래자산으로 개발해야 함
 - 장소 기억에 내재된 자생적 콘텐츠를 장소적 경험으로 연결하여 공동체성 및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해야 함. 지역학은 매력적인 장소와 스토리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재

창조함으로써 관광 명소화시켜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지역학 연구를 통해 발굴된 일상생활의 경험과 기억, 지역의 설화 등은 지역의 문화자산이자 수요자와 밀착된 특성으로 인해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소재가 될 수 있음(이상열·노영순, 2017)

나. 참여형 지역학

- 지역학은 시간을 거슬러 축적된 공동체의 기억, 의식 그리고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존의 지역학은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접근으로 대중 친화적이 않고 지역현안 대응에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음
 - 주민들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의 색깔을 드러내어 지역정체성을 구체화하는 지역의 ‘표상화’로 작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카이브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 실천적 지역학

- 지역학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창조적 지역 만들기’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지역들이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에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유사한 지역재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소 본연의 정체성을 왜곡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실천적 지역학을 위해서는 지역 전략산업과 문화를 결합·발전시켜 이를 ‘문화 브랜딩화’ 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 구축으로 기반화하고, 다양한 지역콘텐츠 발굴의 소재 원천으로 여타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지역학의 연구결과물이 다양한 자료나 콘텐츠로 제공됨으로써 지역민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학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지역학 연구 결과물을 지역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

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은 학문적 영역에서 대중적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교육자료 개발과 시민교육을 진행해야 함(유영심, 2016)

[그림 2-7] 삼척 지역학의 방향



제3장

지역학 연구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제1절 지역학 연구 관련 정책 동향

제2절 지역학 연구 관련 법제 동향 - 법률

제3절 지역학 연구 관련 법제 동향

- 지방자치 관련 법률 및 조례

제1절 지역학 연구 관련 정책 동향

① 문화 관련 정책 및 계획

가. 우리나라의 역대 문화정책

- 우리나라의 역대 문화 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 흐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광복 이후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광복 ~ 정부수립 이전
 - 1945년 광복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까지는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정책 등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미군정 학무국 문화과에서 ‘예술 및 종교’를 담당하며, 각 시도별 학무국 사회교육과 문화재보담당은 배정되어 있었음
 - 문화 관련 법령으로는 ‘출판등록제’ (1945)와 ‘영화 검열’ (미군정청법령)이 실시됨
- 정부수립 이후 ~ 1950년대 : 문화 행정의 일원화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는 문교부(文敎部)와 영화 검열 및 단행본 출간을 담당하는 공보처로 분담되어 문화 정책이 수립되었음
 - 1955년에는 문화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보실에서는 선전 영화만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문화 정책은 1950년 한국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반공 의식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
 - 이 시기에 「문화보호법」(1952)과 「저작권법」(1957)이 제정되었으며, 정전 이후에 영화 면세 조치와 「영화입장세법」을 개정함
- 제3공화국 : 문화 정책의 기본적인 법체계를 확립
 -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출범하게 된 제3공화국에서는 다시 ‘공보부’를 발족하여 영화, 연극, 무용, 음악, 연예, 정기간행물,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영화제작소 등 동적 예술을 담당하게 하고, ‘문교부’는 문학, 미술, 문화재, 단행본, 박물관, 종교를 담당하는 이원화로 복귀시킴

- 제3공화국의 문화 정책은, 공보 중심의 문화 정책으로 문화 예산에서 공보 예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문화예술의 규제와 통제에 치중하여 음반, 영화 등의 사전 검열이 시작되었음
 - 입법을 통한 문화 행정으로 문화 정책의 기본적인 법체계를 확립한 시기로, 「공연법」, 「문화재 보호법」, 「영화법」, 「지방 문화사업 조성법」, 「음반에 관한 법률」, 「영화법」(1963년 수입쿼터제와 1966년 스크린쿼터제) 등 문화 관련 법률이 대거 제정되었음
- 제4공화국 : 전통문화의 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
- 유신헌법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제4공화국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를 기치로 올바른 민족사관의 정립, 새로운 민족예술의 창조,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 문화 한국의 국위 선양을 정책 목표로 수립하고 자주적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유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 시기에는 방송 금지곡과 건전가요, 사전심의회와 검열, 그리고 선별적 지원이라는 문화예술 활동의 철저한 국가 통제가 이루어졌음. 민족사관 정립에 문화 예산의 상당한 비중이 집중되면서 전체 예산 중 문화 예산 비중이 증가한 시기이기도 함
 - 1972년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진흥법」이 제정되었음
- 제5공화국 : 문화민주주의
- 10·26사태와 12·12군사쿠데타를 거쳐 탄생한 제5공화국은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민주주의의 구현, 문화 창조 능력의 활성화, 문화의 국제화, 문화의 국가 발전 동력화 등을 내세웠음
 - 문화의 법적 지위 향상 및 문화적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조하며, 헌법을 통해 문화향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였음
 - 관련 법률과 제도로서는 규제를 완화한 「공연법」 개정(1982), 등록제도 완화와 사전심의회제를 도입한 「영화법」 개정(1984), 「박물관법」 제정(1985), 외화수입쿼터제 폐지와 외국 영화 직배 허용(1986), 사전심의회제 폐지(1986) 등을 들 수 있음
- 제6공화국 : 문화 복지국가 구현
- 6·10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으로 시작된 제6공화국은 ‘모든 국민에게 문

화를’ 을 기치로 복지문화, 화합문화, 민족문화, 개방문화, 통일문화의 문화 복지국가 구현의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고, 핵심 정책 과제로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 문화 매개 기능의 확충, 창조력의 제고, 국제 문화 교류의 증진을 내세웠으며 문화발전10개년계획(1990~1999)을 발표(1990)하였음

- 이 시기에는 ‘문화 복지국가’ 를 지향하면서 문화의 생활화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화 전략으로 ‘문화주의’ 를 채택함
- 과거 관리, 통제, 규제 중심의 문화 정책에서 벗어나 참여, 진흥, 조장에 문화 정책의 방향이 변경됨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도서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정(1991)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1994) 등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음

나.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며, ‘사람이 있는 문화’ 를 비전으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을 기반으로 ①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②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③ 사회의 창의성 확산 이라는 3대 방향과 9대 의제를 제시함

〈표 3-1〉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의제

3대 방향	9대 의제
개인의 자율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 성평등 문화실현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지역문화분권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② 교육 관련 정책 및 계획

- 지역학은 평생학습과 연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 단위에서 인문학 관련 평생학습이 강조된 것과 관련됨
- 이러한 경향은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2)의 계획기간(2002~2006) 종료 및 「평생교육법」 개정(2008.2.15.)으로 인해, 2008년 수립된 제2차 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후 증가하고 있음
- 나아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3~2017)」(교육부, 2013)에서는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의 하위 과제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 강화” 및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을 설정함. 이런 과제가 지역 단위에서 실시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지역학에 관심이 모아진 것으로 추측됨
- 이런 분위기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8~2022)」(교육부, 2018)에서도 계속되어짐.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의 하위 과제로서, “지역 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인문학 기반의 평생학습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인문강좌 운영, 한국학 대중화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지원과 같은 세부 계획을 담고 있음

제2절 지역학 연구 관련 법제 동향 - 법률

- 지역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이 포함된 법률로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평생교육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들 조문에 규정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地域史) 및 지역문화와 관련된 기초문헌 또는 자원조사,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보화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종합학문으로서의 지역학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평생교육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문화, 교육, 지방자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표 3-2> 지역학 연구 관련 법률 현황

구분	법률명
문화 관련 법률	① 문화예술진흥법 ② 지역문화진흥법 ③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④ 지방문화원진흥법 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 관련 법률	① 평생교육법 ②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한국사보급법)
지방자치 관련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출자출연법) ② 지방재정법 ③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 문화 관련 법률

가.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 법에서는 지역학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및 이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힘써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나아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가 가능함

구분	조항	내용
목적	제1조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책과 권장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설치 등	제16조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의 조성	제17조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이 법에서는,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함(제2조)
- 그리고, 지역문화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추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제3조)

- | |
|--|
|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 더불어,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의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측면에서 지역학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문화 진흥에서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또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대한 조문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구분	조항	내용
목적	제1조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지역문화 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지역문화 진흥기본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계 획 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	제1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1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제20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2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	시행령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제21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제1조)
- 이 법에서 정의하는 인문학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로서, 폭넓게 수용하고 있으며, 인문정신문화는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됨(제3조)
- 그러나 이 법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역학을 언급한 조문은 발견할 수 없음. 연구 또는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는 조문 역시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격의 인문학 또는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임(제12조)
- 다만, 제1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근거로 지역학 활동과 관련한 정책의 추진과 지원이 가능할 것임

구분	조항	내용
목적	제1조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 등	제12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제1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 지방문화원진흥법

-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제2조)
- 이런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는 8가지 지역문화 사업 가운데,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과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의 경우 지역학에서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임(제8조)

-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 역시 지역문화라는 특정 영역으로 제한되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함

구분	조항	내용
목적	제1조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조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지방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제8조의2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허가의 신청 및 설립허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음

구분	조항	내용
----	----	----

목적	제1조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	<p>「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설립허가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법률

가.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역학과 관련되는 교육 관계 법률로 대표적인 것임
- 이 법은 제29조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문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물론 이 법 역시 지역학과 관련된 직접적 규정을 찾을 수는 없음

구분	조항	내용
목적	제1조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학교의	제29조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

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약칭: 한국사보급법)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 법 역시 명시적으로 지역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없음
- 다만,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을 위한 장기 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과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부터 지역학과 연관지을 수 있음

구분	조항	내용
목적	제1조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대여, 복제, 구매, 수증(受贈), 수탁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한국사 연수"란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교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6. "한국사정보화"란 사료와 한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가공·제작·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	제5조	<p>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2.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3.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4.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5.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6. 국가 중요 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관리·편찬 등 7. 그 밖의 사료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 등
사료의 조사	제1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지역학 연구 관련 법제 동향 - 지방자치 관련 법률 및 조례

1 지방자치 관련 법률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제1조)
-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구분	조항	내용
목적	제1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등	제2조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제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제6조	<p>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p>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제7조	<p>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p> <p>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p> <p>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p> <p>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시행령 제7조	<p>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p> <p>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p> <p>3.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p> <p>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이하 "타당성 검토"라 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시행령 제8조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출연 기관</p>

시의 협약 등	<p>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현황 7.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 <p>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출자금: 3억원 나. 출연금: 1억원
------------	---

나.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 가능함

구분	조항	내용
목적	제1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제3조). 즉,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공개 모집할 수 있음

구분	조항	내용
목적	제1조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

- 중앙정부의 법률에서 찾기 어려웠던 지역학 관련 내용을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명시적 규정을 찾을 수 있음
- 이러한 조례는 ① 지역학의 진흥을 규정한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역학 연구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것,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3〉 지역학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년도
지역학 진흥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 조례	2012 제정 (2017 폐지)
	경기도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나주시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기관·조직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3
	강원도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7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2017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1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제4장

지역학 연구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해외 사례

제2절 국내 사례

제3절 시사점

제1절 해외 사례

1 개요

- 유럽에서의 지역연구는 르네상스와 신대륙 발견이라는 시대적 사건과 그 시작을 같이함
- 이러한 현상은 시대가 지나면서 산업혁명과 상업주의의 팽배가 식민시장 쟁탈이라는 돌파구로서 해소하려는 흐름과 같이하며, 19세기에 이르면 제국주의와 함께 식민지 정책의 직접 통치 수단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게 됨
- 영국의 경우 ‘동방 및 아프리카 연구학교’ (SOAS: The School for Oriental and African Studies)가 대표적 지역연구 관련 기관인데, 1916년 설립 당시에는 주로 식민지 통치를 위한 언어교육에 목적을 두었는데, 1945년 이후 문화 및 사회과학 분야 연구로 확대됨
- 미국에서는 정치적 문제로부터 지역연구의 발전이 시작되었음.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각계인사를 비롯하여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자국 내에 세계 각 지역의 언어와 문화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20세기 냉정시대를 구축해 가는 동시에 탈냉전의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연구가 발전되어 옴
- 일본의 경우에도 20세기 초 군국주의가 팽배해짐으로써, 점령지에 대한 통치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 학제적 연구를 시작함. 그러나 1960년 전후 농촌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학술연구의 틀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 및 자원 활용의 관점으로 변화됨
-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세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지역학은 과거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연구하려는 목적과는 달리 생존의 전략구축 관점에서 연구됨

2 서구국가

가. 미국

(1) 미국의 지역학의 특징

- 미국의 지역학의 일종인 ‘도시학’은 20세기 초반 대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인구밀집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음
 - 대표적으로, ‘도시사학회(Urban History Association)’와 ‘도시 및 지역계획사학회(Society for American City and Regional Planning History)’를 중심으로 역사·정치·지리·사회·문화·건축 등을 전공으로 하는 도시사 연구자들이 활발히 교류하며 연구를 수행함
 - ‘도시사학회’는 1974년부터 계간 기관지인 「도시사 연구(Journal of Urban History)」의 발행을 시작했고, 2년에 한 번꼴로 ‘도시사학회’를 개최하고 있음
 - 1986년에 출범한 ‘도시 및 지역계획사학회’는 계간지인 「(도시)계획사 연구(Journal of Planning History)」를 발행하고 있으며, 역시 2년에 한 번 꼴로 학회를 개최하는데, ‘도시사학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있음
 - 지역 역사 연구 및 현장 학습의 병행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지역학
- 필라델피아학
 -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도시학연구소는 미국 내 도시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평가됨
 - 펜실베이니아대학 도시학연구소 산하의 1992년 설립된 ‘바바라·에드워드 네테 공동체 협동센터(The Barbara and Edward Netter Center for Community Partnership)’는 필라델피아 도시 발전 및 도시민의 생활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촉진하며, 무엇보다도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서필라델피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주도하고 있음
- 하와이학
 - 하와이학은 미국 내 지역학 가운데 가장 분명한 정체성을 지님
 - 하와이 소재 대학들은 하와이학과(하와이연구과)를 설치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건국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 또는 지역의 정체성을 역사에서 찾기 보다는 문화적 요인에서 규정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하와이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하와이학은 1960~70년대 민권운동 및 인디언의 미국 식민지 투쟁성을 바탕으로 성립됨
- 초기 하와이학 연구는 미국에 편입되기 이전의 역사 및 하와의 그룹의 정체성을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나, 점차 인식론적 철학, 국가 내 민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2) 대표사례 : 뉴올리언즈 지역학¹⁾

○ 뉴올리언즈 지역의 이미지와 역사적 특징

- 뉴올리언즈는 일반적으로 지역 발전의 방향 설정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산업발달 등을 기반으로 추진해 온 것과 달리, 뉴올리언즈의 역사적 맥락 및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점에서 고유한 특성을 지님
- 뉴올리언즈 지역은 1980년대 이후 관광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재즈 음악의 본 고장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대중적 이미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
- 뉴올리언즈는 미국 내 가장 ‘아프리카’ 적 도시로 손꼽히는 지역으로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 유산과 카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독특한 문화권역을 형성하고 있음

○ 뉴올리언즈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 “뉴올리언즈 재즈 유산 축제(New Orleans Jazz Heritage Festival)” 등을 통하여 지역 정체성 강화 및 관광객 유치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함
- 쇼핑센터의 배경 음악 또는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도 뉴올리언즈 스타일인 재즈로 구성함에 따라 방문객으로 하여금 지역적 특색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

○ 뉴올리언즈 지역의 음악적 정체성 및 국제교류의 연계

- 1980년대 말, 뉴올리언즈는 영국의 리버풀과 도시간 협약서나 행정인사의 방문 없이, 양측 의회에서 우호도시로 승인하는 교류 방식을 시도함
- 양측 도시의 상호 교류 역사, 인구 규모, 높은 실업률 등의 유사성 이외에도

1) Atkinson, Connie Zeanah(1997), Whose New Orleans? Music's Place in the Packaging of New Orleans for Tourism, In *Tourists and Tourism: Identifying with People and Places*, eds, Simone Abram, Jacqueline Waldren, and Donald V. L. Macleod. pp.91-106. Oxford: Berg.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범죄와 폭력적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두 도시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음악적 전통 및 명성을 바탕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

- 상호 간 지역적 특색을 가진 음악적 아이디어 및 사업들을 교류하면서 음악 산업의 동반성장을 꾀함

나. 유럽

(1) 영국의 지역학

- 1960년대 도시 쇠퇴 현상이 발생하면서 쇠락해가는 산업도시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도시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영국에서의 지역학 연구의 시초라 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1966년 레스터 대학의 디오스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도시사를 경제사의 한 분야가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의 인문학으로 구상하려는 시도를 발표하면서, 단일한 분과학문이 아닌 여러 학문들이 서로 통합하여 연구하는 지식의 장으로 파악되기 시작함
- 1990년 이후 도시사 연구는 지리학, 건축학 등 인접한 학문과의 학제 간 연구, 비교 도시사 분석, 국제적 협력 연구로 발전하게 됨

(2) 프랑스의 지역학

- 프랑스에서 향토 또는 지방 연구를 뛰어넘어 도시학(지역학) 관련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소로는, 1916년 파리에 문을 연 ‘파리 도시의 역사·지리·경제 연구소(Institut d'Histoire, de Geographie, et d'Economie urbaines de la Ville de Paris)’ 임
- 파리 도시의 역사·지리·경제 연구소는 도시 공간의 연구를 위하여 인문학전 전통과 사회과학의 결합을 강조함

③ 아시아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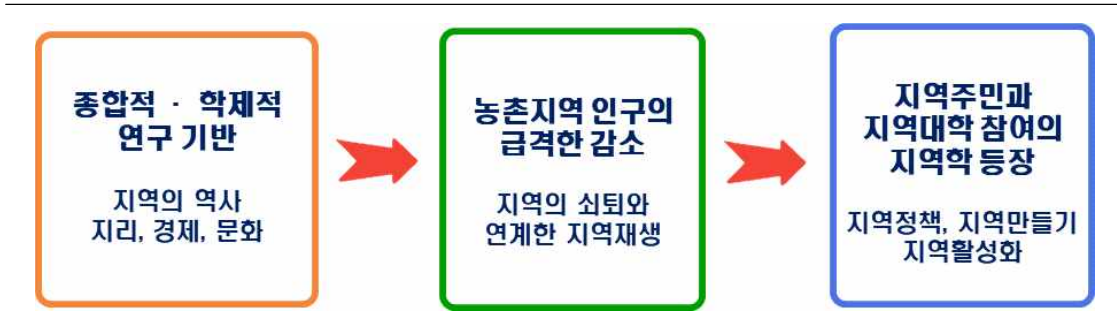
가. 일본

(1) 일본의 지역학의 특징

- 일본의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역사, 지리,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학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함
- 특히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기록보존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학 진흥을 토대를 마련한 것과는 관련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인구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1960년 전후로 농촌 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시작되며,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됨(總務省 過疎対策室, 2018)
- 일본에서의 초기 지역학은 지역연구라는 학술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점차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자원의 활용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면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하는 지역학이 등장하게 됨. (행정주도형 지역학, 대학주도형 지역학, 민간주도형 지역학)
- 일본에서 지역학은 지방 또는 지역이 보유하는 자원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발굴하여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 등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의 지역학은 지역 생활 및 지역 생활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원(지역의 전통과 특성 등)을 포함하고, 주민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역정책, 지역만들기, 지역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발전해 옴
- 따라서, 학술 연구라고 하는 틀을 넘어서 지역의 구성원(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실용적 정책 핵심을 두고 진행됨
- 이에, 일본 지역학의 특징을 정리하면, ㉠ 지역의 쇠퇴와 연계한 재생(마을 만들기)과 밀접하게 관련됨, ㉡ 평생학습(생애학습)의 관점에서 인재양성과 연계됨,

- 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정체성 및 자원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실시함

[그림 4-1] 일본 지역학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



(2) 대표 사례

① 중앙정부 추진 사례

-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학문적 지원이나 지역 재생과 관련된 연관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되는 경향이 강함
- 대표적 정책사업으로는 2013년부터 2014년에 시행되었던 ‘지역학 연계지역 활력창출모델실증사업’ (「域学連携」地域活力創出モデル実証事業)(総務省, 2014)²⁾을 들 수 있음
 - 이 사업은 지역재생을 위하여 지역학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력 창조인재 육성 및 자립적인 지역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진됨
 - 세부적으로는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과 지역 자원의 발굴 및 지역 산업 창출, 그리고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를 이루고자 함

② 광역자치단체 추진 사례 : 교토부(京都府)

- 교토부에서는 2016년 7월에 「교토부립지역학·역채관조례(京都府立京都学·歴史館条例)」를 제정하면서, 교토학의 성과를 국내외에 알리며 교토지역에 대한 관

2)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ikigakurenkei.html

심과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흥미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을 꾀함

- 조례에서는 교토부립교토학·역채관에서 국제교토학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세계와 연계한 교토학 연구·교류 거점’,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류·발신 거점’, ‘교토 관계 자료의 수집·보존·공개거점’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세계와 연계한 교토학 연구·교류 거점’ 사업 : 전 세계의 일본문화 연구기관 및 절음 연구자를 초빙하는 등의 연구 교류 및 교토부내 주요대학과의 공동연구위원회 설치, 교토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류·발신 거점’ 사업 : 일류 연구자 및 문화인에 의한 교토학 강좌와 해외 연구자와 함께 하는 국제심포지엄, 교토의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 및 연구회 개최, 지역 창생 프로그램 진행 등을 내용으로 함
 - ‘교토 관계 자료의 수집·보존·공개거점’ 사업 : 기존 부립 종합자료관과 교토부립대학 등이 수집·소장하고 있는 교토 관련 도서 자료, 고문서, 행정문서, 사진 자료 등을 디지털화 함

③ 기초자치단체 추진 사례

○ 야마구치 하기시(萩市) : 하기학(萩学)

■ 개관

- 일본 야마구치현 북부에 위치한 698.9km² 면적의 인구 약 5만 명의 소도시
- 에도시대에 축성된 성읍도시로서, 2015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메이지시대(1868~1912) 일본 산업혁명유산들이 있는 도시
- 산업혁명유산으로는 하기 반사로(萩反射爐), 에스비가하나 조선소 유적(恵美須ヶ鼻造船所85跡), 오이타야마 타타라 제철 유적(大板山たたら製鐵遺跡)이 포함

■ ‘동네박물관’ 조성³⁾

- 하기시는 지역쇠퇴에 대응하여 1998년에 문화자원 전수조사를 통해 동네박물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 한편, 도시 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드는 ‘동네박물관’ 프로젝트(萩市, 2003)를 추진함

3) 萩まちじゅう博物館(<https://www.city.hagi.lg.jp/site/machihaku/>).

- 2004년 동네박물관 조성을 위한 조례(「萩まちじゅう博物館条例」)를 제정⁴⁾

<표 4-1> 일본 하기시의 동네박물관 조성 및 운영 과정

시기	주요내용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원 전수조사와 함께 관광자원 발굴, 문화자원 및 마을박물관에 대한 인식 공유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상 성격의 「하기시 동네박물관 구상」(2003)을 수립하여 방향성 설정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시 동네박물관 기본계획·행동계획 책정(2005) ■ 제도적 기반으로 「하기시 동네박물관 조례」 제정(2004) ■ 조직적 기반으로 NPO법인 하기시동네박물관 설립 ■ 하기시 동네박물관을 공식 개관 ■ 지역 매력 발신 및 문화자원 발신 등 공식 HP 작성 ■ 워크숍을 통한 유산 발굴 및 관내에 19개 트레일 구축 추진 ■ 마을해설가인 시민인터프리터(823명)를 양성하여 마을 조사 연구 추진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마사키(浜崎)지구를 위성박물관화하고 타지구로 전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 조사, 수집된 문화자원 DB화 ■ 이야기꾼으로서 시민인터프리터 육성 및 문화자원 기록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박물관과 핵심 박물관의 네트워크 구축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시 동네박물관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행위원회 설치 ■ 문화청 지원으로 하기시 동네박물관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 개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꾼 역사강좌 개설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지시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 동네박물관에 의한 마을만들기로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리우치·히야고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堀内・平安古伝健地区) 선정 40주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시 명륜학사(明倫学舎) 개관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 메시지유신 150년 기념식

■ ‘동네박물관’의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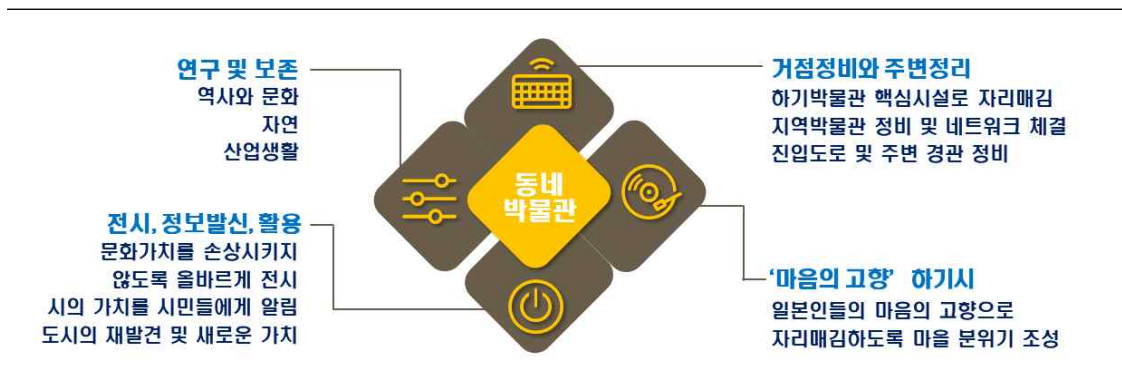
- 연구·보존 : 하기시의 자원이며 매력적인 역사와 문화는 물론, 자연, 산업 생활을 연구하고, 역사적 환경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애착을 가지고 보존운동을 꾀함
- 전시·정보발신·활용 : 보존·보존된 역사적 환경 및 자연환경을 현지에서

4) <https://www.city.hagi.lg.jp/site/machihaku/h32728.html>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올바르게 전시함.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시민들이 하기시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듦

- 거점정비와 주변정비 : 하기박물관을 동네 박물관의 핵심시설로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원을 지역박물관으로 정비하고 네트워크를 체결함. 또한 하기시 및 하기박물관까지의 진입도로와 주변 역사·문화·자연 경관을 정비함
- 「마음의 고향·하기」의 환대 : 하기는 일본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마을 분위기를 조성함

(그림 4-2) 일본 하기시 ‘동네 박물관’의 주요 사업>



○ 나가사키현 쓰시마시(対馬市) : 쓰시마지역학(對馬市域學)

■ 개관

- 쓰시마시는 “학문의 힘을 지역에, 지역의 힘을 학문에” 라는 구호 아래 지역만들이와 연계한 지역학으로서 쓰시마지역학(對馬市域學) 육성에 힘쓰고 있음
- 2013년 총무성의 「지역학 연계 지역활력창출모델실증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시마지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계획(對馬市域学連携地域づくり推進計画)」(2014), 「제2차 쓰시마종합계획(第2次對馬市總合計畫)」(2016) 및 「쓰시마시 마을·사람·직업창생종합전략(對馬市まち·ひと·しごと倉生總合計畫)」(2016)에서 제시된 과제에 기반하여 추진함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기반조성기·발전기·자립적 전개기의 3단계로 나누어 쓰시마시 지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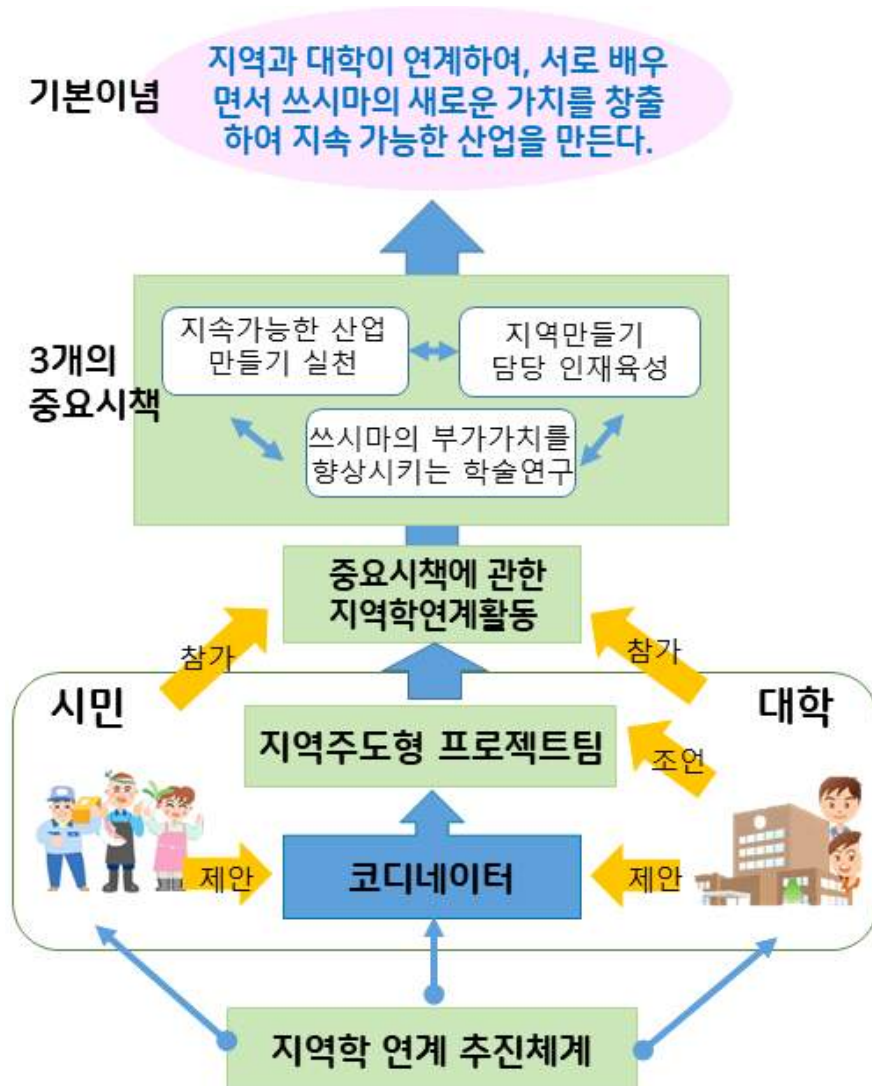
[그림 4-3] 일본 쓰시마시 지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사업 3단계



출처 : 対馬市, 対馬市域学連携地域づくり推進計画, 2014, p.8~9

- 추진계획에서는, ‘학’의 범위를 대마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대학·대학원, 전문대학, 전수학교와 각 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학생을 포함하며, 전문 분야를 특정하고 않은 채 다양한 학문 분야 및 학제적 영역의 학문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기본이념으로서,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여 서로 배우면서 쓰시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설정함
- 기본목표로서, 1) 쓰시마 전체를 여러 대학의 위성 캠퍼스로 보고, 「필드 캠퍼스 “쓰시마 학사”」로서 지역학(역학) 연계를 섬 전체로 확장하여, 대학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환경 만들기, 2) 아름다운 모리사토우미(森里海)가 잘 어울려진 섬의 생태계를 가진 쓰시마의 특색, 전통적 지혜와 기술을 차세대에 계승하면서, 일자리 창출, 3) 세계 최초 역학연계와 ESD(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 및 배움을 추진하여, 글로벌의 비전과 행동력을 지닌 인재 육성, 4) 지역학 연계의 성과를 쓰시마시의 제반 정책에 반영을 삼고 있음
- 3대 중요시책으로서는, 1) 지속가능한 산업만들기 실천, 2) 지역만들기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 3) 쓰시마에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학술연구 실행으로 설정하여 관련 세부 과제 추진

[그림 4-4] 일본 쓰시마시 지역학 연계의 전체 사업구상도



출처 : 対馬市, 対馬市域学連携地域づくり推進計画, 2013, p.21

나. 타이완

- 타이완에서는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타이완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지역학’ 열풍이 불기 시작함
- 타이완의 ‘지역학’은 행정구역을 기본 범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 인문,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도모하는 학문 분야로서, 주로 현(縣)과 시(市)를 그 지역 범위로 함. 대표적인 예로 ‘이란학(宜蘭

學)’ 과 ‘핑둥학(屏東學)’ , 타이완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타이완학(臺灣學)’ , 그리고 향(鄉)과 진(鎭) 구역을 위주로 하는 ‘베이투우학(北投學)’ , ‘땀슈에이학(淡水學)’ 등이 있음

<표 4-2> 타이완의 지역학 추진 현황

구분	학술활동 주관 대학 및 기관	핵심기구			
		지방 정부	대학	전문 대학	민간 단체
타이베이시 (臺北市)	베이투우지역전문대 주관 타이베이시 문헌위원회 주관	○		○	
까오슝시 (高雄市)	까오슝시 방송통신대학과 까오슝문화연구회 주관		○		○
지룽시 (基隆市)	지룽지방전문대학에서 추진			○	
이란현 (宜蘭縣)	이란현역사관과 이란지방전문대학 주관	○		○	
타이베이현 (臺北縣)	땀장대학에서 ‘땀슈에이학’ 확산 작업 진행		○		
타오위엔현 (桃園縣)	타오위엔현정부와 중화민국지역사회운영조합회 ‘타오위엔학 정립’ 협력 연구	○		○	
먀오리현 (苗栗縣)	리엔허대학(聯合大學) 주관	○	○		
타이쑹시 (臺中市)	타이쑹시 정부가 학술세미나 방식으로 주관	○			
짱화현 (彰化縣)	짱화사범대학 중심	○	○		
원린현 (雲林縣)	원린학술연구회 주관	○	○		○
자이시 (嘉義市)	자이시와 자이현이 공동으로 자이대학의 ‘자이학’ 을 지원		○		
자이현 (嘉義縣)		○	○		
타이난시 (臺南市)	타이난지역전문대학 중심			○	
타이난현 (臺南縣)	타이난현 현정부가 ‘난닝학’ 추진	○			
핑둥현 (屏東縣)	핑베이지역전문대학 주관			○	
타이동현 (臺東縣)	‘동타이완연구회’ 에서 화리엔과 타이동 두 현의 지역 연구				○

화리엔현 (花蓮縣)		○			○
평후현 (澎湖縣)	평후현 문화국 주관	○			
진먼현 (金門縣)	진먼현 문화국 주관	○			
리엔장현 (連江縣)	리엔장현 현정부 주관	○			

다. 인도네시아 : 발리지역

(1) 발리 지역의 지역학 연구현황

- 발리 지역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대한 지역학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관리기관)이 내부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까닭에, 정확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표적 발리 대학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발리학 연구사 수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뿐임
 - Universitas Udayana (UNUD) : 발리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
 - ISI Denpasar : 예술대학으로 발리 전통 예술 보존, 교육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 Politeknik Negeri Bali : 과학기술(공업), 산업교육 중심
 - Universitas Pendidikan Ganesha (Undiksha) : 두 번째로 큰 종합대학. 사범대학 중심
 - Sekolah Tinggi Pariwisata Nusa Dua Bali : 관광산업 교육 중심
 - Universitas Hindu Indonesia : 힌두교 종교 교육으로 유명

(2) 발리 전통 연구의 범위와 의미

- 힌두교, 관습, 예술적 형태들, 특정 춤의 형태, 악기, 공예 등이 연구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전통의 보존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마을 단위로 청년들에게 전통문화 보존을 권장하면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3) 대표적 연구사례

○ 다르마 푸트라(Darma Putra)에 의한 연구

- 1920년대부터 이른바 ‘신문 문학(sastra Koran)’ 을 통해 문인들에 의해 지역적 관심사가 표현되어 왔음에 주목
- 신문에 지역적 관심을 담은 기사나 논평이 게재되면, 그런 시사적이고 지역적인 주제를 다루는 소설·희곡·시 등이 게재됨에 따라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
- 대표 주제 : 발리의 카스트 제도, 전통과 현대 속에서 여성의 지위, 관광 산업의 발전에 따른 토지 사용 문제 등
- 발리적 정체성과 근대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임

○ 관광산업의 발전에 의해 전통적 가치 또는 지역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전망과 달리, 관광이 오히려 발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화를 성찰하게 되는 기회로 작용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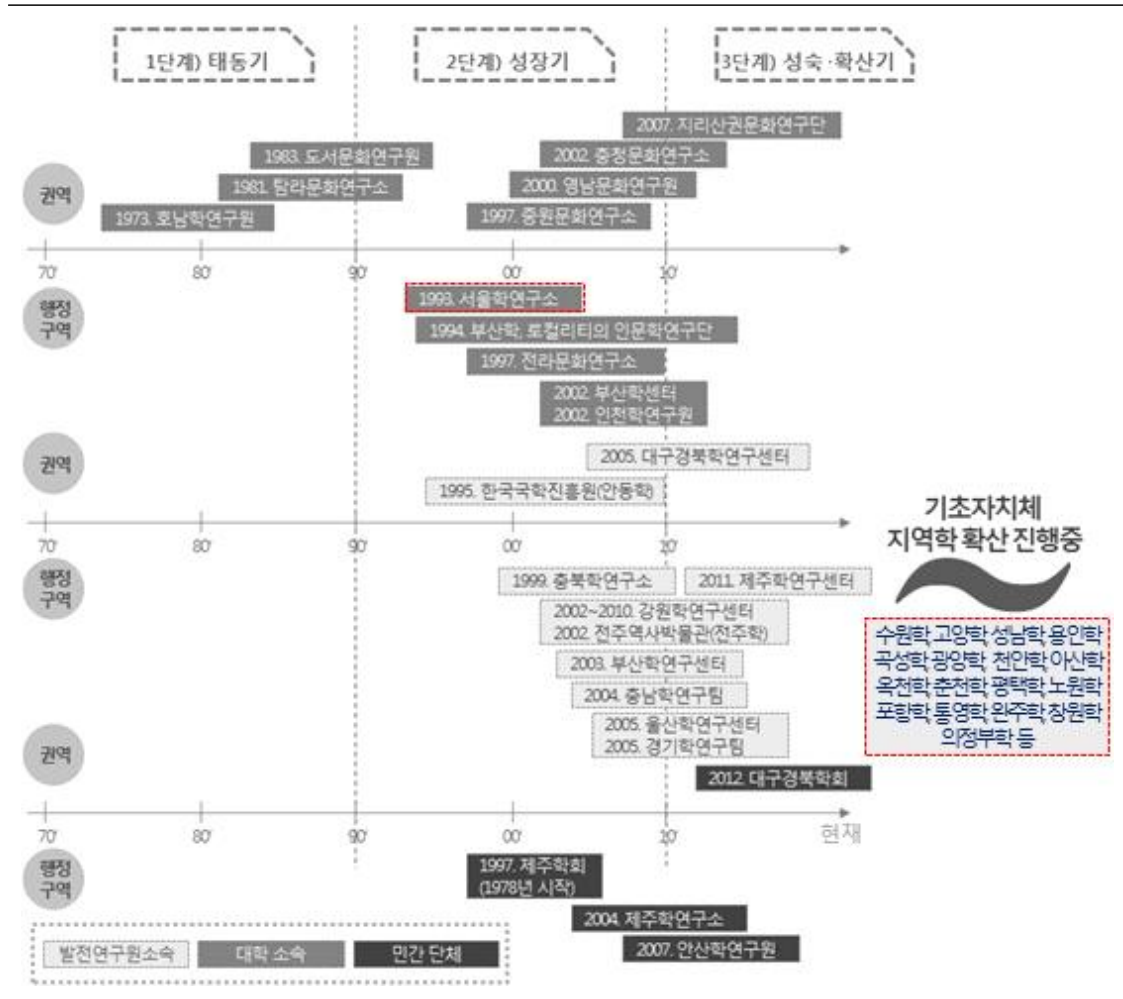
○ 발리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자긍심의 원천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 의해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인식

○ 지역적이며 종족적인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는 근원이 된 것이 종교(agama), 관습(adat), 문화(budaya) 등이며, 이러한 지역정체성과 종족정체성 정립에는 발리 지식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음

제2절 국내 사례

- 현재 직면한 지역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지역의 진단을 토대로 하여 사회·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들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
- 지역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지역문화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하려는 움직임은 1980년 후반부터 보였으나, 하나의 학문적 틀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임
- 1990년대 중후반,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역민의 정체성 및 문화적 특징을 밝혀낼 수 있는 지역학 진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설립이 활발해짐
- 1993년 서울학연구소(서울시립대학교)가 창설된 것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대전, 전북, 경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학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함
 - 시도연구원 부설 연구원(8개)
 - 강원학(강원연구원), 남도학(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학(대구경북발전연구원), 부산학(부산발전연구원), 울산학(울산발전연구원), 제주학(제주발전연구원), 충남학(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북학(충북발전연구원)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문화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학 연구가 실시되고 있거나, ‘민간단체(학회 등)’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그림 4-5] 지역학 연구기관의 설립추이도



출처 : 정정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p.42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함

<표 4-3> 시도별 지역학 연구기관 설치 현황

구분	기관 명칭	설치주체	설립연도
서울특별시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대학	1993
부산광역시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지자체 출연연	2003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	대학	1994
	■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대학	2002
인천광역시	■ 인천시립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대학	2002
	■ 인천학회	학회	2017

광주광역시	■ 광주전남연구원 남도학연구센터	지자체 출연연	2017
대구광역시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지자체 출연연	2005
	■ 대구경북학회	학회	2012
대전광역시	■ 대전학연구회(부설 대전학연구소)	민간단체	2016
울산광역시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지자체 출연연	2005
강원도	■ 강원발전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설치·폐지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재설치	지자체 출연연	2002 2010 2018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지역문화재단	2005
	■ 경기학회	학회	2015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지자체 출연연	2014
	■ 고양문화원 고양학연구소	지방문화원	2017
	■ 성남문화원 성남학연구소	지방문화원	2014
	■ 수원문화원 수원학연구소	지방문화원	2005
	■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지방문화원	2010
	■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대학	2000
	■ 평택대학교 평택학연구소	대학	2014
	■ 안산학연구원	민간단체	2007
충청북도	■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	지자체 출연연	1999
	■ 청양대학 충청학연구소	대학	2000
	■ 한남대학교 충청학연구소	대학	2001
	■ 청주대학교 청주학연구원	대학	2016
충청남도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학연구부	지자체 출연연	2001
	■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대학	2014
	■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	대학	2010
	■ 청운대학교 흥성학사업연구단	대학	2012
	■ 천안발전연구원 천안학연구소	민간단체	2008
전라북도	■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대학	1997
	■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	대학	2017
	■ 21세기 전북학연구회	민간단체	1999
	■ 정읍학연구회	민간단체	2011
전라남도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대학	2005
	■ 곡성문화원 심청·곡성학연구소	지방문화원	

	■ 광양문화원 광양학연구소	지방문화원	2015
경상북도	■ 경일대학교 경산학연구소	대학	2014
	■ 경주대학교 독도·울릉학연구소	대학	2001
	■ 경산학회	학회	2014
	■ 경주학연구원	민간단체	2006
경상남도	■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소	대학	2005
	■ 인산학연구원 함양학연구소	민간단체	2009
제주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소	지자체 출연연	2011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대학	1981
	■ 제주학연구소	민간단체	2004
	■ 제주학회	학회	1978

- 기존에는 학술 연구 중심으로 지역학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아카이빙과 지역학 연구소 발간, 학술행사 개최, 지역학 강좌와 총서발간, 구술사 및 해설사 등 지역학 인력 양성 관련 사업도 진행되는 등 활동 내용이 다양화 되고 있음. 나아가, 지역발전 전략과 결합한 프로젝트도 선보이고 있음
- 이하에서는 국내도시의 대표 사례로서, 1)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아카이빙 및 지역학 인력 양성 관련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제주학연구소’와 2) 지역발전 전략과 결합을 시도한 프로젝트를 선보인 ‘충북학연구소’, 그리고 3)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실천적 활용과 관련한 우수사례로서 ‘전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임

1 제주학연구소

가. 현황

- 1960년대 이후 내·외부적 요인으로 제주학 진흥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 연구소, 학회, 민간연구소 등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제주학은 자연과학 분야까지 확대됨
- 제주학연구소는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공약실천계획(2010.10)에 따

라, 2011년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에 위탁 설치됨

- 이후, 2013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 연구기반이 구축됨

〈표 4-4〉 제주학연구센터의 발전단계

구분	기간	내용
준비기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공약실천계획으로 논의 시작
출범기	2011~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위탁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사업비 및 운영비로 사업 추진 √ 기초 토대 연구, 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 연구인력 확보, 중장기 인력 확충과 편제 계획 수립
발전기	2014~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제주학 연구사업 추진 √ 지역학 연구기관, 세계 섬지역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연구 홍보, 교육 및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 전문연구인력 확충, 분야별 전문가 확보
독립 및 안정기	2017~2020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조성을 통한 독립 연구기관으로 전환 √ 제주학 관련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거점 확립 √ 완성된 조직 및 역할에 따른 고유사업 추진 및 지원 √ 제주학 연구의 정체성 확립

출처 : 제주학연구센터, 제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 계획

나. 주요 기능 및 업무

- 제주학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는, ① 연구 및 연구지원, ② 아카이브, ③ 교육 및 인력양성, ④ 교류 및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 연구사업과 외부기관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종합적인 지역학(제주학)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표 4-5> 제주학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

구 분	내 용
연구 및 연구지원	v 제주 인문·사회·자연과학에 대한 전문적 연구·지원, 협동연구 v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전문연구 수행 v 제주어 보전 정책 및 대중화 관련 연구
아카이브	v 제주학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기초자료, 연구성과, 문화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v 제주학 관련 역사문헌자료, 민속자료, 구술자료, 영상 사진류, 해외자료 등에 대한 총체적인 수집, 정립 작업 수행
교육 및 인력양성	v 제주학 관련 시민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중 교양서적 및 교재 발간 v 역량있는 제주학 관련 전문 연구자 지원, 레지던스 사업 v 제주학 연구 후속세대(신진 연구인력) 지원 양성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v 제주도내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단체 등과 유기적 교류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v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진흥기금 조성 v 해외 지역학 관련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출처 : 제주학연구센터, 제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 계획

- 이와 관련한 운영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 제12조에 따라,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도비로 충당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받고 있음

다. 주요 사업

- ①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 ②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및 정책연구
- ③ 제주학 관련 연구지원 사업(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57건(자체 15건/공모과제 22건)
- ④ 제주학 총서 발간 및 지원사업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37건(자체 15건/지원 22건)
- ⑤ 제주학 총서 번역 출판 지원사업
- ⑥ 제주학대회

- 제1회 (2012.08.31.) : 탐라, 제주학 지구 환경학을 지향한다
 - 제2회 (2013.10.04.) : 제주문화경관,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 제3회 (2014.11.07.) : ‘제주마’ 문화정립을 위한 제주학의 역할
 - 제4회 (2015.10.02.) : 문화자원론과 지역학
 - 제5회 (2016.10.07.) : 신화의 보물섬 제주, 제주 신화의 성격과 세계적 위상
- ⑦ 제주학 교육사업
: 제주학 아카데미 -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 ⑧ 제주학 역사편찬사업
: 승정원일기 번역사업, 일제하 신문기사 자료집
- ⑨ 제주어 연구사업
: 제주어 자체연구사업, 제주어 연구지원사업, 제주어 교육강좌
- ⑩ 제주학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 ⑪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라. 주요 성과

- 연구 공모사업을 통해 제주학 연구비를 연구자 및 연구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결과물 축적
- 온라인을 통한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연구자 및 시민들에게 제주학 관련 원자료(raw data)를 디지털화해 웹 서비스로 제공
- 제주어 관련 특화사업 추진 : 제주어 표기법 해설서 발간·실태 조사·시민강좌 등 추진
- 제주학연구센터의 출연 예산 2배 증액을 통해 센터장을 포함한 신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제주학의 글로벌화 추진 : 국내·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시민·대중과 함께 하는 ‘열린 제주학’, ‘실용적 제주학’ 추진
- 인터넷을 통한 제주학 아카이브를 오프라인까지 전면 확대 개편
- 제주학 연구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 및 후속 연구인력 양성 지원사업 강화

2) 충북학연구소

가. 현황

- 충북학연구소는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북도 지역 문화의 전통성과 역동성을 탐구하여 충청북도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창달할 목적으로, 1999년 2월 24일 충북발전연구원(현, 충북연구원) 내 부설기구로 설치됨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 충북학연구소는 충청북도 지역의 역사·문화·민속 등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충북학 연구 기능, 중원문화권 문화 원형 발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기능, 충청북도사 편찬과 관련자료 수집과 정리 기능, 충청북도 문화 정책 개발과 문화 경쟁력 향상 기능, 충청북도 관련 자료 센터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함

다. 주요 사업방향과 내용

〈표 4-6〉 충북학연구소의 주요 사업방향 및 내용

구분	사업방향	사업내용
학술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작업 ■ 중원문화권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연구 ■ 충북지역학의 학문적 성숙도 ■ 지역학 연구의 구심점 역할 ■ 道史 정리와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과 관련된 미진한 연구분야 지원 ■ 타지역 및 세계 역사 문화와의 비교연구 ■ 학제간 공동연구 ■ 지역학 이론 개발 ■ 매년 연구지 간행 ■ 충북학총서 간행 - 부록3 '충북학총서 간행계획' 참조 ■ 매년 1~2회 워크숍과 심포지움 개최
문화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물의 대중화 ■ 도민의 지적 욕구 충족 ■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학 교양총서 간행 ■ 시청각세대를 위한 미디어시리즈 간행

	간과 매체 제공 ■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소 운영	■ 다양한 기행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역사, 문학, 문화, 생태, 자연 등) ■ 충북학 및 중원문화에 관한 교양강좌, 전문 강좌와 ■ 초청강연회 개최 ■ 특별전시전 개최 ■ 청소년을 위한 충북학캠프 개최
자료정보화사업	■ 충북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 집적, 충북학 ■ 연구를 위한 기반 확보 ■ 경화된 자료를 생명있는 자료로 정보화 ■ 도민에게 충북과 관련된 자료 제공	■ 사료 수집과 정리 ■ 자료집 간행 ■ 구술자료 채록 ■ 충북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 서비스 ■ 충북 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구축 ■ 충북자료센터 운영 ■ 도민에게 충북학, 중원문화, 도정 관련자료 정보서비스
문화예술 정책개발	■ 도 문화관광국과 긴밀한 협조, 지속가능한 21세기형 문화예술 정책 개발 ■ 국내외 문화정책 사례 연구 ■ 문화예술정책자료 수집과 평가	-

출처 :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http://csi.cri.re.kr/sub.php?menukey=9>)

라. 대표사업 :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

- 충북학연구소는 지역학을 단순한 자료조사 및 사료발간을 뛰어넘어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과 지역학을 결합한 연구결과의 대중화, 그리고 실제 정책 활용을 동시에 꾀함. 이러한 대표적인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 임

① 사업취지

-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 사업은 2018년 충북 재발견사업의 일환으로 달천(달래강) 유역의 잠재된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달천 유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특성을 밝혀내고, 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을 발

굴하여 지역발전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됨

- 달천은 보은군 속리산 천왕봉에서 발원하여 청주시와 괴산군을 거쳐 내륙도시인 충주시를 우회하여 남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총길이 123km, 총면적1,614km²의 하천으로 그 본류와 지류가 오롯이 충북 지역만을 흐르고 있는데, 강의 총 길이 123km에서 프로젝트명을 차용한 것임
- 달천은 상류인 보은구간(속리산 법주사, 정이품송 등)을 시작으로, 청주구간(옥화구곡 등), 괴산구간(화양서원, 화양구곡, 산막이옛길 등), 충주구간(수주팔봉 등) 등을 흐르며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명소 등을 품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역 차원의 관심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음
- 이에, 달천 유역의 잠재된 소실위기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발굴·재조명하고 이야기의 발굴, 예술적인 표현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달래강 123 인문 예술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게 됨

② 세부 사업내용

- 달천 유역의 역사·문화 및 인문자원 조사사업
 - 달천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특징을 밝혀내고 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달래강 유역 역사·문화 및 인문자원 조사사업과 기획과제’가 추진
 - 주요 조사 및 연구내용으로, ㉠ 달천유역의 현황 및 특성 조사, ㉡ 달천의 자연환경·인문·사회적 가치발굴(자연 생태자원, 역사문화, 인문가치와 자원, 문화유산분포화 가치, 전통마을과 문화자원 등), ㉢ 지속가능한 달천유역의 발전 비전과 목표, 방향 및 전략제시 등
-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달래강 123 예술프로젝트’
 -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예술가(단체)와 충북한 연구소간의 협력 모델 구축
 -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지역학 연구자가 매월 1월 정기탐사를 실시하여 서로 교류하면서 달래강의 인문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함
 - 충북 지역 3개 예술단체의 소속회원 및 개별 창작예술가 40여 명이 참여
- 지역 언론사(중부매일)와 함께 하는 ‘달래강 리포트’ : 20회

- 1990년 창간된 지역 언론사인 중부매일 신문사와 협력하여 ‘달래강 123 인문 예술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함과 더불어, 달래강의 인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전문연구가를 초청하여 달천 유역을 구간별로 답사한 리포트를 중부매일에 총 20회 연재를 계획함

③ 주요 성과

○ 지역 생태·인문환경의 가치 재조명

-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인문자원 역시 풍부한 달천유역은 종래 생태환경 조사 또는 보전 중심의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달래강 123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달천의 사회·문화, 인문적 가치를 재발견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 이를 통해, 지역 가치를 새롭게 회복하고 공유하여, 달천이 새로운 미래자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

○ 지역주민 및 지역예술인 참여형 지역학 프로젝트

- 종래 지역학은 전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달래강 123 예술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및 지역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학 사업으로 기획됨
- 이를 통해, 지역학과 지역예술이 융합하여 지역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 달천 유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공동발전 모색

- 달천은 충청북도 6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하천임. ‘달래강 123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달천이 흐르는 5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본 프로젝트 종료 이후, 충청북도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칭) “달래강 유역 발전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발전이 기대됨

④ 사업의 과제

○ 단발성 프로젝트로서 사업성과 획득에 한계

- ‘달래강 123 예술프로젝트’는 2018년 1년이라는 단기간 및 단발성 프로젝트로 기획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프로젝트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성과 획득에 한계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달천 유역의 5개의 시군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관련 조례제정과 같은 정책 지원이 요구됨. 나아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함

[그림 4-6] 달래강 123 인문예술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 및 과제



3 전주문화재단

가. 개요

- 전주시에서 2006년 설립한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기관
- 구술조사를 기본으로 한 이야기 개발과 활용에 사업을 집중하여 지역학 연구수행(차별성)
- 실용적이고 실천적 활용(구술을 통해 발굴된 콘텐츠의 문화·예술적 활용)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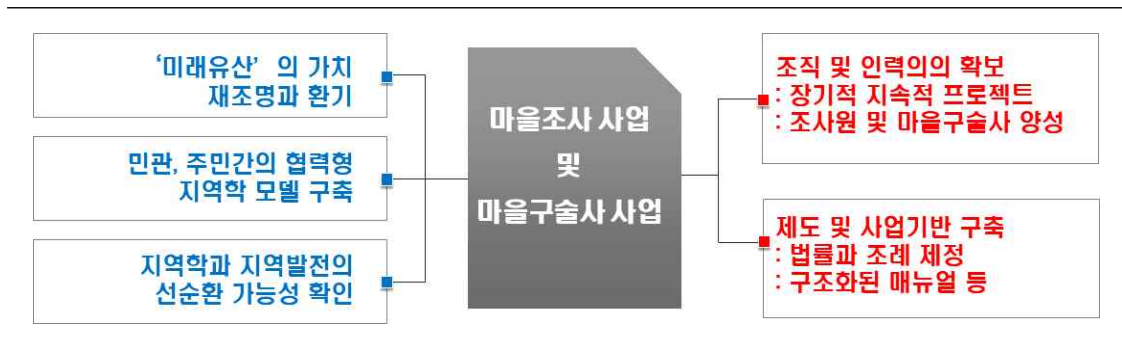
나. 주요 사업방향

- 지역 역사의 재구성 및 지역 정체성 찾기

○ 문화재생 및 도시재생에 대한 고려와 실천

-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
- 마을술사 사업

[그림 4-7] 마을조사 사업 및 마을구술사 사업의 주요 성과 및 과제



제3절 시사점

1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v 한국에서 지역학 연구는 1973년 시작,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고, 점차 기초단체로 확산되는 추세임 v 민간학회, 대학연구소, 지자체 연구소, 향토사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학 연구기관이 존재함 v 문화계의 경우 지역학에 대한 연구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지역학이 지역의 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추세임 v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학 관련 전문학술지의 양적, 질적 성장이 두드러짐 v 특히 자체적인 지역학 정기 학술지 발간의 역사가 10년 이상인 곳이 10개 기관 이상으로 연구역량이 축적되고 있음 v 지역학 연구기관들은 지역주민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강좌, 탐방 등 관련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v 지자체장의 사적 판단에 따라 지역학 연구기관의 유지와 소멸이 결정되는 구조적 취약성 v 지역학은 체험재(Experience Goods)로 접근 통로나 접근경험이 부족할 경우 수요창출이 매우 곤란함 v 지역학 연구기관들은 운영비 부족으로 외부공모 프로젝트에 의지해 연구를 진행하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음 v 지역학 연구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미디어 협력, 출간물 배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열악함 v 지역학 연구기관의 전담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1인 이하인 연구기관이 전체 연구기관의 1/2 수준임) v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역사문화(민속 포함) 중심의 지역학 연구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민참여 및 공유를 통한 대중화 사업이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v 최근 문화기본법(2013)과 지역문화진흥법(2014)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초로서 지역학의 위상과 관심이 높아짐 v 특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인한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 기반구축 v 세계문화다양성선언(2000)과 협약(2005) 등을 통해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의 다양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v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세계의 중심은 특정 행정수도가 아니라 지역색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음 v 1995년 이후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지역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v 지역의 고유 브랜드에 대한 내외의 수요가 지역축제, 지역특산물, 지역인물, 지역역사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v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및 문화비전 2030에서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문화분권의 실현 등이 강조되고 있어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v 지역의 격차와 여건을 도외시하고 지역학의 발전은 해당 소재 지역의 책임이라는 관행적 사고의 팽배 v 한국학이 중앙거점이 있는데(한국학중앙연구원) 비해 지역학은 지역 거점이나 전국단위의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 인식이 희박함 v 지역학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없이 지역주민의 일시적인 요구나 기호를 충족시키는 단발적인 행사에 지역학이 이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v 지역주민의 학습욕구 등을 구실삼아 평생학습 등 각종 기관에서의 지역학 관련 프로그램의 비체계적인 운영 v 지역학의 실용적 효용가치 등에 대한 자각이 없이 학문적 영역으로만 인식하는 연구자들의 잘못된 관행 v 역사, 문화, 민속 등 연구 분파별 사적이익이 강조되고 주민참여가 배제된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인식과 관행 v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역학 연구기관 간의 관계 및 협력의 가치에 대한 각급 지자체의 관심부족
기회(O)	위협(T)

② 시사점

-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역학 활동은 공통적으로 지역학 논총 등 정기간행물 발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총서 발간,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의 학술행사 운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 운영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활동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경우,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토대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학 자료나 자원에 대한 조사와 자료집 제작,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축적하는 아카이빙(archiving)이 중요한 활동으로 등장함
- 대학의 지역학연구소의 경우, 소속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학 교양강좌의 운영도 두드러지는데, 대학에서의 지역학 강좌 운영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지역학은 지역(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총무성의 ‘지역학 연계 지역활력창출모델 실증사업’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마을 차원에서도 지역학과 연계하여 지역(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하며 동네박물관 조성 및 마을투어 등으로 발전시켜 경제·사회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 즉 일본의 지역학은 주민 스스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와 지혜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으로 개척하고자 함
-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지역학이 지역발전과 결합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는 ‘달래강 123 인문예술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학의 발전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간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쇠퇴하는 지역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이런 프로젝트를 지속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못함.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시사하는 바가 큼
- 제주학연구센터는 지속적·안정적 연구진행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있음
 - 제주학 연구센터 개설과 함께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학 연구에 대한 체계화

-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한 제도화를 기반을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센터의 운영 및 연구사업비로 2012년부터 5년간 4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 안정성 확보

제5장

지역학 연구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

제1절 삼척학연구센터의 기본구상 및 비전체계

제2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 및 사업대상

제3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 및 종합검토

제1절 삼척학연구센터의 기본구상 및 비전체계

1 지역학으로서 삼척학의 개념 및 성격

- 학문으로서 지역학의 정의
 - 지역학이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임
- 학문으로서 삼척학의 정의
 - 삼척학은 삼척지역과 관련된 인문과 지리, 역사와 문화, 문학과 예술, 정치와 경제, 자연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 선사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삼척 지역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인 시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 삼척시의 역사,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임
- 지역학으로서 삼척학의 성격
 - 지역의 공간, 인간, 그리고 시간을 다루는 학문
 - 지역과 지역주민을 주체로 하는 학문
 - 지역에 대한 학제간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는 학문
 -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
 - 지역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현실참여의 실천적인 학문
 - 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통찰을 통해 미래를 지향하는 학문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학문

2 삼척학연구센터의 중장기 비전체계

-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중장기 비전은 연구센터가 궁극

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 내지 지향점으로서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함

- 삼척학연구센터의 중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지속가능한 삼척학 연구 플랫폼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하위 목표, 즉 시간 차원에서의 연속성, 공간 차원에서의 개방성, 그리고 가치 차원에서의 통섭성으로 설정함
- 삼척학연구센터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지학연계 미래가치 창출 및 활동 체계구축」으로 설정하고, 이와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하위전략, 즉 주민참여형 삼척학, 문제해결형 삼척학, 미래지향형 삼척학으로 설정함

[그림 5-1] 삼척학연구센터의 중장기 비전체계



제2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 및 사업대상

1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

- 삼척학연구센터의 바람직한 사업범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의 사업범위를 우선 검토하였음

가.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의 성격 및 연구영역

〈표 5-1〉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의 성격 및 연구영역

구분	기관명	기관성격			연구영역					설립 년도
		연구 기관	문화 기관	대학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정책	자연 환경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	√	√	√		1993
부산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	√	√	√	√	2003
인천	인천시립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	√	√			2002
광주	한국학호남진흥원		○		√					2017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			√	√	√	√	√	2005
울산	울산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			√	√	√	√	√	2005
강원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	√			√	2018
경기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		√					2005
충북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센터	○			√					1999
충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부		○		√	√				2001
전북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			√	√			√	2019
전남	한국학호남진흥원		○		√					2017
경북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			√	√	√	√	√	2005
경남	경남연구원 경남학연구센터	○			√					2019

제주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	√	√	√	√	2011
----	---------------	---	--	--	---	---	---	---	---	------

- 주: 1) 광주전남연구원 남도학연구센터는 2012년에 최초 설치되었고, 2017년에 한국학호남진흥원으로 이관되었음
 2)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는 2002년에 최초 설치되었고, 2010년에 폐지된 후 2018년에 재설치되었음
 3)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시의 경우,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학연구센터의 설치를 검토 중에 있음

나.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의 성격 및 연구영역

〈표 5-2〉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의 성격 및 연구영역

구분	기 관 명	기관성격			연구영역					설립 년도
		연구 기관	문화 기관	대학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정책	자연 환경	
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			√					2014
고양	고양문화원 고양학연구소		○		√					2017
성남	성남문화원 성남학연구소		○		√					2014
용인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		√					2010
곡성	곡성문화원 심청곡성학연구소		○		√					2000
광양	광양문화원 광양학연구소		○		√					2015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연구소		○		√					2002
천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	√	√	√	2009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안동학연구소		○		√					1995
옥천	옥천문화원 옥천학연구소		○		√					2020
춘천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		√					2019
평택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		√					2020
노원	노원문화원 노원지역학연구소		○		√					2020

- 주: 1) 전주역사박물관(전주학연구소)은 (사)전주문화연구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음
 2)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충청남도과 천안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충남학 및 천안학 등 대학 교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전담하고 있음
 3)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은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임(경상북도 조례 제3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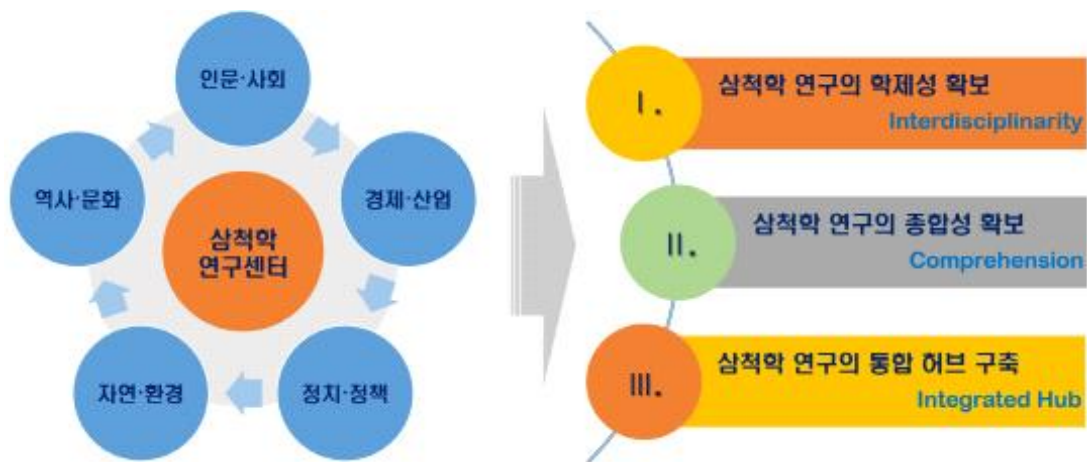
호)

- 4)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지역학 연구기관의 설립을 계획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포항, 통영, 의정부, 완주, 창원 등이 있음

다. 소결론 :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 및 기대효과

-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는 역사·문화, 인문·사회, 경제·산업, 정치·정책, 그리고 자연·환경 등이 포함된 대규모 스케일의 연구영역으로 설정함
- 이와 같은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 설정은 1) 삼척학 연구의 학제성 확보, 2) 삼척학 연구의 종합성 확보, 그리고 3) 삼척학 연구의 통합 허브 구축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5-2]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연구영역) 및 기대효과



②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대상

- 삼척학연구센터가 수행할 다양한 연구영역(역사·문화, 인문·사회, 경제·산업, 정치·정책, 그리고 자연·환경)은 수행조직의 구체적인 활동맥락에서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이 4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표 5-3>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v 분야별 삼척학 연구사업 v 분야별 삼척학 연구(자)지원 사업 v 분야별 정책연계 특화사업 및 대중화 사업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v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플랫폼 구축 및 운영 v 분야별 자료의 조사수집 및 아카이빙(Archiving) v 디지털 아카이브의 홍보 및 활용 극대화 사업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v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대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개설운영 v 시민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개설운영 v 초중고 각급학교 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개설운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v 포럼·세미나·심포지움 등 학술행사 개최 v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 v 삼척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 기관 및 단체간 교류

- 주: 1) 아카이브(Archive)란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서의 컬렉션 또는 이러한 기록이나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시설·기관을 의미함
 2)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이란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디지털 객체를 장기간 관리하여 이후의 이용을 보장하는 활동, 즉 가치있는 기록이나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존·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함
 3)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에서 대학생, 시민, 그리고 초중고 학생 대상 교양강좌는 온·오프라인 강좌로 개발·운영함

제3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 및 종합검토

- 연구기관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식은 크게 두 가지, 1) 직접운영방식과 2) 간접운영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간접운영방식은 1) 별도 법인설립 운영방식, 2) 기존법인 통합 운영방식, 3) 전문기관 위탁 운영방식 등으로 세분하여 검토하였음

① 직접운영방식 : 문화공보실 삼척학연구팀

- 직접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서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임(예: 문화공보실 삼척학연구팀/계)
 - 이 경우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총당되고 구성원의 신분은 공무원 신분인 것이 특징임
- 직접운영방식의 장점
 - 행정부서의 형태로 운영되고 조직원은 공무원 신분임
 - 채용조달 및 집행, 그리고 공공성 확보가 용이함
 - 직접 운영·관리되기 때문에 간접비용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사회에 적합한 운영방식임
- 직접운영방식의 단점
 -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결여됨
 -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의 비대화 우려가 있음
 - 지역연구 전문조직이 필요한 현실적인 요구반영에 부적합함
 - 성과에 대한 유인체계가 부족함

② 별도 법인설립 운영방식 : 재단법인 삼척학연구센터

- 간접운영방식 중 별도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은 신규로 재단법인 삼척학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 이 경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원(자본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며, 운영 예산은 지자체 지원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음

○ 별도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가칭 재단법인 삼척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련 법률	<p>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p> <p>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p> <p>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지방재정법	<p>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p> <p>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 별도 법인 설립·운영 방식의 장점

- 공익 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운영체계에 따라 조직 및 인력 구성가능

-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가능
- 기금운용을 통한 예산자율성 확보가능
- 별도 법인 설립·운영 방식의 단점
 - 법인설립 및 정착단계에서 많은 투입비용으로 지자체의 높은 재정부담
 - 기존(계획법인 포함) 지자체 출연기관(특히 삼척문화재단)의 난립 및 기관간 사업의 중복성 발생우려

③ 기존법인 통합 운영방식

: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 간접운영방식 중 기존 법인의 기능확대를 통해 통합 운영하는 방식은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 이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설립(예정)된 기존 법인(삼척문화재단)에 지역학 연구기능이 추가되어 통합 운영되며, 운영예산은 지자체 지원금과 자체수입으로 충당되는 특징이 있음
- 삼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2017)에 따르면, 이사장과 이사회, 사무국장, 그리고 경영정책팀과 문화사업팀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계획안이 담고 있는 2개의 사업부서, 즉 경영기획팀과 문화사업팀 외에 1개의 사업부서(삼척학연구센터)를 추가하여 재단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임

[그림 5-3]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의 조직도(전후비교)



주: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세부 조직도는 후술할 제7장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방안에서 상술함

○ 기존 법인 통합 운영방식의 장점

- 유관법인의 기능확대를 통한 통합운영으로 유사기관의 난립억제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별도의 법인설립이나 업무위탁 등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함
- 별도의 운영체계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가능

○ 기존 법인 통합 운영방식의 단점

- 일반적인 문화사업 운영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연구 및 교육 사업의 효율성 저하우려
- 즉, 연구분야별 기초연구 기능의 약화우려
- 일정규모의 조직 및 인력 구성요건이 미충족시, 전문성 약화 및 아웃소싱에의 의존성이 높아져 사업효과성 훼손우려

4 전문기관 위탁 운영방식(1) : 삼척문화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 간접운영방식으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삼척문화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방법임

- 이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는 삼척문화원에 지역학 연구기능을 추가하여 운영되며, 운영예산은 지자체 지원금과 자체수입으로 충당되는 특징이 있음
- 삼척문화원에 삼척학 연구사업을 위탁하고 해당 사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를 부설기구로 설치할 경우, 삼척문화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삼척학 연구기능이 지역문화사업으로 특화 운영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지방문화원 진흥법	<p>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p> <p>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p>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	---

- 삼척문화원 위탁 운영방식의 장점
 - 기존 문화관련 기관의 기능확대 및 위탁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 지역의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 사업경험의 활용성
 - 지역문화사업 운영의 노하우 활용가능
- 삼척문화원 위탁 운영방식의 단점
 - 연구기능(센터)의 확대로 조직의 비정상적인 비대화 우려
 - 고유목적사업(전통 및 향토문화)에 대한 집중력 약화우려
 - 향토사, 향토문화 등에 편중된 연구성향과 그에 따른 학제적 종합연구의 약화 가능성

- 전문인력의 부족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한계

5 전문기관 위탁 운영방식(2) :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 간접운영방식으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서 검토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방법임
 -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부설 연구기관인 삼척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위탁·운영되는 형태로서 운영예산은 지자체 지원금과 자체수입으로 충당되는 특징이 있음
- 강원대학교에 삼척학 연구사업을 위탁하는 운영방식을 선택할 경우, 삼척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음
 - 수탁자인 강원대학교의 경우, 기관간 협의 및 내부 협의를 통해 도출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및 위탁계약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며, 강원대학교는 강원대학교 학칙과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 내부절차의 이행이 필요함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삼척시 사무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p>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p>	<p>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 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p>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p> <p>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삼척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p> <p>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 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강원대학교 학칙</p>	<p>제33조(부속시설 및 연구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부속시설과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과 연구소에는 부서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부서장을 둘 수 있다. ③ 총장은 부속시설이나 각종 연구소를 학칙이 정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 쳐 신설할 수 있다. ④ 부속시설 및 연구소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p>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p>	<p>제4조(연구소의 구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소는 대학교 부설연구소와 대학 부설연구소로 구분한다. ② 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재정조달이 확실하고, 복수의 단과대학에 해당 하는 학문영역을 갖고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 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학 부설연구소는 재정조달이 확실하고, 하나의 단과대학에 해당하 는 학문영역을 갖고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이 대학교에 두는 연구소는 “별표 1” 과 같다. <p>제7조(연구소의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소는 이 대학교의 학술연구 진흥을 위하여 전문영역의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소를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학교 부설 연 구소의 경우) 또는 대학장(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우)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설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소 설립 계획서(설립목적, 시설, 참여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p>연구실적 및 학술 활동실적(최근3년간), 재정확보계획,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p> <p>2. 설립동의자 연명부(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전임 교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경우에는 최소한 2개 단과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15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p> <p>3. 연구소 장기발전계획서(장기 연구사업계획 포함)</p> <p>4. 연구소 운영 시행세칙(제22조 제1항)</p> <p>5. 기타 연구소 설립에 관련된 자료</p>
--	--

○ 강원대학교 위탁 운영방식의 장점

-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인력과 분야별 높은 협업 가능성
-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영의 탄력성과 수요변화 대응성이 높음
- 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가 용이함
- 연구 및 교육의 연계성 확보가 용이함
- 관-학, 지-학의 상생협력 가치실현의 모범사례 구축효과

○ 강원대학교 위탁 운영방식의 단점

- 사업 중심의 지자체 보조금 지원으로 충분한 전담인력의 충원한계
- 겸직인력(전임교수) 위주의 인력구성 및 전담인력의 구조적 취약성
- 순수 연구·교육 사업에 대한 편중우려 및 그에 따른 현장·참여 중심의 사업 활동의 위축우려

6 대안별 비교검토 및 평가의견

- 본 연구는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으로 5개의 방안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개의 복수안, 즉 1) 간접운영방식 중 기존법인의 기능을 확대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식(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과 2)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되었음(<표 5-4> 참조)

〈표 5-4〉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에 대한 종합검토(안)

구분	간접운영방식			
	직접운영방식	별도 법인설립 운영방식	기존법인 통합 운영방식	전문기관(단체) 위탁 운영방식
명칭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방식 삼척학연구팀(행정부서/계)	재단법인 삼척학연구센터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삼척문화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재원	지자체 예산	지자체 지원금과 자체 수입	지자체 지원금과 자체 수입	지자체 지원금과 자체 수입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립 및 집행 과정이 간단함 √ 재원조달 및 공공성 확보용이 및 낮은 간접비용 발생 효과 √ 비교적 비활성화된 지역사회에 적합한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 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운영체계에 따라 조직 및 인력구성 가능 √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가능 √ 기금운용을 통한 예산지출성 확보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법인의 기능확대를 통한 통합운영으로 유사기관의 난립억제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별도의 법인설립이나 업무위탁 등 별도의 행정절차없이 사업추진이 용이함 √ 별도의 운영체계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인력과 분야별 높은 협업 가능성 √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영의 탄력성과 수요변화 대응성이 높음 √ 연구의 다양성, 전문성 확보 √ 연구-교육의 연계성 확보용이 √ 관-학, 지-학의 상생협력 가치극대화 효과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 √ 지자체 조직 및 인력의 비대화 우려 √ 지역연구 전문조직이 필요한 현실적인 요구반영에 부적합 √ 성과에 대한 유인체계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문화사업 운영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연구 및 교육 사업의 효율성 저하 우려 √ 즉, 기초연구 기능의 약화 우려 √ 일정규모의 조직 및 인력 구성요건이 미충족시, 전문성 약화 및 아웃소싱에의 의존성이 높아져 사업효과성의 훼손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능(센터)의 확대조직의 비정상적인 비대화 우려 √ 고유목적사업(전통 및 향토 문화)에 대한 집중력 약화 우려 √ 향토사, 향토문화 등에 치중된 연구의 편향성 √ 전문인력의 부족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중심의 지자체 보조금 지원으로 충분한 전문인력의 충원한계 √ 겸직인력 위주의 인력구성 및 전문인력의 구조적 취약성 √ 순수 연구·교육 사업에 대한 편중우려 및 그에 따른 현장·참여 중심의 사업화 등의 위축우려
검토 의견	X (부적합)	X (부적합)	○ (적합) - 1인	○ (적합) - 2인

제6장

현대사적 관점에서의 삼척학 인물연구

제1절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연구 동향 및 과제

제2절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 및 조사현황

제1절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연구 동향 및 과제

① 지역출신 인물연구의 동향 : 특징 및 한계

- 역사는 인간에 의해 구성되며 역사를 학습하는 주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함
 - 역사적 인물연구는 인물학습(Historical Figure Learning)을 통하여 역사적 통찰력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인 길라잡이가 되고 있음
- 특히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을 빛낸 역사적 실존인물이나 생존인물에 대한 연구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맥락의 이해와 통찰력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고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역사적 인물에 대한 대다수 기념사업은 생가보존(복원), 기념관, 사당 또는 문학관 건립, 묘소정비 등과 같은 인프라 중심의 하드 파워적 개발에 치중되고 있음
 - 그 결과 대표인물을 활용한 소프트 파워적 관점의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 소수의 특정 인물만을 대상으로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추진을 실행함에 따라 지역민의 정서나 가치와는 유리된 채 고착화됨으로써 지역민의 흥미가 감소됨
 - 특히 지역 출신 전근대 인물에 대한 연구 및 전승사업에 편중됨으로써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취약한 실정임

② 지역출신 근현대 인물연구의 방향 및 과제

- 지역 출신의 근현대 인물은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현대 인물에 대한 연구와 전승사업은 시민들의 공감도를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근현대 인물전승을 위한 연구와 사업은 현대인의 삶의 경험을 시공간을 넘어 확장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민의 삶의 토양을 풍부케 할 수 있음
- 근현대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내재된 가치를 찾는다면, 현대사적 관점에서 인물의 삶과 생애 및 사상, 업적을 재해석하고 삼척시민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음

- 즉 지역출신 근현대 인물에 대한 연구 및 전승사업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사표가 되며 나아가 지역민의 단합과 자신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임호민, 2019)
-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전승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된 심층적인 자료조사와 수집, 그리고 삼척의 근현대 인물총서의 발간이 필요함
 -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현재인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근현대 인물을 선양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는 오프라인 매체의 홍보물과 온라인 매체, 즉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향후 근현대 인물을 홍보하여 삼척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삼척을 빛낸 지역출신 근현대 인물에 대한 연구 및 전승사업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삼척학연구센터의 인물연구와 전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삼척출신 근현대 인물발굴에 초점을 맞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굴된 분야별 인물현황(List of Figure)은 인물연구 및 선양사업의 예비적 또는 사전적 기초조사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후 운영과정에서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에 대한 전승사업은 분야별 삼척출신 인물에 대한 심도있고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인물연구 및 전승사업의 대상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선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시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삼척을 빛낸 근현대 대표인물의 선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상훈법(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제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연구 및 전승사업은 대개 ‘선양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이나 두상 포함)·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인물연구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6-1〉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 선양사업 대상자 선정시 배제기준

-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2절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 및 조사현황

1]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의 기본전제

- 인물발굴의 대상지역인 삼척이란 공간은 1980년 동해시와 태백시로 나누어지기 전의 삼척군을 포함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근현대 인물을 발굴함
 -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은 삼척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삼척 지역 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삼척 지역에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하여 고인이 되었거나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사람(단, 삼척을 빛낸 업적이 뚜렷한 경우, 공적을 쌓은 지 10년 이상된 인물도 포함시켰음)을 대상으로 발굴하였음
-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의 근거 내지 출처가 되는 자료나 정보원은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정보원에 근거하였음
 - 『디지털삼척문화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삼척시청 선정 ‘삼척의 인물’ 등을 토대로 발굴하였음
 -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국가보훈처 포상 훈격을 근간으로 발굴하였음
 - 각종 언론매체 등에 실린 삼척 관련 인물들을 중심으로 발굴하였음
 - 아울러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은 복수의 지역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인물을 발굴하였음
-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의 분야별 인물발굴의 기준은 연구진의 전문가적 판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삼척 출신 독립 유공자 : 국가보훈처 포상 훈격(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의 수상자) 등
 - 삼척을 빛낸 정치인(공무원 포함) : 국회의원(선거직),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임명직, 선거직), 대통령 임명 고위공무원(청와대, 중앙부처 등), 군장성 등
 - 삼척을 빛낸 경제인 : 대기업집단 임원, 상장회사 창업주 및 임원, 향토기업 창업주 및 대표자, 공기업 임원 등
 - 삼척을 빛낸 문화예술인 : 해당 분야 전국 및 지역 단체(기관) 회원으로 일정기간 창작활동(출판, 전시 등)을 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물, 해당 분야

의 전국 단위 경연대회 수상자 등

- 삼척을 빛낸 체육인 : 분야별(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및 감독 등

②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 및 조사현황

- 삼척출신 근현대 인물에 대한 연구 및 전승 사업의 예비적 기초조사 성격을 갖고 있는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 총괄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6-2〉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발굴 및 조사현황

구 분	합 계	독 립 유공자	정치인 (공무원)	경제인	문 화 예술인	체육인
인 원 (명)	79	25	14	10	27	3

가. 삼척을 빛낸 독립유공자

(1) 삼척을 빛낸 독립유공자 현황

- 우선 상훈법 제18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및 제19조(포장의 종류),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는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6-3>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구분	훈장의 종류	등급별 명칭	훈장의 종류	등급별 명칭
훈장	가. 무공화대훈장		사. 수교훈장	1등급: 수교훈장 광화대장 수교훈장 광화장 2등급: 수교훈장 흥인장 3등급: 수교훈장 송례장 4등급: 수교훈장 창의장 5등급: 수교훈장 숙정장
	나. 건국훈장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등급: 건국훈장 대통령장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 4등급: 건국훈장 애국장 5등급: 건국훈장 애족장	아. 산업훈장	1등급: 금탑 산업훈장 2등급: 은탑 산업훈장 3등급: 동탑 산업훈장 4등급: 철탑 산업훈장 5등급: 석탑 산업훈장
	다. 국민훈장	1등급: 국민훈장 무궁화장 2등급: 국민훈장 모란장 3등급: 국민훈장 동백장 4등급: 국민훈장 목련장 5등급: 국민훈장 석류장	자. 새마을훈장	1등급: 새마을훈장 자립장 2등급: 새마을훈장 자조장 3등급: 새마을훈장 협동장 4등급: 새마을훈장 근면장 5등급: 새마을훈장 노력장
	라. 무공훈장	1등급: 태극 무공훈장 2등급: 을지 무공훈장 3등급: 충무 무공훈장 4등급: 화랑 무공훈장 5등급: 인현 무공훈장	차. 문화훈장	1등급: 금관 문화훈장 2등급: 은관 문화훈장 3등급: 보관 문화훈장 4등급: 옥관 문화훈장 5등급: 화관 문화훈장
	마. 근정훈장	1등급: 청조 근정훈장 2등급: 황조 근정훈장 3등급: 홍조 근정훈장 4등급: 녹조 근정훈장 5등급: 옥조 근정훈장	카. 체육훈장	1등급: 체육훈장 청룡장 2등급: 체육훈장 맹호장 3등급: 체육훈장 거상장 4등급: 체육훈장 백마장 5등급: 체육훈장麒麟장
	바. 보국훈장	1등급: 보국훈장 통일장 2등급: 보국훈장 국선장 3등급: 보국훈장 천수장 4등급: 보국훈장 삼일장 5등급: 보국훈장 광복장	타. 과학기술훈장	1등급: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2등급: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3등급: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4등급: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5등급: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포장	가. 건국포장 나. 국민포장 다. 무공포장	라. 근정포장 마. 보국포장 바. 예비군포장	사. 수교포장 아. 산업포장 자. 새마을포장

출처 : 상훈법 시행령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관련 [별표 1]

- 아울러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르면, 수형 및 활동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격에 차등을 두고 있음

〈표 6-4〉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구 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포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수형기간	8년 이상			4년 이상	1년 이상	10월 이상	10월 미만
활동기간	8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6월 이상

- 주: 1) 활동기간은 자료상 독립운동 단체 등에 가입하여 실제로 활동한 기간을 뜻함
 2) 위의 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이므로 활동내용이 다른 개별 공적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며 같은 옥고(수형)기간이라도 활동의 성격,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 수 있음

출처 : 국가보훈처(2019),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일반기준(<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69&bbsNo=45&nttNo=46399&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d=&pageIndex=1&integrDeptCode=>)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훈·포장 훈격 부여기준에 따라 삼척 출신 독립유공자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6-5〉 삼척을 빛낸 독립유공자의 훈장 및 포장 수여자 현황

구 분	합 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포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인 원	25명				6명	10명	4명	5명
성 명					김성산 김하규 김현경 심부운 심재규 이건필	김기영 김동호 김용운 양순모 유경발 이개동 이봉래 정석대 정용화 정의찬	최기한 최대희 최윤달 최춘희	김덕수 유형남 윤상명 이기소 이상구

(2) 삼척을 빛낸 독립유공자의 주요 활동현황(가나다 順)

▶ 김기영(金基英, 1898 ~ ?)

삼척 근덕 교가 20-10 출생. 포상 훈격 : 애족장

김기영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경성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다수의 군중과 함께 종로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동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반도목탁’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서울 송현동 주민 등에게 배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았음.

▶ 김덕수(金德守, 1909 ~ 1981)

삼척 정상 38 출생.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김덕수는 1934년 3월 6일 삼척면 정하리에서 변소봉(卞小鳳)의 권유를 받아 동년 3월 8일 국제무산부인(國際無產婦人)의 날 기념투쟁을 위해 통조림공장 노동자 부인의 시위 가담 권유 책임을 맡았음. 이후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운유비노동조합 조직준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음. 1935년 2월 1일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때까지 약 8개월간 옥고를 치렀음.

▶ 김동호(金東鎬, 생물연도 미상)

삼척 출생. 포상 훈격 : 애족장

김동호는 1910년대 국내의 대표적 혁명단체였던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회원으로 활약했음. 그는 강원 지역의 자산가들을 조사하여 포고문을 발송하고 군자금을 모으는 일을 했음. 1918년 대한광복회가 발각될 때 붙잡힌 그는 고초를 치르다가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언도받고 출옥했음.

▶ 김성산(金成山, ? ~ 1907)

삼척 출생. 포상 훈격 : 애국장

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1907년 8월 김성산은 의병에 투신하여 삼척군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수품을 조달하여 민공호·변학기·이강년 등의 의진(義陣)에 공급했음. 1907년 11월 18일 김성산은 약 5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소백산 북쪽 황지리(黃池里)에 주둔하였으나 일본군 토벌대의 공격을 받아 체포된 뒤 피살되었음.

▶ 김용운(金龍雲, 1906 ~ 1980)

삼척 근덕 하맹방 294 출생. 포상 훈격 : 애족장

김용운은 1930년 중국 북경으로 망명, 북평대학 법학원에 재학하면서 북평시 반제동맹 한인지부에 가입하여 3·1기념일, 메이데이, 간도 폭동기념일, 반전데이, 한일합병기념일, 혁명기념일 등에 항일 격문을 배포하고 타도 일본제국주의 등의 벽서활동을 하였음. 1931년 만주사변을 기회로 국내에 반제동맹을 조직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음.

▶ 김하규(金河圭, 1858 ~ ?)

삼척 출생. 포상 훈격 : 애국장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무렵 경북 울진의 도사(都事)로 있던 김하규는 휘하의 포군(砲軍) 20여 명과 함께 김현규 의진과 영해(寧海)의 신돌석(申奭石) 의진과 합세하여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는 등 의병활동을 하였음. 그러다가 붙잡혀 1906년 8월 24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유형(流刑) 10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음.

▶ 김헌경(金憲卿, 1851 ~ 1910)

삼척 북평 단봉 출생. 포상 훈격 : 애국장

단발령이 내려지자 김헌경은 강릉·삼척·울진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의거의 기치를 올렸음. 그는 창의대장(倡義大將)으로 추대되어 관동 일대에서 활약하였음. 1896년 1월 관동 의진(關東義陣)이 일본인의 거류지인 원산(元山)항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꾸준히 동지를 규합하면서 항일투쟁을 직접·간접으로 전개하였음. 1910년 일경에 체포되어 경성감옥에서 옥사하였음.

▶ 심부운(沈富潤, 1905 ~ 1951)

삼척 근덕 동막 1585 출생. 포상 훈격 : 애국장

삼척보통학교 2학년 때인 1919년 4월 15일 동교생(同校生) 18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했으며, 1931년 11월 30일 근덕면과 노곡면 간의 도로개수공사에 면민(面民)이 부당하게 부역되는 것을 계기로 근덕면 교가(交柯) 장날에 면민 300여명을 규합하여 근덕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시위활동을 벌이다가 일경에게 붙잡혀 옥고를 치렀음.

▶심재규(沈在圭, 1887 ~ 1913)

삼척 미로 상거 134 출생. 포상 훈격 : 애국장

심재규는 1909년 8월 주명식(朱明識)의 도총장(都總長)으로 임명되었음. 11월 17일 무장한 부하 20명을 인솔하고 강원 울진(蔚珍)의 각 부락을 돌아다니며 군자금 모금활동을 하였음. 1910년 6월 5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봉화(奉化)에 거주하는 홍재명(洪在明)으로부터 3백 냥을 모금하였음. 7월 봉화 오산리(梧山里)에 사는 박찬호(朴瓚浩)로부터 금 14원을 모금하고, 선천리(仙川里)에서 백미 3두를 강요하다가 체포되었음. 1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음.

▶양순모(梁珣模, 1905 ~ 1945)

삼척 미로 고천 522 출생. 포상 훈격 : 애족장

양순모는 1930년 중국 북경(北京)으로 가서 화북대학(華北大學)에 입학하고 의열단장 김원봉(金元鳳)의 지도를 받았음. 그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1932년 2월 하순에 귀국하여 서울에 머무르면서 동지를 규합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음. 그 후 다시 중국으로 망명하여 광복운동에 종사했음.

▶유경발(柳景發, 1896 ~ 1922)

삼척 황지 황지리 361 출생. 포상 훈격: 애족장

유경발은 1919년 3월 21일 경북 안동군 임동면 중평동 편향(臨東面中平洞鞭巷) 장날을 이용하여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음. 그때 이곳 주재소에서 2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공포를 발사하자, 그는 분노한 군중과 함께 주재소의 유리창·책상·의자를 파괴하고 서류를 파기하였음. 유경발은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8월 18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건조물 손괴·가택 침입·상해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음.

▶유형남(柳亨南, 1894 ~ 1957)

삼척 상장 혈 82 출생.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유형남은 1930년 천지중앙명류도(태극교(太極敎))의 신도로서 종교적 색채를 띠었지만 태백산, 금강산 등지를 이동하며 한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제(祈禱祭)를 거행하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음. 이로 인해 일경에게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음.

▶윤상명(尹尙明, 1912 ~ 1976년)

삼척 상장 혈 82 출생.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1929년 봄 태극교에 가입한 윤상명은 최익한(崔翼漢) 등의 교도들에게 조선이 독립할 것이며 자신이 태극교의 교주가 될 것이라며 선언하고 다녔음. 1930년 4월경 함경·평안 양도는 삼재팔난(三災八難)에 빠질 것이라 하여 태백산록의 삼척 일대로 이거한 뒤에도 교도를 포섭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음. 그는 이러한 일로 1939년 2월 체포되어 1941년 7월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음.

▶이개동(李開東, 1905 ~ 1944년)

삼척 장성 출생. 포상 훈격 : 애족장

이개동은 삼척청년동맹(三陟靑年同盟)과 신간회(新幹會) 삼척지회에 가입하고, 산업별노동조합지도위원회(産業別勞動組合指導委員會)를 조직했음. 1934년 6월 연초보급소 및 추동금광 습격사건에 연루, 붙잡혀 1935년 10월 3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아 공소했으나 1936년 12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음.

▶이건필(李乾弼, ? ~ 1896)

삼척 출생. 포상 훈격 : 애국장

이건필은 1896년 1월 민용호의 관동창의진에 참여하여 통의장(統義將)으로 활동하였음. 민용호의 관동창의진은 당시 강릉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영동 방면의 의병들과 세력을 합하고, 지방의 포수들을 모아 거의하여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음. 1896년 4월 삼척 미현(薇峴)에서 경병(京兵)과 교전을 벌여 크게 승리했으나 불행이도 이건필은 전사했음.

▶이기소(李起韶, 1905 ~ 1970년)

삼척 근덕 부남 311 출생.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이기소는 삼척청년동맹의 맹원으로 비밀결사 K회를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음. 그는 1931년 11월 30일 장날을 기해 동지들과 함께 도로공사 강제부역 반대를 위한 근덕면민대회(近德面民大會)를 개최하면서 반대투쟁을 확산시켜 갔음. 이 때 이들은 공사취소 및 공사비 납입고지서 등을 반납하면서 면사무소를 점거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일경과 대처하여 격렬하게 투쟁을 전개하였음. 이 일로 그는 일경에 붙잡혀 1932년 7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음.

▶ 이상구(李相龜, 1888 ~ 1958)

삼척 원덕 월천 159 출생.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이상구는 1919년 4월 13일 울진군 북면(北面) 부구리(富邱里) 장터에서 김일수(金一壽)·황종석(黃宗錫)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음. 이날 장터에 모인 500여 명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부하여 주고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큰 깃발을 선두로 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던 일경에 붙잡혔음. 같은 해 4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蔚珍支廳)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음.

▶ 이봉래(李鳳來, 1903 ~ 1934)

삼척 근덕 동막 502 출생. 포상 훈격 : 애족장

1931년 삼척군의 근덕에서 노곡 간의 도로공사 개설 때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농민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음. 1932년 12월 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주거침입, 폭력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여 1933년 12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의 여독으로 옥중 순국하였음.

▶ 정석대(鄭錫大, 1908 ~ 1945)

삼척 근덕 매원 36 출생. 포상 훈격 : 애족장

1919년 4월 삼척보통학교에서 김달하·심부운 등과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했고, 1933년 6월 삼척농민조합을 비밀결사하여 면(面) 담당 조직책임을 맡아 활동하던 중 1934년 5월 일경에 붙잡혔음. 1935년 10월 3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언도받았음.

▶ 정용화(鄭溶和, 1921 ~ 2004년)

삼척 북삼 쇠운 219 출생. 포상 훈격 : 애족장

정용화는 1938년 9월 하순 조국독립을 실현할 목적으로 춘천 농업학교 내에 비밀결사 독서회에 가입하고, 1940년 3월 졸업할 때까지 농촌계몽과 민족사상 고취를 위해 활동하였음. 삼척농회기수(三陟農會技手)로 취직 후에도 독서회의 이념실현을 위해 활동하다가 1940년 12월 10일 일경에게 붙잡혔음. 1942년 10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언도받고 출옥하였음.

▶ 정의찬(鄭義粲, 1913 ~ 1988년)

삼척 북삼 왜운 420 출생. 포상 훈격 : 애족장

정의찬은 삼척청년동맹의 간부로서 야학의 학생들에게 조국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1933년 9월 삼척군 북삼면농민조합에서 활동하던 중 체포된 뒤, 1935년 11월 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음. 왜운리로 돌아온 그는 즉시 동지를 규합하고 동지들과 함께 농민조합의 재건을 도모, ‘북삼면농민조합 재건위원회’ 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왜운리 책임자로 활동하다 다시 1937년 2월 체포되었음. 이 사건으로 정의찬은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7년 4월 30일 함흥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어 15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1938년 5월 31일 출소하였음.

▶ 최기한(崔紀漢, 1906 ~ 1940년)

삼척 상장 혈 82 출생. 포상 훈격 : 건국포장

최기한은 1930년 천지중앙명류도(太極敎)에 가입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한국 독립을 주창하였음. 태백산, 금강산 등지를 이동하며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제를 거행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음. 이로 인해 그는 일경에게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다 옥중에서 사망하였음.

▶ 최대희(崔大熙, 1907 ~ 1976년)

삼척 북삼 왜운 340 출생. 포상 훈격 : 건국포장

최대희는 1929년 삼척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사회개혁운동에 앞장섰고, 1933년 10월 조직된 왜운농민조합의 연락선전부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음. 1935년 10월 3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동년 11월 7일 형이 확정되어 출옥하였음.

▶ 최윤달(崔潤達, 1911 ~ 1970년)

삼척 북삼 왜운 392 출생. 포상 훈격 : 건국포장

1928년 삼척청년동맹에 가입한 최윤달은 청년운동을 전개하며, 1931년 4월부터 1년간 북삼면 삼화리 소재 명화학원(明和學院)의 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계몽에 힘을 쏟았음.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K회의 일원으로 활약하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음.

▶최춘희(崔春熙, 1911 ~ 1951년)

삼척 북삼 이도 207 출생. 포상 훈격 : 건국포장

최춘희는 사립이도학원(私立梨島學院)의 야학에서 수학하던 중 1928년 삼척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음. 1933년 10월 조국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여운농민조합을 결성하고, 삼척지역 노동운동·농민운동·사상운동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던 K회의 일원으로 활약하였음.

나. 삼척을 빛낸 정치인(공무원 포함)

(1) 삼척을 빛낸 정치인 현황

<표 6-6> 삼척을 빛낸 정치인 및 공무원 현황

구 분	성 명	주요활동	상 훈	비 고	
국 회 의 원	1선 의원	김우영	7대		
		임용순	2대 민의원		
		장을병	15대	홍조 근정훈장	성균관대 총장
	2선 의원	김진구	제헌의원, 초대 참의원		
	3선 의원	김정남	11, 12, 14대		
	4선 의원	김효영	9, 10, 12, 14대		충북도지사
	7선 의원	김진만	3, 4, 6, 7, 8, 9, 10대		국회부의장
(소계)	총7명				
공 무 원	기초 자치단체장	김동석 ¹⁾	삼척군수, 강릉·속초· 목포·수원시장		육군대령
		심익승 ²⁾	삼척군수		
	광역 자치단체장	홍석표	강원부지사, 전북도지사	홍조 근정훈장 황조 근정훈장	
	장차관	홍성좌	특허청장, 상공부 차관		
	청와대	이원중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청조 근정훈장	동안이승휴사상 선양회 이사장
	경찰	손달용	4대 치안본부장		
	군인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통일장	

	(소계)	총7명		
	합 계	총14명		

주: 1) 김동석 - 함북 명천 출생으로 초대 삼척군수 역임

2) 심의승 - 민족문제연구소(2009) 발간 친일인명사전 관료부문에 수록된 인물임

(2) 삼척을 빛낸 정치인의 주요 활동현황(가나다 順)

▶ 김동석(金東石, 1923 ~ 2009)

함경북도 명천 출생. 군인, 정치가, 행정관료, 기업가

대한광복군 중위, 김구 국민회의 부의장의 행정보좌관 역임. 1949년에 육군 대위 임관했다가 1961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 1961년 제12대 삼척군수, 1963년 강릉시장 겸 속초시장 역임. 1971년 목포시장 1975년 수원시장 역임. 1996년 자유민주연합 고문역임. 슬하의 자녀로는 가수 진미령이 있음. 김서영 삼척읍장이 수해로 인해 피해와 시가지 형성을 위해 남산 절단(오십천 직선화)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자, 당시 김동석 군수가 결단하여 시작되었음. 남산 절단 공사가 김동석 군수의 결단으로 시작해 9년 만에 완공되면서 지금의 삼척 시가지가 형성되어 삼척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음. 1986년 삼척시 변영회는 남산 절단공사를 기념하기 위해 황산 앞 소공원에 ‘오십천수로변경통수기념비(五十川水路變更通水記念碑)’를 세웠음.

▶ 김우영(金宇英, 1921 ~ 1983)

삼척군 신기면 출생. 국회의원

국회의원. 강원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장,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세계인권옹호대회 한국대표 역임. 독학으로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했고,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강원도 춘천시-춘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음.

▶ 김정남(金正男, 1940 ~)

삼척군 출생. 3선 의원

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대구 매일신문 기자, 논설위원, 정치부장 역임 후 1981년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삼척군 동해시 선거구에서 당선되었음. 1985년 1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삼척군 동해시 태백시 선거구)하였고, 1992년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되었음. 당선 직후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여 원내 총무를 지냄. 자민련 부총재 역임.

▶ 김진구(金振九, 1906-1987)

삼척출신. 재선의원

제헌의원들과 초대 참의원을 지낸 재선의원으로 해방이 되면서부터 정계에 진출하여 반독재활동에 힘썼음.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의 지부장을 거쳐 제헌의원에게 당선되어 산업위원으로 있으면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음. 이후 한민당(韓民黨)에 입당하여 당무위원이 되면서 부터 본격적인 정당 활동을 시작, 부산 정치파동 때에는 검거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음. 민권수호를 위하여 재야생활을 수년간 하면서 민주당(民主黨)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강원도 민주당 책임자로 반독재투쟁을 계속하였음.

▶ 김진만(金振晩, 1918 ~ 2006)

삼척군 북평읍 출생, 7선 국회의원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 고등상업학교 졸업. 이후 금융조합 및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해방 후에는 삼척개발 북삼화학공업소 자치위원장, 상무이사, 이사장 등을 역임. 1954년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정계 입문 이후 삼척군 지역구에서 제4·6·7·8·9·1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되었음. 1967년에는 공화당 원내총무로 임명되어 1971년까지 역임. 1973년 유신정우회 소속으로 제9대 국회의원이 되었음. 같은 해 제9대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어 3년 간 역임. 정당정치 외에도 언론·육영·문화 분야에서 활동하여, 1957년 제2대 강원일보 사장을 맡았고, 1969년 현대그룹 정주영, 전 교통부장관 김일환 등과 함께 금강장학회를 설립하였음. 1975년 동곡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을 추진하였음.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2001년 6월부터 민족중흥회 회장직을 맡아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을 주관하였음.

▶ 김효영(金孝榮, 1923 ~ 2006)

삼척군 출생. 충북도지사(1966-1969), 대한석탄공사 총재 역임. 4선 국회의원.

1973년 제9대 국회의원(강릉 명주 삼척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당선된 후에 1978년 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음. 1985년 12대 국회의원(동해 삼척 태백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당선 직후 한국국민당에 입당해 한국국민당 부총재가 되었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동해 삼척 태백지역구) 선거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사무총장에 임명되었음. 이후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역임하였음.

▶ 손달용(孫達用, 1932 ~ 2020)

삼척 근덕 출신

해경부대장, 강원·경기·전남도경국장, 치안본부 정보과장등을 거쳐 4대 치안본부장 (1978 ~ 1980) 역임

▶ 심의승(沈宜昇)

군수

『삼척군지』(1916) 편찬. 일제강점기에도 삼척읍지의 맥을 이어줌. 1918년 군수 심의승이 죽장사 자리에 있던 삼척공립보통학교(현 삼척초등학교)를 현재의 향교 옆으로 이전 사업 추진.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관료 부분에 수록됨.

▶ 엄현성(嚴賢聖, 1958 ~)

삼척군 원덕면 출생. 해군참모총장

삼척고-해군사관학교-국방대학교- 숭실대학교 석사학위-경남대학교 박사과정. 1981년에 해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전남함장과 합참 해상작전과장, 해군참모총장 비서실장,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해기지사령관을 지냈고 2010년 소장 진급 후 제2함대사령관을 역임함. 해군본부 인참부장을 거친 뒤 2013년에 중장 진급하여 해군참모차장에 올랐음. 2015년 해군참모본부 차장, 2016년 대장에 오름. 2016년 제32대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되었고, 2018년 예편한 뒤에는 오산대학교 석좌교수에 임명되었음. 상훈: 2006년 대통령 표창, 2011년 보국훈장 천수장, 2018년 보국훈장 통일장 등.

▶ 이원종(李源宗, 1939 ~)

삼척군 출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학력: 삼척초-삼척중-경복고-고려대 졸업. 1993년 공보처 차관 및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1993-1997) 역임. 1974년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공보비서로 활동. 이후 신민당 중앙상무위원 역임. 1980년 정치규제를 당하였다가 1984년 해금되었음.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보처 차관을 역임. 같은 해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음. 정무수석 시절 누가 김영삼 대통령의 옥이라도 하면 곧잘 핏대를 세우곤 해선 ‘혈죽(血竹) 선생’으로 불리기도 했음. 현재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이사장과 (사)우리누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저술활동: 『새로운 중국과 한국』(나남, 2002), 『국민 참여시대의 한국정당』(나남,

2006), 「中國의 對 韓半島政策과 21世紀 韓·中 關係」(2002), 「한국정당의 공직후보자선출 제도 민주화에 관한 연구」(2005) 등이 있음. 수상내역: 청조근정훈장(1997).

▶ 임용순(任容淳, 1908 ~ 1989)

삼척 출생. 민의원
면서기 2년, 경찰관 3년의 경력을 가지고 국민운동과 청년운동에 종사하였으며, 한청(韓靑) 삼척지단장(三陟支團長)을 거쳐 제헌의원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고, 2대 민의원(대한청년당)에 당선된 초선의원임.

▶ 장을병(張乙炳, 1933 ~ 2009)

삼척군 원덕면 옥원리 출생. 교수, 총장, 국회의원 역임
호산초-삼척중-삼척공업고등학교-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동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교육자이자 정치인. 19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국민투표를 비판하는 글을 『신동아』에 발표하였고, 이후 민주화 활동에 뛰어들었음.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980년에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구금되었다가 강제로 해직되었음. 1984년 성균관대학교에 복직된 뒤에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지냈음. 1995년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와 제15대 삼척시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7년 국민신당 창당준비위원장,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등을 역임하였음. 2001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을 사퇴하면서 정계 은퇴함. 이후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사)동안이승휴기념사업회 회장,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2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지냈음. 저서: 『한국정치론』, 『옹이 많은 나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여』, 『민주주의와 언론』, 『정치적 커뮤니케이션론』, 『커뮤니케이션과 정치발전』 등 다수. 수상: 월봉저작상(1979), 심산학술상(1989), 흥조근정훈장(1982).

▶ 홍석표(洪晳杓, 1931-1993)

삼척 출생. 강원도 부지사, 전라북도 도지사 역임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경기도 성남시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내무부 감사관, 대구직할시 부시장,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부지사,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내무부 차관보, 전라북도지사를 역임. 공직에 있는 동안 그는 선진국의 영농기술 도입, 도시계획·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농어촌 및 도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강원도 부지사 재임 시에는 설악산

오색온천 개발과 동해안권 해수욕장 관리 개선 등 강원도의 관광 활성화와 축산진흥에 크게 공헌하였음. 1986년에 전라북도 도지사에 부임하여 김제·임실지구 공장 건립 등 공단 증설을 통해 공업화 촉진과 종합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자동차공장 유치,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금강권 종합개발의 대역사와 국립공원의 관광개발 촉진 등 다양한 공적을 남겼음. 수상: 홍조근정훈장(1982년), 황조근정훈장(1989년).

▶ 홍성좌(洪性佐, 1932 ~)

삼척출신

강릉농업고등학교-서울대 법대

상공부 수출진흥과 과장, 상정과 과장, 공단 관리청 국장, 대통령비서실 상공담당 비서관, 특허청장을 거쳐 상공부 차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한국 도심공항터미널 사장 역임.

다. 삼척을 빛낸 경제인

(1) 삼척을 빛낸 경제인 현황

〈표 6-7〉 삼척을 빛낸 경제인 현황

구 분	성명	주요활동	상 훈	비 고
대기업집단 임원	최지성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부회장	금탑 산업훈장	
상장회사 창업주 및 임원	김대기	신세기통신(주) 대표이사		
	김동연	일양약품(주) 대표이사	장영실장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신약개발연 구조합 이사장
	손도익*	경동그룹 회장, 원진그룹 회장	석탑 산업훈장 산업평화상	
	우용해	쌍용그룹 회장		경제기획원 차관보
	이양구*	동양시멘트 회장	은탑 산업훈장 국민훈장 모란장 산업포장	
향토기업	설도식*	삼화제철(주) 설립자		

창업주 및 대표자	채기업*	흥국관광 설립자 및 대표자		
	채현국*			
기타	김진원	정라 최초 사설시장 (중앙염매소) 개설자, 농협 초대 조합장		
합계	총10명			

주: “*” 표시 인물은 타지역 출신으로 삼척 지역에서 의미있는 경제활동을 수행한 인물임 (손도식: 경북 경주, 설도식: 함남 단천, 이양구: 함남 함주, 채기업·채현국: 경북 대구)

(2) 삼척을 빛낸 경제인의 주요 활동현황(가나다 순)

▶김대기(金大起, 1947 ~)

삼척 출생. 신세기통신 대표이사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72년에 ㈜유공에 입사해 부사장을 역임하고 2000년 신세기통신 대표이사를 거쳐 2004년 유진그룹 부회장을 맡았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냄. IMF경제위기 이전부터 SK의 인력·조직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대통령 자문 교육 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을 맡아 노동 및 교육과 관련된 국가정책 수립에 자문역할을 수행함.

▶김동연(金東淵, 1950 ~)

삼척 출생

한양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공학 박사. 1976년 일양약품 입사하여 소화제양 치료제 놀텍과 백혈병 치료제 IY5511 등을 개발함. 일양약품 중앙연구소 부소장과 전무이사를 지낸 후 2008년 일양약품 대표이사 부사장, 2009년 일양약품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대표 이사 사장을 맡고 있음.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신약개발 공로로 2009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신약개발 대상을,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오송 신약대상을 받았음.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복지부 과학기술처 국책과제 총괄연구책임자를 지냈고, 2004년부터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자문위원을 맡고 있음. 2010년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수석부회장, 2012년 한국제약협회 바이오분과 위원장, 2013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음. 2014년에는 장영실상을 받았고, 2015년에는 혁신형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했음.

▶ 김진원(金振元 1911 ~ 1996)

삼척군 삼척읍 정하리 108번지 출생

1922년 개인이 운영하는 글방인 사숙(私塾)에서 한문을 공부하다가 삼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 3월 보통학교 졸업 후 1932년까지 3년여 동안 삼척읍 면서기로 근무하고 사퇴, 지역사회 일을 시작함. 1936년에는 어유비 제조공장을 세웠으며, 1937년 정라진 최초의 사설 시장인 중앙염매소를 개설하였음. 이듬해인 1938년에는 김원상사(金元商事) 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고, 수산 선진지(先進地) 시찰을 위하여 일본을 살피고 돌아왔음. 이후 삼영수산(三榮水産)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고, 수산 선진지 산업 시찰을 위하여 만주국 등을 다녀온 후 수시로 전국을 순회하였음. 1941년 중국상해수산모집회사 고문에 추대되었고, 1941년 12월 25일 삼척 시내에서 처음으로 인력거(人力車) 사업을 시작하였음. 1943년 8월 19일에는 삼척 경찰서장의 인가를 받아 정라 사설 시장을 개설하였음. 1945년 4월 30일 정하리 정회장(町會長)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석 달 반 뒤에 광복을 맞이하여 9월 1일 재실시한 이민총선거(里民總選舉)에서 다시 이장에 뽑혀 5년 동안 마을 일을 돌보았음. 1947년에는 육향정, 척주동해비각, 우전비각(禹篆碑閣)[대한평수토찬비]의 건립을 발의하고 총지휘 책임 감독을 맡아 보았음. 교육·문화 분야로는 1948년 삼애유치원을 설립하여 원장에 취임하였고, 1949년 병·의원이 없던 정라진에 3개의 병의원을 유치하였음. 정라진에 1957년 향도극장(가설극장 형태)을 설립하면서 가설극장이 아닌 제대로 된 극장이 들어오도록 유도하였음. 1960년 4월 정라극장이 들어서자 향도극장 터에 삼척 최초로 탁구장과 당구장을 겸한 간이 골프장인 향도오락장을 개설하였음. 1963년 10월 31일에는 삼척 지역 한학자들에게 의뢰하여 육향정·척주동해비각·우전비각의 기문(記文)을 짓고, 서예가 최종희(崔中熙)(1896 ~ 1990)의 글씨로 동해비(東海碑) 현판을 제작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걸도록 하였음. 삼척 상공회의소 창립의원과 정상리동 농업협동조합을 창설하여 초대 조합장에 취임. 1984년에 정라진의 100년 역사가 오롯이 담긴 『육향정』을 출판하였음.

▶ 설도식(薛道植, 1915 ~ 1975)

함경남도 단천 출생. 삼화제철 설립자

해방 후에 정부는 일제가 경영하던 적산(敵産) 기업인 고레가와제철(是川製鐵)을 삼화제철(三和製鐵)로 회사명을 바꾸고 귀속기업체로 관리하였음. 1948년 삼화제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상공부 산하로 편입되었고 1951년 국영기업체 삼화제철공사로 전환하였음. 일제강점기 말에 가수로 활동해 1936년 빅터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가 되어 1938년 10월까지 21개의 음반을 냈음. 대표곡은 ‘애상의 가을’ ‘달려라 호로(포장)마차’ ‘헐어진 쪽배’ 라고 전함. 해방 후에 사업을 시작한 설도식은 1958년에는 범한무역(주) 사장으로 자본금 2억 환으로 대한민국 최초 민간 제철인 삼화제철(주)을 설립하였음. 1964년에는 인천제철주식회사를 발족시키고, 철강공업에 상당한 의욕을 갖고 한국제강 대표이사로 활동을 했지만 여러 악조건과 부실관리로 말미암아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음.

▶ 손도익(孫道翼, 1921 ~ 2001)

경상북도 경주 출생. 원진그룹 회장

손도익은 기계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 향리서당에서 한학을 이수했으며 12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문물을 넓혔고 1940년에 귀국하여 영농에 전념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피난하여 1951년 무산연탄공장을 설립하였음. 당시 화목이 주연료이던 것을 석탄 연소통을 개발하여 땀감의 변혁을 이끌었고 부산환도로 연탄수요가 급증됨에 윤탄식 제조기로 신품을 일으켰으며 1967년 10월 왕표연탄을 창립함. 이어 흥국탄광을 인수하여 1974년에 경동탄광으로 명명함. (주)경동보일러, (주)경동도시가스 등 10개 회사를 설립했음. 1983년 손도익이 탄광작업 중 매몰사고로 사망한 광부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5천여평의 대지를 매입, 수십억원을 투입해 도덕정사를 설립하였음. 대한석탄협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도덕정사에는 삼척군민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음. 대통령상(1971, 1978, 1995, 1998), 석탄산업훈장(1983), 산업평화상(1991) 등 수상.

▶ 우용해(禹容海, 1925 ~ 2011)

삼척 출생. 쌍용 회장

학력: 경북고-서울대 상대-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석사학위 취득. 1954년 재무부 세관 사무관에 부임한 것을 시작으로 경제 관료의 길을 걸은 그는 1968~70년, 74~75년 두 차례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역임하면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음. 75년에는 한국플라스틱 사장, 쌍용 사장, 쌍용 회장 등을 역임함. 대일청구권 경제협력사절단 구매부장과 사절단 단장 겸 주일 공사를 지내면서 경제발전 초기 일본 자본 유치에 힘썼음.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한·베네수엘라, 한·스위스경제 협력위 위원장직을 맡아 민간외교사절로도 일익을 담당하였음.

▶ 이양구(李洋球, 1916 ~ 1989)

 함경남도 함주 출생. 동양세멘트 설립

이양구는 1951년 삼양물산공사를 설립하여 설탕·소맥분을 수입, 판매하던 중 1952년 국제시장 화재로 재산이 전소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번창하여 ‘설탕왕’이라는 별칭을 받았다. 1953년에 풍국제과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54년 한국정당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일제당 설탕을 독점 판매하는 한편, 같은 해 삼양제당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듬해 제일 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 적산기업인 삼척시멘트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시멘트 사업에 진출하였고, 1957년 동양세멘트공업(주)으로 상호를 바꾸면서 연간 8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멘트 제조 회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음. 인수 직후 공장 북서쪽 언덕에 ‘육경단(六慶壇)’이라는 비각을 건립하고 삼척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곳부터 찾았다고 함. 설립 후 지속적인 생산시설확장을 통해 1959년에 연간 생산능력 18만 톤, 1961년에 38만 톤, 그리고 1967년에는 100만 톤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내 최대 시멘트 메이커로 등장하였음. 1975년에는 300만 톤으로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였음. 1976년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고 부산공장을 준공하였으며, 1978년에는 5차 시설확장공사를 통해 연간 생산능력을 400만 톤으로 확장하였음. 1979년에는 동해공장을 준공하였음. 1975년 동양산업공업주식회사를 설립, 1976년 동양상선주식회사의 회장에 취임하였음. 1977년 동양종합공업주식회사 회장에 취임하였고, 동양광공주식회사와 동양상운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 1985년 국일증권주식회사를 동양증권주식회사로 개명하였고, 1987년 동양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음. 1950년대 말 정부는 삼척읍내를 관류하는 오십천(五十川)의 물길을 변경하는 하천부대공사를 동양시멘트에서 진행해 줄 것으로 요청함. 잦은 수해를 방지하고 10만여 평의 주택용지와 농경지 및 공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였으나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이양구는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1961년에 당시 삼척군수 김동석(金東石) 씨와 함께 공사시공계약을 체결, 2월부터 남산 절단공사에 들어갔음. 공사에 동원된 인부는 삼척군수가 지정한 실업자 직업안정소를 통해 채용했으며, 이들의 거의 대다수가 구호대상자였음. 동양시멘트는 8년에 걸친 남산 절단공사로 생겨난 부지를 삼척시에 헌납했으며, 이때 만들어진 부지는 지금의 삼척 시가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음. 이양구가 삼척에서 시멘트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삼척은 풍부한 자원과 삼척화력발전소로부터의 동력을 쉽게 확보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바다를 끼고 있어 해상운송의 편리하다는 이점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또 다른 이유는 ‘남을 이롭게 하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해야만 하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자신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함. 후일 이를 두고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도 무언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없을까 하는 걸 늘 생각해 왔다. 도로와 항만 그리고 전후 폐허가 돼버린 주택 등 모든 분야에 시멘트는 필수불가결의 상품이었다. 나는 만 가지 어려움(萬難)을 배제, 이를 위해 생애를 바치는 데 조금도 후회가 없음을 자신했다”고 함. 1987년에 삼척시에 서남장학재단(瑞南獎學財團, 현 오리온재단) 설립하였고, 1989년에 사망 후 죽어서도 동양시멘트를 지켜보겠다는 그의 유지에 따라 무덤을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건너 육경당 바로 옆에 안치함. 저서 : 1969년 동양철학과 경영론을 담은 『문

제와 사색』이 있으며, 1973년 세계여행의 견문과 감회, 세계관 등을 담은 『제헌(濟憲)의 세계』 등이 있음. 수상 : 1966년 모범상공인으로 경제기획원장관상과 5·16민족상 수상. 1981년 제22회 3·1문화상과 1985년 성실납세유공자로 산업포장. 1987년 제14회 상공의 날에 유공상공인으로 은탑산업훈장 수상. 1989년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채기엽(蔡基葉, 1907 ~ 1988)과 채현국(蔡鉉國1935 ~)

채기엽은 1956년에 흥국탄광을 설립하고, 도계와 사북 일대의 탄맥을 개발하여 일약 굴지의 광업가가 되었음. 사북탄광을 개발할 때 큰 역할을 하였고 이를 기념해 사북역 광장에 ‘채기엽 선생 공덕비’가 세워져 있음. 채현국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60년 중앙방송(현 KBS) PD로 입사했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권력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하며 사직하고 부친 채기엽과 함께 강원도 삼척시 도계에서 흥국탄광을 운영, 한때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의 거부가 되었음. 당시 광부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무상으로 치료를 해 주었음.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자 ‘군사정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해’ 사업을 정리했고, 이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본인 소유의 탄광을 직업들에게 분배했으며, 한 때 민주화 인사들에게 도피처와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음. 부친 채기엽의 호인 효암(曉巖)을 따서 1988년에는 효암고등학교와 개운중학교를 세우고 학교법인 효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함. 재산 환원 후 월급을 받지 않는 효암학원 이사장과 대한북레터협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2014년 새해에 한겨레와의 인터뷰로 인해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지고 호응을 얻게 되어 이 시대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존경 받는 멘토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음. 채현국 어록 : “상을 받는 아이들은 상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덕분에 상을 받는 것이다.” “젊어서 잘 놀아야 늙어서도 잘 논다.” “재산은 세상 것이다. 이 세상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잘한 것뿐이다. 그럼 세상에 나눠야 해, 그건 자식한테 물려 줄 게 아니다.” 채현국 별명 : 건달 할배, 나무 할아버지, 풍운아 등.

▶최지성(1951 ~)

삼척 사직동 출생

학력 : 서울고-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1977년 삼성에 입사 후 2006년 삼성전자 TV가 세계 1위에 오르게 한 공로로 2010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에 올랐음. 이견희 회장이 활동하던 2012년 6월부터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역임. 현재 삼성전자를 만든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음. 그가 삼성전자에 있던 시절 내놓은 ‘보르도’ TV 시리즈를 통해 삼성전자는 34년 만에 TV 시장 매출 세계 1위를 차지했음. 휴대폰 시장에서도 ‘애니콜’의 성공으로 삼성이 노키아를 추적할 발판을 마련했음. 이후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탄생을 이끌어내 삼성전자를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드는데 보탬을 줌. 1987년 제24회 무역

의 날 대통령 표창. 2006년 전자의 날 훈포상 금탑산업훈장. 2009년 한국통신학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정보통신대상’ 을 수상. 2009년과 2012년 매경이코노미가 선정한 ‘올해의 CEO’ 선정. 2011년 삼성전자가 650억 달러 수출탑을 쌓는데 크게 공헌함.

라. 삼척을 빛낸 문화예술인

(1) 삼척을 빛낸 문화예술인 현황

〈표 6-8〉 삼척을 빛낸 문화예술인 현황

구분	성명	주요활동	상훈	비고	
문 학	시 인	김영준 ¹⁾	삼광고등공민학교 설립, 동예문학회 창립, 삼광장학회 설립, 제2대 삼척문화원 원장	새마을훈장 근면장	교육자
		김종욱	시집(한인촌, 남무성) 발간, 두타문학회 초대회장		
		장영철	아동문학가, 월간아동문학 등단, 솔바람동요문학회 회장	제6회 MBC창작동요제 동상, 1989년 월간아동문학 신인문학상, 1996년 국악동요제 대상	교사
		진인탁	한국외교협회 사무국장, 삼척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시집(자화상, 정터, 처성, 연금을 타고) 발간		외교관 교수
		최인희	문예(낙조, 비개인 저녁) 등단, 청포도 동인		교사
	수필가	박종철	영동수필문학회 회장, 한국수필문학가협회 부회장,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시집(은파도), 아버지의 땅, 꿈꾸는 수레바퀴, 촌부의 일기, 시인의 목장	한국수필문학상, 소월문학상, 한국불교문학상, 강원문학상	
		이운자 ²⁾	아동문학가, 아동문학 등단(뽕뽕이)	충청일보 신춘문에 당선(창이가 들은 시계 이야기)	

		이출남	두타문학회 회장, 수필문학 등단			
	소설가	홍영의	소설: 노도, 열사의 풍속, 애정백서, 수필: 사라수초, 인생춘추		교수 승려	
미 술	서양화	민태홍	지두화(Finger Painting), 제32~33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국전) 대상, 제35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국전) 최우수상, 제36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국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한중 환경문화예술제 통일부 장관상, 2016 미국 오바마대통령상 수상(플래티늄어워드)	대한민국 예술공로 대통령표창		
	민 화	이규황	삼척 민화의 시조			
		이종하	이규황의 장남			
		황승규 ³⁾	문자도, 산수민화, 불화			
	조 각	홍순태	삼척예총 회장, 홍순태조형연구소 소장	2012년 강원도문화상(전시 예술부문), 2016년 중국 산둥성 인민우호사자 선정, 2018년 제23회 중국 하얼빈세계눈조각대회 3위 입상, 제18회 삿포로 세계눈조각경영대회 대상		
	서 화	김영경	추사체, 행서			
		심지황	오지재력필법, 계남송집, 금란정, 금란회우도, 천은사기실비			
이희수 ⁴⁾		남종화의 대가, 설경산수도, 진동루, 포토아문				
최중희		서도예술가, 필적: 척주동해바각, 관해정, 용산서원				

		홍낙섭	만재집, 강회계록		
역사 문화	향토사	김일기	강원도 문화재위원, 삼척문화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교수
		김정경	삼척교육장, (국한문 혼용체) 삼척향토지 발간		
		박재문	삼척향토문화연구회 초대회장, 삼척군지 편찬, 시집(고도 삼척) 발간		교육자
		최만희	척주지, 삼척교지, 진주지 편찬		
		홍종범	화서학과, 삼척교지, 진주지 편찬		
종교	승려	상월원각 대조사	천태종 초대증정(속명: 박준동, 법명: 상월)		
음악	가수	권혜경	서울중앙방송국 제2기 전속가수, 산장의 여인, 첫사랑의 회원, 동심초, 호반의 벤치, 물새우는 해변	제34회 세계인권의 날 인권옹호 유공표창	
건축	건축가	강병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연구원장,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총괄계획단장		교수
합계		총27명			

주: “1)~4)”의 표시 인물은 타지역 출신으로 삼척 지역에서 의미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한 인물임(1)김영준 - 강원 춘성 출생, 2)이윤자 - 서울 출생, 3)황승규 - 경북 평해 출생, 4)이희수 - 평남 상원 출생]

(2) 삼척을 빛낸 문화예술인의 주요 활동현황(가나다 順)

▶강병근(1952~)

도계 출생

학력 : 건국대 건축학과 졸업 및 동대학 석사, 베를린공과대학교대학원 건축으로 공학박사 학위 취득.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및 동대학 건축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강병근이 건교부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초안을 만든 노인·임산부·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제정, 공포되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하철 곳곳에 환승 엘리

베이टर가 생기고 서울시내에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음. 그가 설계한 애광원은 장애인 심리 치료를 고려해 집 어디서나 앉든 누든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함. 제주 에코랜드, 가평 뿌띠프랑스, 거제 외도 해상공원 등 친자연주의 및 인간 중심의 건축설계로 유명함. 저역서로는 『베리어 프리 건축·도시 계획론』 『1900년 이후의 근현대건축 1,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등이 있음.

▶ 권혜경(權惠卿, 1931 ~ 2008)

삼척시 출생. 본명 권오명

삼척시에서 세무서원이던 아버지의 2남4녀 중 넷째로 태어남. 1956년 서울중앙방송국 제 2기 전속가수로 입사 후 1957년 ‘산장의 여인’ 을 불러 유명해짐. ‘첫사랑의 화원’, ‘동심초’, ‘호반의 벤치’, ‘물새 우는 해변’ 등을 불러 1950년대 후반 큰 인기를 얻음. 그 후 후두암에 걸려 가수활동을 중단함. 이후 청원군 남이면에 거주하며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을 돌며 재소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수인들 사이에 ‘어머니’ 라고 불렸음. 34회 세계인권의 날 인권옹호 유공포장을 비롯해 500여회 봉사상을 수상함. 2008년 사망 후 청주시에서는 산장의 여인 노래비를 건립함.

▶ 김영경(金英卿, 1908 ~ 2001)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출생. 서화가

자는 시영(時英), 호는 동우(東愚). 김영경은 최중희(崔中熙)에게서 3년 정도 공부하였고, 심지황(沈之潢)에게서 10년을 공부하였음. 두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지만 심지황에게 더 비중을 두고 글씨 공부를 하였음. 김영경은 이희수(李禧秀)의 추사체를 이어받아 이 지역 서예의 맥을 지켜 왔음. 김영경의 글씨는 붓의 강약, 고저, 음양오행의 배합이 달인의 경지를 넘어 강건하고 단정하며 함축미도 지녔음. 그는 오체(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팔분체, 묵화를 골고루 갖추었음. 특히 행서가 장기이며, 난과 죽을 잘 썼음.

▶ 김영준(金榮俊, 1934 ~ 1966)

시인, 교육가, 문화예술인. 삼광고등공민학교 교장, 삼척문화원장

김영준은 강원도 춘성군(현 춘천시) 동산면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삼척으로 이주하여 삼척국민학교와 삼척공업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하였음. 초창기 삼척문화원 설립에 동참하여 실무를 담당하면서 문화원 사업의 하나인 삼척직업소년학교 설립에 참여하고, 1958년 삼척직업소년학교 후신인 삼광고등공민학교 설립에서부터 1984년 폐교 때까지 26년 동안 교사와 교장으로 봉직하며 사제동행을 몸소 실천하여 1500여 명

의 제자를 길렀음. 김영준은 지역 청소년 교육과 함께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도 기여했는데, 1959년 9월경 박중철, 김정남, 이경국, 정일남 등과 함께 삼척 지역 최초의 문학 동인회 ‘동예(東藝)문학회’를 창립하고 1961년 8월 30일 동예문학회의 동인지 『동예(東藝)』 제1집을 발간함으로써 삼척 지역의 현대 문학이 본격화되었음. 1984년 삼광고등공민학교가 폐교한 이후 소장하고 있던 책을 바탕으로 ‘삼척청소년도서관’과 ‘청소년야간 공부방’을 운영하며 삼척 지역 교육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음.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1985년 7월 15일 새마을훈장 근면장을 수상하였고, 1987년 제1회 삼척시민상(학술문화 부문)을 수상하였음. 1990년 12월 7일 제2대 삼척문화원장으로 취임하여 향토 문화 관련 교양 강좌에 직접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삼척의 문화 및 예술 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열정을 쏟다가 지병으로 1996년 62세로 사망하였음. 문화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1991년 삼척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1992년 ‘시범 문화원 지정’, 199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위원, 1995년 죽서문화제 위원장 등을 지냈음. 김영준의 사후 발간된 유고시집과 산문집의 수익금으로 1997년 삼광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지역 학생 6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가고 있음. 제자들의 깊은 관심과 후원으로 삼광장학회의 기금은 증액되었으며, 삼광장학회와 삼척문화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김일기(金駟起, 1929 ~ 1998)

삼척군 출생, 역사학자, 삼척산업대학교 교수, 삼척문화원장, 삼척향토문화연구원장
김일기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를 졸업하고 1963년 9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강릉·동해·원주 등지의 강릉사범학교, 북평고, 원주고 등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및 삼척산업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음. 1985년부터 1998년까지는 강원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제3대 삼척문화원장을 지냈음. 김일기는 삼척 지역에서 교사, 교수, 문화재위원, 문화원장을 지내면서 삼척 지역의 교육과 문화 및 연구 활동에 많은 업적을 남기는 등 삼척의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 수상 : 1983년 삼척군민상, 1989년 삼척시민상 수상. 1995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음. 주요 논저 : 「한산대첩과 그 영향」, 「영동권 고등교육 발전 연구」, 「이승휴의 생애와 유적」, 『한국사개론』과 『삼척민속』, 『삼척군지』 등 다수.

▶ 김정경(金鼎卿)

1955년 삼척교육장 시절에 김정경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삼척 지역의 향토 문화가 위기에 처했다고 인식하고 지역 문화·경제재건, 군민 자립과 자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국한문 혼용체 『삼척향토지』를 발간하였음.

▶김종욱(金鐘昱, 1932 ~ 2000)

삼척 출생, 시인, 두타문학회 초대회장

김종욱은 시집 『한인촌』(1955)과 『남무성(南無城)』(1980)을 발간하며 삼척 지역 문학계에 기여하였음.

▶민태홍(閔泰泓, 1959 ~)

삼척 원덕읍 옥원리 출생. 호 춘당(春當), 지두화(指頭畵)의 대가

서울대학교(ACP),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1980년대 운보 김기창의 지도를 받아 20년간 동양화에 매진하였고, 이후 한국 전통색상인 오방색을 이용해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유네스코 어린이 국제미술 공모전 심사위원, 2014 프랑스 세계평화 예술인 협회 이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예술 홍보대사 역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특별초대전, 서울특별시의회 특별 초대전, 프랑스 그랑뵈레 앙데팡당 초대전, 프랑스 루브르 카루펠(SNBA) 초대전, 강원춘천 시립미술관 개인초대전 (춘당 민태홍화백 작품전) 등 다수 개최. 수상내역 : 제32회-제33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대상 수상, 2012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수상(예술부문), 제3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최우수상, 대한민국 예술공로 대통령표창(김영삼 前 대통령), 2015년 제36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6년 한중 환경문화예술제 통일부 장관상 등 다수
2016년 삼척시는 고향 삼척을 알리는데 헌신한 노력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함.

▶박재문(朴載文, 1930 ~ 1977)

삼척시 우지동 158번지 출생. 시인, 교육자, 삼일고등학교 교장, 강원도 교육위원, 삼척향토문화연구원장 역임

삼척국민학교, 삼척공업중학교 기계과를 졸업하고 1950년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학도병에 참전하는 등 학업을 순조롭게 이어 갈 수 없어서 7년 만에 대학을 졸업함. 삼척공업고등학교 교사,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 국어과 교수, 삼일중학교 교감 및 교장 등을 역임하며 삼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함. 죽서문화제위원장, 강원도 교육위원회 제7대 교육위원 등을 역임. 삼척 지역 문화를 체계화해서 발굴,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1988년에 결성한 삼척향토문화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 저서로는 1985년에 간행된 『삼척군지』 편찬, 시집으로 『고도 삼척(古都 三陟)』 등이 있음.

▶박종철(1940 ~ 2020)

삼척 출신 수필가. 영동수필문학회장 역임

1960년 시집 『은파도』로 창작활동을 시작해 한국수필문학상, 소월문학상, 한국불교문학상, 강원문학상 등을 수상함. 한국수필문학가협회 부회장,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두타문학회 고문을 역임. 저서로 『아버지의 땅』, 『꿈꾸는 수레바퀴』, 『촌부의 일기』, 『시인의 목장』 등이 있음.

▶ 상월원각대조사(上月圓覺大祖師, 1911 ~ 1974, 속명: 朴準東, 법명: 상월)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출생

천태종 재건하여 초대 종정

1945년에 소백산에 구인사를 창건하여 천태종 재건. 1967년 정부에 천태종 등록. 초대 종정에 취임

▶ 심지황(沈之潢, 1884 ~ 1964)

삼척도호부 건박면 단곡(현 동해시 북평동 단곡) 출생. 서예가

심지황은 어려서 큰아버지인 심진하(沈鎭河)에게 수학하였고, 15세부터 20세까지 5년 동안 이희수로부터 서화를 배웠음. 이희수 사후에는 그의 수제자인 홍낙섭(洪樂燮)을 약 2년 동안 사사하였음. 심지황은 모든 서체에 능하였으며, 특히 다섯 손가락 모두를 사용하여 붓을 쥐는 오지재력필법(五指齋力筆法)을 구사하였음. 저술과 작품으로는 북평팔경(北坪八景)과 북평팔영(北坪八詠)을 읊은 『계남송집(桂南松集)』을 비롯해 무릉계곡의 ‘금란정(金蘭亭)’ 현판글씨, 무릉반석의 ‘금란회우도(金蘭會友圖)’ 등이 있음. 천은사(天恩寺) 입구에 있는 ‘천은사기실비(天恩寺記實碑)’ .

▶ 이규황(李圭璜, 1868 ~ 1926)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출생, 삼척 민화의 시조

연호(蓮湖) 이규황은 이희수의 영향을 받은 민화 작가로, 삼척을 중심으로 민화 양식을 형성하게 한 핵심 인물임. 이규황은 할아버지 때 울진 평해에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로 이주하였고, 삼척 지역에서는 ‘이초시 노인’ 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음. 이규황의 대표 제자로는 아들 이종하, 손자 이영우, 석강 황승규 등이 있음. 이규황은 1926년 유행성 질병으로 사망한 후 화장한 뒤 묘는 조성하지 않고 삼척시 근덕면 부남2리 뒷산에 연호모옹유허비(蓮湖耄翁遺墟碑)를 세웠음.

▶ 이윤자(李允子, 1938 ~ 1975)

서울 출생. 아동문학가

서울에서 출생했지만 유년기와 젊은 시절을 삼척에서 보냄. 1956년 삼척여고를 졸업하고 대전여자초급대학 보육과를 거쳐 명지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음. 1950년대 말에 삼척 성내동에 있던 감리교회 내의 유치원장을 지냈고, 충청북도 제천에 소재한 유치원에서 근무하였음. 1962년 삼척 ‘동예문학회’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동예(東藝)』 3집에 시 「작은 수첩」을 발표하였음. 1964년 「충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창이가 들은 시계 이야기」가 당선되고, 이듬해에 『아동문학』지에 「뽕뽕이」가 추천되어 등단하였음. 그 후 「농장의 크리스마스 선물」, 「별 아기와 이슬 안경」, 「바닷속 미술관」, 「아기차」, 「안경 낀 고양이」, 「노랑 비둘기」, 「폭폭 기관차」, 「딩동땡 구두병원」, 「페인트 가게 오리들」 등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음. 이윤자의 작품은 동심을 통한 아동 정서의 순화를 추구한 작품으로, 저학년 어린이와 유치원생 대상의 유년동화 장르를 개척하고 정립함으로써 주목을 받았음. 또 작품은 텔레비전 인형극으로도 제작되어 KBS 인형극 「눈사람의 고향」 외 20여 편이 방영되었음.

▶ 이종하(李鐘夏, 1895 ~ 1968)

삼척 출생. 민화작가

이종하는 삼척 민화의 시조인 이규황의 장남으로, 황승규(黃昇奎)와 함께 부친에게서 그림을 배움. 이종하의 작품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친척, 후손, 마을 사람들은 이종하의 작품을 제례용 또는 혼례용 병풍으로 사용하고 있음. 근덕면 부남2리에서는 이종하 집안을 일컬어 ‘병풍 할아버지네 집’ 이라고 함. 이종하는 젊은 시절 고기 잡는 큰 배의 선주였다고 하며, 부인이 일찍 사망하고 사업에 크게 실패한 뒤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였음. 그는 이규황-황승규-이종하로 이어지는 강원도 삼척시 일대 민화 계보상 마지막 인물임.

▶ 이출남(李出男, 1958 ~ 2009)

삼척에서 활동한 수필가. 두타문학회 회장

이출남은 36세 때 『두타문학』 16집(1994)에 「죽어가는 우리의 땅」이라는 작품을 처음 발표하였음. 『두타문학』 19집에 「태국여행기」, 20집에 「오월의 푸름 앞에서」 등 작품 활동을 하면서 41세 때인 1999년 1월 월간 『수필문학』지로 등단하였음. 그해 『두타문학』 22집에 「아이를 키우며」와 「범재에 올라서」 특집호를 게재함. 『두타문학』 23집에 「세대 차이」를 발표하는 등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면서 49세 때 『두타문학』 30집(2007년)에 두타문학회장으로서 「지역에 빛나는 별이 되길」이라는 머리글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을 수록함. 『두타문학』 31집에 「전원일기」 32집(2009)에 수필 「아이를 키우며」와 「두타문학 40주년 자축」 머리말이 유고 글이 되었음.

▶ 이희수(李喜秀, 1836 ~ 1909)

평안남도 상원군 출생. 삼척에서 활동한 서화가

이희수는 산수화·난초·대나무 그림에 모두 능하였으며, 7세 때 벌써 전(篆)·예(隸)·해(楷)·행(行) 모두 능하였음. 출중한 필법으로 이희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자 문하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서화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함. 김연민(金演民), 한만택, 홍낙섭(洪樂燮), 심지황 등이 대표 제자들임. 이희수는 평양 지방의 서화를 삼척 지방에 접목시킴으로써 삼척 지역 서화계를 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강원도 서화계의 큰 맥이 되기도 하였음. 유작 가운데 남종화풍에 토대를 두고 있는 ‘설경산수도(雪景山水圖)’는 상단에 적힌 제시(題詩)와 함께 독특한 느낌을 주며, 눈 덮인 강 언덕과 침엽수 표현에서도 거친 독특한 필치를 보여 줌. 삼척 지역의 이희수 작품에는 ‘진동루’, ‘포토아문’ 현판액이 있고, 삼척시립박물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음.

▶ 장영철(張營喆, 1947 ~ 2006)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출생, 영동지역에서 활동한 시인이자 아동문학가

삼척공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음. 장영철은 1985년 10월 『두타문학(頭陀文學)』 8집에 시 「어느 일가」를 처음으로 게재함. 1986년 『두타문학』 9집에 소년소설 「남수와 김병장」을 1987년 10집에 신작 특집으로 「이사」 외 7편, 1988년 11집에 동시 「바닷가 아이들」 외 4편이 게재됨. 강릉남강초등학교 재직 때인 1987년 『솔바람』 4월호 통권 28호에 「산골에서 온 아이」를 등재함. 1988년 『월간아동문학』지로 문단에 등단함. 2001년 1월 ‘솔바람동요문학회’ 4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동요 보급에 헌신하다가 2006년 8월 『솔바람』 200호 발간을 앞두고 사망하였음. 시 「어느 일가」 및 소설 「남수와 김병장」 등과 『솔바람』지에 동시 130편, 동요 27편 등 총 157편을 창작하였음. 1988년 『솔바람동요곡집』에 수록된 「언덕에 오르면」, 「아까시아 피는 언덕」이 제6회 MBC창작동요제에서 동상을 받았음. 이듬해인 1989년 『월간아동문학』 6월호에 동시 「늑시하는 아이들」로 신인문학상을 수상함. 1996년 국악동요제에서 작품 「나의 꿈은」이 대상을 수상함.

▶ 진인탁(陳仁鐸, 1923 ~ 1993)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출생, 외교관, 동국대 교수. 시인. 두타문학동인. 삼척향토문화연구회 회장

동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수학.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일본, 대만, 케냐, 필리핀 등의 외교관을 지냈음. 1974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외교협회 사무국장 및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였음. 삼척향토문화연구회 회장을 역임함.

1948년 시인 김지림의 추천으로 『동국시집』 제1집에 ‘토굴’ 과 ‘장터’ 로 문단에 데뷔하여 ‘두타문학’ 동인 및 ‘실직문화’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음. 시집으로는 『자화상(自畫像)』, 『장터』, 『치성』, 『연금(年金)을 타고』 등이 있음.

▶ 최만희(崔晩熙)

최만희는 김희경(金禧卿), 홍용학(洪鏞學) 등과 함께 지리지 『척주지(陟州誌)』(1946년)를 편찬하였고, 심지황, 홍종범 등과 함께 삼척향교 향교지인 『삼척교지(三陟校誌)』(1955년)를 편집하여 간행하였음. 1963년 삼척군 유도회에서 새로운 삼척지리지 간행을 결의하여 최만희와 홍종범이 주도하여 삼척지역의 종합 지리지라 할 수 있는 『진주지(眞珠誌)』를 편집하여 간행하였음.

▶ 최인희(崔寅熙, 1926 ~ 1958)

미로면 내미로리 출생. 교사. 시인.

삼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문과 불경을 공부하다가 대구 대륜중학교를 거쳐 1949년 단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였음. 강릉여자고등학교·강릉사범학교·인창고등학교·숙명여자고등학교 등에서 교편생활을 하였음. 『문예(文藝)』에 ‘낙조(落照)’ ‘비개인 저녁’ 등을 발표하여 문단에서 활동하다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음. 그는 청포도(靑葡萄) 동인으로 『현대문학』에 ‘바위 아래서’, ‘음향(音響)’, ‘평화’, ‘언덕에서’, ‘노방(路傍)’, ‘거리(距離)’ 등을 발표하였음. 그의 시는 동양적 서정을 바탕으로 하되 세심하면서도 함축성 있는 언어를 구사하였음.

▶ 최중희(崔中熙, 1896 ~ 1990)

삼척군 송정동(현 동해시) 출생. 근대 서화가, 호는 석재(石齋)

13세에 소남 이희수에게서 사사하여 조선후기 서도예술(書道藝術)의 맥을 이은 최후의 인물임. 24세 때 흥낙섭의 서당에 들어가 6년 동안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등은 물론 팔분체·추사체 등을 섭렵하였음. 최중희는 송정 애연정 부근의 자택에서 애화당(愛花堂)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음. 최중희의 글씨는 정묘함과 강건함이

있고, 자신만의 서체를 구사하였음. 1984년 10월 삼척문화방송국 주최 서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척주동해비각(陟州東海碑閣), 관해정(觀海亭), 용산서원(龍山書院) 등에 그의 필적이 남아 있음.

▶ 홍낙섭(洪樂燮, 1874 ~ 1918)

삼척군 송정동(현 동해시) 출생, 서화가, 자는 백천(白天), 호는 용대(龍大)·석사(石史)·만재(晩齋)등

12세에 ‘화로’ 라는 한시를 지어 신동으로 불렸음. 어려서부터 송병선(宋秉璿)에게 배우고 성장하여 이희수에게 배웠으며, 함께 공부한 김규진은 홍낙섭의 해서체 글씨를 두고 “동대문 밖에는 자네가 맡게.” 라고 할 정도로 극찬하였다고 함. 시문, 제문, 상량문, 묘비, 행장 등을 기록한 『만재집』과 『강회계록(講會契錄)』이 전함. 홍낙섭은 44세로 요절하여 스승인 이희수의 서체를 따르는 경지에 이르고도 독자 서풍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평을 받기도 함. 홍낙섭의 제자로 심지황, 최중희 등 당대의 명필들을 배출하였음.

▶ 홍순태(洪淳泰, 1960 ~)

삼척 출생. 조각가, 전 삼척예총회장, 현 홍순태조형연구소 소장

삼척고-관동대 미술교육과 졸업. 제2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태백 눈축제 전국 눈조각경연대회 심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삼척 정월대보름제 부위원장, 삼척발전시민연합공동대표, 전국 남근조각 경연대회 심사위원장, 5대 삼척예총 회장 역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념으로 테라코타 인물 흉상 특별전인 '세계 화제의 인물 77인 조각전'을 삼척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였음. 수상 : 2012년 강원도문화상 전시예술부문 수상, 2016년 중국 산둥성 인민우호사자 선정, 2018년 제23회 중국 하얼빈 세계눈조각대회 3위 입상, 제18회 삿포로 세계눈조각경연대회 대상.

▶ 홍영의(洪永義, 1915 ~ 1975)

노곡면 금계리 출생. 교수, 주지스님, 소설가, 수필가.

1931년 근덕공립보통학교 졸업. 1932년 삼척군 영은사에 들어가 불교 공부를 시작하여 1933년 금강산유점사에서 불교를 수학하고 혜화전문학교 불교과를 졸업하였음. 일본으로 건너가 1943년 일본 도요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중앙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 청주대학교 교수로 재임하다가 말년에 경기도 안양 용화사 주지가 되었음. 저술로는 장편 소설 「노도」, 「열사의 풍속」, 「애정백서」 등과 수필집 『사리수초(沙羅樹杪)』, 『인생춘추(人生春秋)』 등이 있음. 「애정백서」는 대구「매일신문」에 연재되어 호평을 받았음.

▶ **홍중범(洪鍾凡, 1905 ~ 1991)**

삼척 출생. 호 송호(松湖)

홍중범은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화서학파(華西學派)의 일원으로 활동함. 김정경, 최만희와 함께 『삼척교지(三陟校誌)』(1955년), 『진주지(眞珠誌)』 등을 편찬함. 홍중범은 1971년 죽서루를 중건하고 나서 '竹西樓重建上樑文(죽서루중건상량문)'을 지었고, 1988년 10월 '당성사적비문(唐城史蹟碑文)'을 썼음.

▶ **황승규(黃昇奎, 1886 ~ 1962)**

경북 평해읍 출생. 삼척 민화의 대표작가. 호는 석강(石岡).

어릴 때 삼척군 근덕면 동막리로 이주해 생활함(묘는 삼척시 동막리에 소재). 황승규는 다재다능하여 칠능(七能)이라 불리었음. 시(詩), 서(書), 화(畵), 기(棋, 장기와 바둑), 주(酒), 재담(才談)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음. 나이 20살에 동네사람들로부터 ‘문장가 어른’ 또는 ‘황문장(黃文章) 어른’ 으로 불릴 정도로 문장력이 뛰어났음. 근대 민화·민속의 대가. 문자도(산수문자도, 책거리문자도, 화조문자도), 산수 민화(소사팔경, 관동팔경), 불화 등을 남겼음. 석강의 민화나 민서는 정형의 화법이나 서법이 기교에 얽매이지 않았고, 흥겨움이 넘쳐 화법이나 서법, 그리고 기교를 넘어선 心法의 화법을 창안하였음.

마. 삼척을 빛낸 체육인

(1) 삼척을 빛낸 체육인 현황

<표 6-9> 삼척을 빛낸 체육인 현황

구 분	성명	주요활동	상 훈	비 고
야 구	운동균	OB베어스 창단멤버, 1982년 한국시리즈 우승주역, OB베어즈 감독		
배 구	진준택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방콕, 테헤란), 고려증권 및 대한항공 감독, 국가대표 감독	2018년 자랑스러운 삼척인상 수상	

<p>육 상</p>	<p>황영조</p>	<p>마라톤 국가대표, 제62회 동아마라톤대회 3위 입상, 199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우승, 1992년 일본 벳푸 오이타 마라톤대회 준우승(한국기록),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우승, 제12회 아시아경기대회 우승,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p>	<p>체육훈장 청룡장</p>	
------------	------------	---	-----------------	--

(2) 삼척을 빛낸 체육인의 주요 활동현황(가나다 順)

▶윤동균(尹東均, 1949 ~)

삼척군 출생. OB베어스 창단 멤버, 등번호 10번

고교 졸업 후 1969년부터 기업은행, 포항제철 등에서 실업야구선수로 활동. 1982년 OB 베어스 창단멤버로 입문 후 타율 0.42를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우승에 크게 기여함. 1989년 선수 겸 2군 타격코치에 임명되었고, 이 해 8월 17일 현역에서 은퇴함. 통상 594경기 출장에 0.285 타율과 277타점 기록함. 1991년 OB베어스 이재우 감독 사임 후 감독 대행 맡았고 1992년에 선수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독에 올랐음.

▶진준택(陳準鐸, 1949 ~)

삼척 출신. 배구 국가대표 감독

학력 : 삼척중 · 고 졸업, 명지대 졸업. 1970년 방콕,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현역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 고려증권(1986 ~ 1998), 대한항공(2008 ~ 2009), 한중대학교 여자 배구부 감독(2001 ~ 2008), 국가대표 감독(1998) 등을 역임하며, 배구 분야에서 고향 삼척을 빛냈음. 2018년에는 자랑스러운 삼척인상을 수상하였음.

▶황영조(黃永祚, 1970 ~)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출생. 마라톤 선수.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 획득.

학력 : 초곡초, 근덕중, 명륜고, 고려대 졸업, 고려대 대학원 이학박사. 1990년 육상 경기에 입문하여 주로 트랙 장거리 종목에 뜻을 두고 단련, 그 해 전국 체전의 5,000m, 10,000m에서 각각 2위에 입상하여 장거리 기대주로 부상함. 1991년 제62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 2시간 12분 35초의 기록으로 3위에 입상하여 마라톤에서의 가능성을 보였음. 1991년 7월 영국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여 2시간 12분 40초의 기록으로 우승함. 1992년 2월에는 일본 벳푸·오이타 마라톤에 참가, 2시간 08분 47초의 대기록(한국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준우승 함. 같은 해 8월 9일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25회 올림픽 대회에서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제패 이후 56년 만에 다시 우승하는 위업을 달성했음. 이어 1994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여 한국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2시간 08분 09초(4위)를 기록하여 건재함을 증명했고, 이 해 10월, 일본 히로시마에서의 제12회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도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내, 국민의 영웅이 되었음.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2000) 역임. 삼척시에서는 황영조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통해 한국 마라톤의 위상을 높인 것을 기념하여 황영조 기념관과 황영조 기념공원을 조성하였음. 1995년부터 매년 ‘삼척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체육훈장 청룡장 추서(1992).

제7장

지역학 연구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방안

제1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방향

제2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체계

제3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전략

제4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연구과제

제1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방향

1 기본 운영방향

-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삼척학연구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성이 운영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삼척학연구센터가 지향해야 할 운영의 방향성은 1)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삼척학 연구, 2)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참여지향적 삼척학 연구, 3)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문제해결형 실천적 삼척학 연구임
- 우선 미래지향적 삼척학 연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고와 기억이 아니라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세대까지도 포함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구하는데 운영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함
 - 지역의 개발 또는 쇠퇴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잊어져 갈 위기에 있는 지역 내 다양한 유무형 자산의 보전과 활용은 물론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산업화 과정에서 약화되거나 상실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성과 시민의식의 강화, 그리고 콘텐츠를 통한 외부지역과의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맞추어져야 함
- 둘째, 공동체 중심의 삼척학 연구는 지역의 쇠퇴와 소멸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가속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의 공동체성을 기억을 통해 되찾고 지역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연구의 방향성이 맞추어져야 함
 - 지역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는 지역성의 기록화에서 출발하고 지역성의 기록화는 기록의 생산주체인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에 가치를 두고 있는 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 중심의 연구가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주요 행위자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셋째, 문제해결형의 실천적 삼척학 연구는 단순히 학문이나 학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수학문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적 연구에

운영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함

- 지역성과 지역정체성을 탐구하는 지역학 연구는 지역침체, 지역소멸 등의 위기상황에서 더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바, 시간과 기억에 가려진 원초적 지역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문제의 해결대안을 탐구하는 실천적 연구가 되어야 함

[그림 7-1] 삼척학연구센터의 기본 운영방향



2 세부 운영방향

- 지역 연구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가 운영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 가지 기본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분야별 운영방향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 및 예산, 인력, 네트워크, 정책 등 4가지 세부 분야별 운영방향은 그동안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설립·운영되어 온 지역학 연구기관에 대한 종합 검토를 통하여 지역학 연구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우선 지역학 연구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및 예산의 안정성 확보, 즉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사업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취약하고 그에 따라 외부 공모과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바, 지역학 연구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한 기관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함
- 둘째, 지역학 연구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임 전문인력의 확충은 물론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인력수급의 원활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학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의 전임 운영인력은 5명 이내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객원 또는 계약직 인력으로 충당되고 있는 바, 일정 수준의 전임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지역학 연구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연구의 지속성 강화가 필요함

○ 셋째, 지역학 연구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학 관련 사업을 둘러싼 협력과 연대의 교류채널 및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개방성 기반의 운영 플랫폼의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학 연구기관의 경우, 지역학 연구기관 및 연구자간 교류나 협력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 대외적으로 소통채널이 막혀 있어 자칫 지역주의와 폐쇄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지역학 연구기관간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넷째, 지역학 연구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학 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간의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공동체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책 마인드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학 연구기관의 경우, 지역학 연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지역학 연구인지에 대한 의식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학 연구에 대한 인식과 강력한 정책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7-1〉 삼척학연구센터의 세부 운영방향

구 분	제약요인	운영방향
조직 및 예산	지자체 예산지원의 한계, 보조사업 의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관련 제도적 기반구축
인력	객원 인력 의존, 전문 연구인력 수급 한계	전임 전문인력 확충, 일자리/일거리 창출 및 정책지원, 인력양성(해설사, 구술사, 로컬 크리에이터 등)
네트워크	정례 교류채널 부재, 지역학의 폐쇄성 한계	온/오프라인 지역학 교류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공공정책	육성/지원 근거 미흡, 기관장의 의지 박약	공공정책과 지역학 연계성의 강화, 기관장의 강력한 정책의지

제2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체제

- 제5장에서 검토되었던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에 대한 대안별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실현가능성과 사업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2개의 대안을 중심으로 조직설계의 측면에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체제를 설계함

1 (1안)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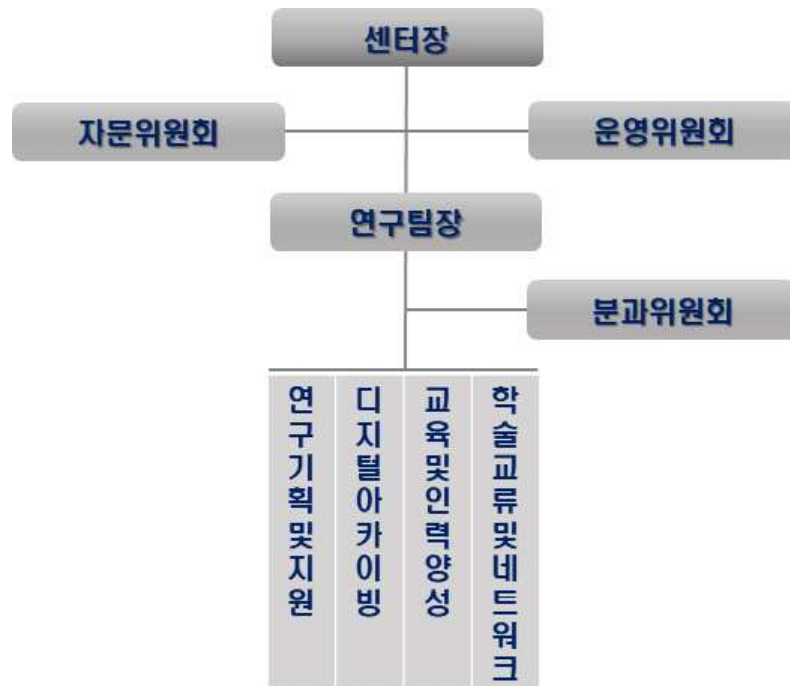
- 설립·운영 예정인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삼척학연구센터를 운영할 경우(1안), 삼척학연구센터는 아래와 같이 삼척문화재단의 하위조직으로 편제·운영됨
 - 이 경우 삼척학 연구기능의 확대 및 통합 운영에 따라 삼척문화재단의 조직 및 인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관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기존 ‘삼척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2017)에 나타난 조직체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즉 삼척문화재단 설립타당성에 관한 기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체계에서 이사장(삼척시장)과 사무국장 사이에 대표이사(상임이사)를 추가하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됨
 - 한편 삼척학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 연구와 교육 기능이 일반적인 문화사업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아닌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구조로 설계함

[그림 7-2] 삼척문화재단의 조직도



- 아울러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내부 조직체계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임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을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연구팀장 직속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조직구조로 설계함
- 삼척학연구센터의 주요 사업은 제5장에서 이미 도출된 삼척학연구센터의 4가지 사업, 즉 1) 연구 및 연구 지원사업, 2)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4)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함

[그림 7-3]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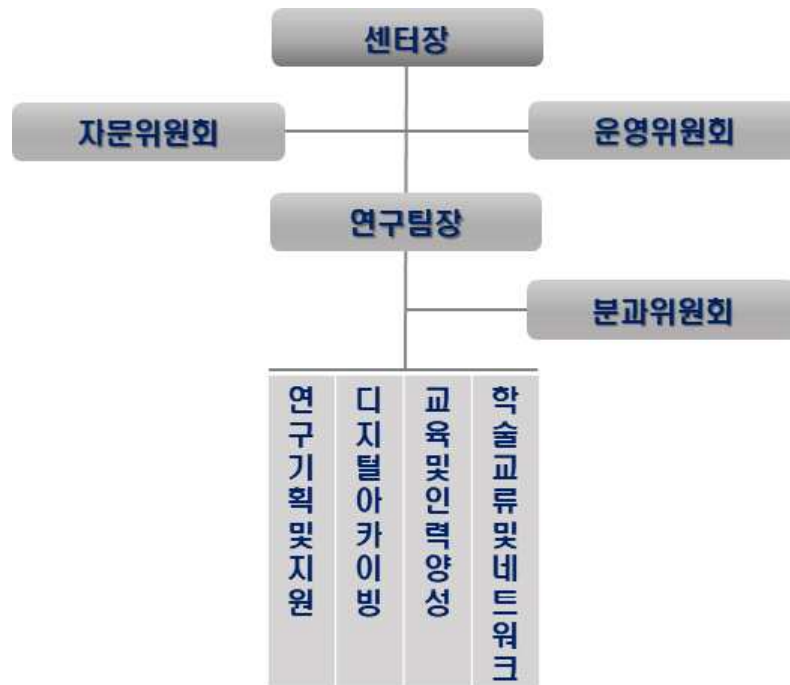


2 (2안)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

- 간접운영방식 중 전문기관인 강원대학교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삼척학연구센터를 운영할 경우(2안), 삼척학연구센터는 아래와 같이 강원대학교의 하위조직으로 편제·운영됨
 - 이 경우 삼척학연구센터는 삼척시와 강원대학교 간의 업무 위탁 계약을 바탕으로 강원대학교 학칙 제33조(부속시설 및 연구소) 및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 제4조(연구소의 구분)와 제7조(연구소의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됨
- 아울러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내부 조직체계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임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을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연구팀장 직속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조직구조로 설계함
 - 삼척학연구센터의 주요 사업은 제5장에서 이미 도출된 삼척학연구센터의 4가

지 사업, 즉 1) 연구 및 연구 지원사업, 2)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4)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함

[그림 7-4]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조직도



- 특히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여러 기관, 즉 삼척시의회, 삼척시, 강원대학교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요구되는 기관별 적용 법규 및 내부 규정이 달라 사업추진 준비단계에서 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과정이 필요함([그림 7-5] 참조)

[그림 7-5]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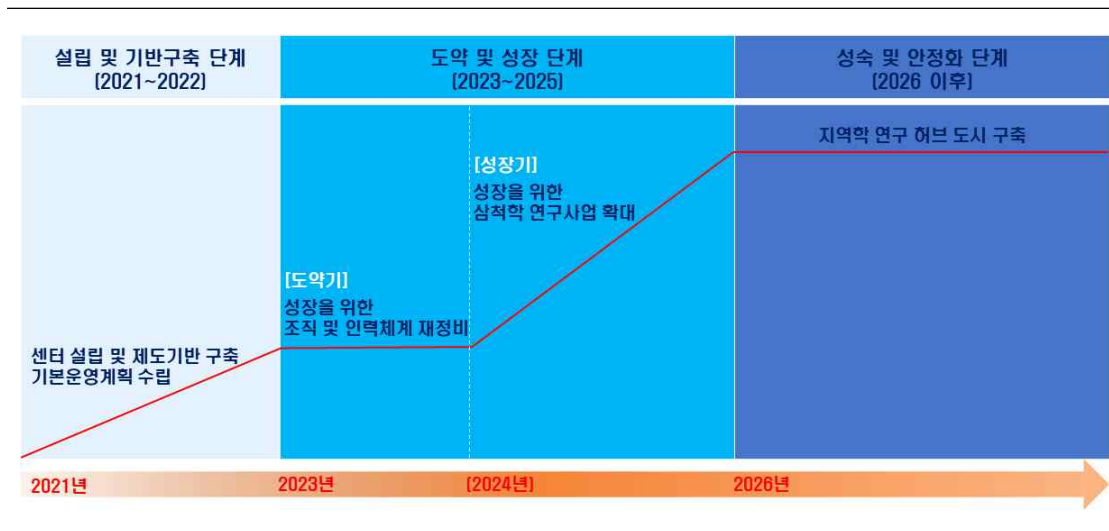


제3절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전략

1 단계별 운영전략

- 삼척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는 삼척문화재단 또는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중 어느 대안으로 사업을 운영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단계별 운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조직구성 및 역할정립을 통한 사업운영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문화 또는 지역학 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성장모형에 따라 삼척학연구센터의 성장단계를 1) 설립 및 기반구축 단계(2021~2022), 2) 도약 및 성장 단계(2023~2025), 3) 성숙 및 안정화 단계(2026 이후)로 구분함

[그림 7-6] 삼척학연구센터의 단계별 운영전략



- 설립 및 기반구축 단계(2021~2022)는 센터의 설립과 업무의 위탁을 준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 그리고 기본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구축을 목표로 설정함
 - 도약 및 성장 단계(2023~2025)는 성장을 위한 조직 및 인력체계의 재정비와 성장을 위한 삼척학 연구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성숙 및 안정화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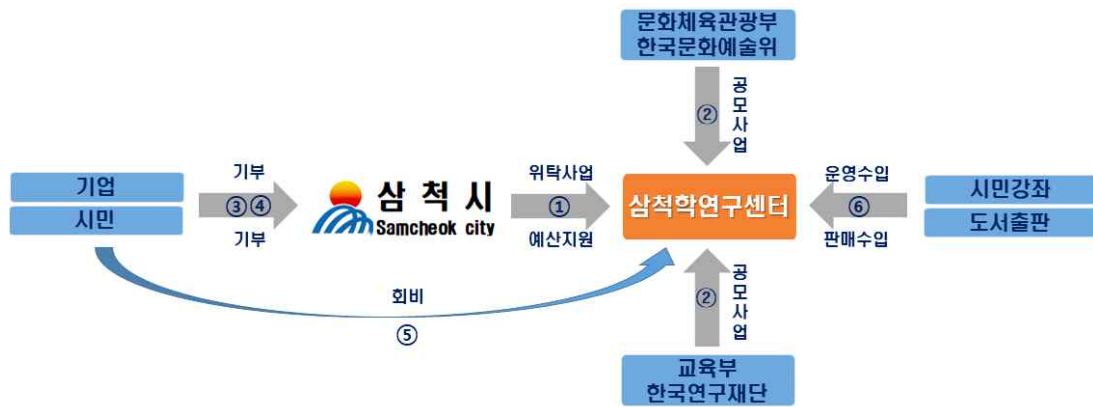
계(2026 이후)는 지역학 연구 허브 도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설정함

② 재원의 확보전략

- 일반적으로 지역학 연구기관의 재원확보방안은 논의의 편의상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6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삼척시의 출연금 및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사업예산 확보(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사업예산 확보(대학교 부설일 경우,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공모사업 포함)
 - 셋째, 삼척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통한 사업예산 확보(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대학교 부설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넷째, 삼척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업예산 확보(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5항)
 - 다섯째, 시민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후원회비 모금(재단 또는 대학 후원회원 제도 운영)
 - 여섯째, 시민 및 기업체 대상 시민강좌 운영 및 지역학 도서판매 수입 등
- 삼척학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전반적으로 삼척시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에 대부분 의존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센터의 설립 및 기반구축 단계(2021~2022)에서는 전체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삼척시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판단됨⁶⁾
 - 그러나 도약 및 성장 단계(2023~2025)와 성숙 및 안정화 단계(2026 이후)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국가예산의 지원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삼척시의 예산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 중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는 1~3억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80%), 3~5억원인 경우가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자체의 지원금과 외부 공모사업 예산을 합친 연간 총예산규모의 경우, 5억원 미만이 전체의 80%, 10억 이상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학 연구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제주연구원 부설 제주학연구센터의 경우, 설립초기인 2012년 6억원, 2013년 7억원, 2014년 8억원, 2015년 9억원, 2016년 이후에는 매년 1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7] 삼척학연구센터의 재원확보 전략



- 주: ① 삼척시 직접예산지원(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②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예산 확보(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③ 지역문예술진흥기금 조성(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④ 지정기부금 모금(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⑤항)
 ⑤ 문화재단 후원회비 모금(시민 및 기업체 대상 후원회원제도 운영)
 ⑥ 프로그램 등 운영수입(시민강좌 운영 및 도서판매 수입 등)

제4절 삼척학연구센터의 분야별 연구과제

1 분야별 사업목표

- 삼척학연구센터의 분야별 사업목표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기관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테제임
 - 본 연구는 제5장에서 이미 삼척학연구센터의 사업범위를 5가지, 즉 역사·문화, 인문·사회, 경제·산업, 정치·정책, 그리고 자연·환경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삼척학연구센터의 5대 분야별 사업목표를 다시 한 번 명확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역사·문화 :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삼척다음’의 실현 방안 연구
 - 인문·사회 : 삼척의 정신과 가치 발견을 통한 ‘창조적 삼척 만들기’를 위한 연구
 - 경제·산업 : 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콘텐츠 발굴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정치·정책 : 삼척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발전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 자연·환경 : 삼척 지역의 자연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아울러 이와 같은 삼척학연구센터의 5대 사업분야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 연구 및 연구지원, 2) 디지털 아카이빙, 3) 교육 및 인력양성, 4) 교류 및 네트워크 등 4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하였음
 - 첫째, 연구 및 지원사업의 경우, 1) 역사·문화, 인문·사회, 경제·산업, 정치·정책, 그리고 자연·환경 등 5대 사업영역에 대한 분야별 체계적인 기초연구, 2) 분야별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문제해결 방안연구를 핵심 연구과제로 설정하였음

[그림 7-8] 삼척학연구센터의 분야별 사업목표 및 핵심과제

연구분야별 사업목표		연구부문별 핵심과제	
역사·문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삼척다움'의 실현방안 연구	연구 및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체계적인 기초연구 √ 미래지향적 지역문제해결 방안연구
인문·사회	삼척의 정신과 가치 발견을 통한 '창조적 삼척 만들기'를 위한 연구	디지털 아카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시민 공유·활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
경제·산업	도시브랜드화를 통한 콘텐츠 발굴 및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 및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학 교양강좌 개설·운영 √ 창의적 지역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정치·정책	삼척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발전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교류 및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 연구기관/단체간 학술교류 √ 지역학 연구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자연·환경	삼척 지역의 자연 및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둘째,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 사업의 경우, 1) 지역학으로서 삼척학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2) 시민 공유 및 활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핵심 연구과제로 설정하였음

[그림 7-9]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및 구조

- 아카이브(Archive)는 역사적 가치 또는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서의 컬렉션 또는 이들 기록이나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시설, 기관을 의미함
-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은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지닌 디지털 객체를 장기간 관리하여 이후의 이용을 보장하는 활동, 즉 가치있는 기록이나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존·처리하는 활동이나 과정을 의미함
- 디지털 아카이브는 1) 수집, 2) 정리·보존(디지털 매체전환 포함), 3) 아카이브 라이브러리 구축·운영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요소로 구성됨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

아카이브&라이브러리 구축 및 운영
검색·열람 서비스 및 활용 지원
아카이브 콘텐츠(전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서비스 공간 운영 및 관리

수집

분야별 연구자료
기증자료
기본자료

정리&보존

자료 정리 및 보존
디지털 매체전환
수장고 관리 및 운영

- 셋째,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1) 지역내 다양한 계층(초중고 학생, 대학생,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삼척학 교양강좌를 개설·운영하고, 2) 지역의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핵심 연구과제로 설정하였음

[표 7-2] 전국 주요도시의 지역학 교양강좌 운영현황

구 분	운 영 현 황
대 학 교양강좌	부천시-가톨릭대학교, 용인시-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강남대학교·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용인대학교·명지대학교(자연캠퍼스), 의정부시-신한대학교, 평택시-평택대학교, 포천시-대진대학교, 세종특별자치시-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제천시-세명대학교, 천안시-나사렛대학교·상명대학교·호서대학교·단국대학교·백석대학교·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남서울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홍성군-청운대학교, 경산시-영남대학교, 김천시-경북보건대학교, 김해시-인제대학교, 서울특별시-서울시립대학교 등
시민대상 교양강좌	충북학연구소-충북학아카데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충남학강좌, 대구경북학연구소-충북학아카데미, 한국국학진흥원-국학아카데미, 전주역사박물관-전주학시민강좌, 서울학연구소-서울의 고전강좌, 대구경북학회-시민아카데미, 안산학연구원-안산학시민대학, 호남학연구원-향토사가에게 듣는 호남학 이야기, 성북구-성북학강좌, 안성시-안성학강좌, 의정부시-의정부학아카데미, 대전평생교육진흥원-대전학강좌, 유성구-유성학강좌, 단양군-단양학아카데미, 옥천군-옥천학강좌, 당진시-당진학강좌, 보령시-보령학강좌, 부여군-부여학강좌, 청양군-청양학강좌, 태안군-태안학강좌, 장수군-장수학강좌, 나주시-나주학융합아카데미, 여수시-여수학강좌, 김해시-김해학강좌, 사천시-사천학교양강좌, 창원시-창원지역학아카데미 등

주: 1) 대학 교양강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약을 통해 대학교의 정규 교양 과목(3학점)으로 매 학기 지역학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김해시의 경우, 인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내 고등학교(김해고등학교)까지 김해학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이 밖에 건양대학교의 경우 논산시 관내 중고생 대상 지역학 강좌를 특화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서울학 통섭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음

2) 시민대상 교양강좌의 경우, 강좌운영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 평생교육기관, 대학교, 문화원, 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실시되고 있음

- 넷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우, 1) 지역학 연구기관 및 단체간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통하여 지식의 공유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고, 2)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 협력과 연대의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연구과제로 설정하였음

② 단계별 연구과제

가. 설립 및 기반구축 단계(2021~2022)

-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 삼척학연구센터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
 - 5대 연구분야별 기초연구
 - 삼척학 인물 기초연구
 - 대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교재개발
-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 삼척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공동체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계획 수립
-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 대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시범운영(삼척 및 도계캠퍼스)
 - 삼척학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 마을구술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
 - 삼척학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 시민연구원제도 시범운영
 -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나. 도약 및 성장 단계(2023~2025)

-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 5대 연구분야별 기초 및 응용 연구의 세분화
 - 분야별 삼척학 인물 선양사업
 - 시민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교재개발
 - 초중고 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교재개발
-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 삼척학 아카이브 구축 플랫폼 구축
 - 5대 연구분야별 아카이브 구축사업
 - 시민참여 마을 아카이브 구축사업
 - 대학생 주도 삼척학 아카이브 홍보사업
-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 대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확대운영
 - 시민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운영
 - 초중고 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운영
 - 마을구술사 및 마을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삼척학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 시민연구원제도 확대운영
 - 지역외 유관기관 및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

다. 성숙 및 안정화 단계(2026 이후)

-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 5대 연구분야별 기초 및 응용 연구의 활성화
 - 분야별 삼척학 인물 선양사업
 - 삼척학 교양강좌 교재개발의 세분화·다양화

- 삼척학 연구의 글로벌화
-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 5대 연구분야별 아카이브 구축사업
 - 시민참여 마을 아카이브 구축사업
 - 대학생 주도 삼척학 아카이브 홍보사업
 - 국내외 관련기관 연계 삼척학 홍보 및 정보공유 사업
-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 대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확대운영
 - 시민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확대운영
 - 초중고 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확대운영
 - 마을구술사 및 마을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
-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삼척학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 시민연구원제도 확대운영
 - 지역외 유관기관 및 단체간 네트워크 확대
 - 해외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 확대

[그림 7-10] 삼척학연구센터의 단계별 연구과제

	설립 및 기반구축 단계 (2021~2022)	도약 및 성장 단계 (2023~2025)	성숙 및 안정화 단계 (2026 이후)
연구 및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운영계획 수립 ✓ 분야별 기초연구 ✓ 삼척학 인물 기초연구 ✓ 대학생용 삼척학 교양강좌 교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기초 및 응용 연구의 세분화 ✓ 분야별 삼척학 인물 선양사업 ✓ 시민용 삼척학 교양강좌 교재개발 ✓ 초중고용 삼척학 교양강좌 교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기초 및 응용 연구의 활성화 ✓ 분야별 삼척학 인물 선양사업 ✓ 삼척학 교양강좌 교재개발세분화 ✓ 삼척학 연구의 글로벌화
디지털 아카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공동체참여형 아카이브 구축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학 아카이브 구축 플랫폼 설계 ✓ 분야별 아카이브 구축사업 ✓ 시민참여 마을 아카이브 구축사업 ✓ 대학생주도 삼척학 아카이브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아카이브 구축사업 ✓ 시민참여 마을 아카이브 구축사업 ✓ 대학생주도 삼척학 아카이브 홍보사업 ✓ 국내외 관련기관간 홍보 및 공유 사업
교육 및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시범운영 ✓ 삼척학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마을구술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마을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확대운영 ✓ 시민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운영 ✓ 초중고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운영 ✓ 마을구술사 및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확대운영 ✓ 시민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확대운영 ✓ 초중고생 대상 삼척학 교양강좌 확대운영 ✓ 마을구술사 및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류 및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 ✓ 삼척학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 시민연구원제도 시범운영 ✓ 지역내 유관 기관·단체 네트워킹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학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 시민연구원제도 확대운영 ✓ 지역외 유관 기관·단체 네트워킹 구축 ✓ 해외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학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 시민연구원제도 확대운영 ✓ 지역외 유관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확대 ✓ 해외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 확대

제8장

종합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건의

제1절 종합결론

- 본 연구는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속한 재편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라는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도시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도시가 처해있는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에 대한 연구, 즉 지역학 연구기관의 설립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 및 정당성 근거, 지역학 연구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지역학 연구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현대사적 관점에서의 삼척학 인물연구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삼척을 빛낸 분야별 인물을 발굴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첫째, 유럽 및 북미 선진국가는 물론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주요도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미 지역학 연구를 통하여 지역도시의 정체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국내의 경우에도 지역도시의 인구위기, 도시쇠퇴, 그리고 도시소멸에 대한 위기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학 연구 지원 관련 정책 수립과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셋째, 이와 같은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안별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최종 두 개의 대안, 즉 삼척문화재단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와 강원대학교 부설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을 통한 간접운영 위탁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넷째, 삼척을 빛낸 근현대 인물에 대한 연구가 인물학습을 통한 역사적 통찰력과 지역 정체성 및 자긍심 고양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현대사적 관점에서의 삼척학 인물연구의 기본토대가 되는 분야별 삼척출신 인물을 기초조사 차원에서 발굴하였음(총79명)
- 다섯째, 본 연구는 간접운영 위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삼척학연구센터는 향후 미래지향적 삼척학 연구, 공동체 중심의 삼척학 연구, 그리고 문제해결의 실천적 삼척학 연구를 3대 운영방향으로 설정하였고, 향후 설립 및 기반구축 단

계(2021~2022), 도약 및 성장 단계(2023~2025), 그리고 성숙 및 안정화 단계(2026 이후) 등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음

- 여섯째, 본 연구는 삼척학연구센터의 5대 연구분야별 사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4대 연구부문별 핵심과제, 즉 연구 및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분야별 체계적인 기초연구와 미래지향적 지역문제해결 방안연구를,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학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시민공유·활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삼척학 교양강좌 개설·운영과 창의적 지역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그리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지역학 연구기관 및 단체간 학술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음
- 결론적으로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삼척학연구센터는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향후 천년을 뒷받침할 지역의 정신과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정책건의

- 본 연구는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인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의 설계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바, 삼척학연구센터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통한 지역의 위기극복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지역학으로서 삼척학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국내외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학 연구는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는 발전전략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접근되어야 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학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지역학 연구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는 무엇보다도 제도와 재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바, 삼척학연구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척학 연구 지원 내지 진흥 조례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인 운영재원의 확보라 할 수 있음
- 셋째, 국내외 지역학 연구기관의 성공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삼척학연구센터가 어떤 운영방식으로 최종 결정·설립되든지 간에 삼척시, 삼척시의회, 그리고 강원대학교 세 기관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이와 같이 지역학 연구에서 있어서 관·학 또는 지·학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의 출신지역별 대학생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역출신 대학생의 비율이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외부지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임을 고려할 때, 지역과 대학의 협력이라는 가치 안에서 삼척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맞춤형 삼척학 교양강좌의 개설·운영을 통하여 대학생의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에 대한 참여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삼척학연구센터의 성패를 결정짓는 또 다른 요인은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연구활동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적정 규모의 조직체계의 구축과 함께 전임직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연구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 참여진

- 연구책임자

김 호 식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 공동연구자

남 기 택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박 용 숙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안 처 순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유 원 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윤 은 숙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가나다 順임)